



襄陽文化



襄陽文化院



농협은 항상 농업인 곁에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후원자로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유통으로
우리 고장 농업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조합장실 : 671-0078
- 판매유통센터 : 672-4561
- 기획·총무계 : 671-0077
- 카드·공제계 : 671-0075
- 예금계·당직 : 671-0071
- 농기계서비스센터 : 671-0076
- 대부·채권관리 : 671-0072
- 양양농협주유소 : 671-1747
- 지도·구매계 : 671-0073
- : 672-9333
- 하나로마트 : 671-0074
- 팩스 : 672-0076



양양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4리 208번지
홈페이지 : www.yyangnh.com



양양에너지월드

“물로 만드는 빛 이야기”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 관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방법 : www.khnp.co.kr (20인이상부터 신청가능)
- 휴관 및 휴무 : 매주 월요일(명절연휴, 회사사정에 의한 지정일)
- 문 의 전 화 : 070-4034-2344~5

 한국수력원자력 |주| 양양양수발전소



문화학교 개강식



물치만세운동 제93주년 기념행사



제2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제34회 현산문화제 기미만세운동재현행사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도자기체험



경로효친문예작품공모전 입상자 시상식



문화학교 학생 유적지탐방



문화회원 선진지 견학



제22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



설악권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 업무협약식



향토대중화사업: 청소년과 함께하는 향토사여행



제6기 어르신 문화학교 수료식



복무장병대상 전통문화교육



양양의 역사와 문화 특강



제27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 대상 수상



제22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회 최우수상수상



문화학교 학생 작품전시회





목차 Contents

“峴山文化”를 “襄陽文化”로 題號를 바꾸면서..

양양문화원에서는 매년 정기간행 향토문화지로 “峴山文化”라는 題號로 1989년부터 2011년 현재 23호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현산문화제가 열리게 될 때면 언제부터인가 일부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서 현산문화제의 “峴山”이 무슨 뜻인가?, 어디를 현산이라 하나? 등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양의 명칭에 대한 고기록을 보면 동국여지승람(1481년)의 증보판인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양양의 郡名을 翼峴, 伊文, 翼嶺, 德寧, 襄州, 襄山이라고 하였을 뿐 현산이라는 지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700년대에 발간된 여지도서 등 각종 지리지에 峴山이라는 군명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남궁억 선생의 峴山學校설립으로 현산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도 중국 양양의 지명을 사용한 사례는 경북 예천의 경우 서기 983년에 이미 군명을 별호는 양양이라 하였고 현산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비롯하여 상주, 회양, 해남 등 많은 곳에서 현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으므로 근래에 이르러 더욱 혼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양은 1416년부터 우리 고유의 지명을 양양으로 명명 하였음에도, 뿌리 없는 지명이 양양을 대표하는 지명인 양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고자 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향토지인 “峴山文化”부터 “襄陽文化”로 바꾸어 환동해권 시대의 양양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 서고자 합니다.

표지설명



청구도

김정호(金正浩)가 1834년 만든 우리나라 지도로 동해신묘와 소동라령(현 북암령)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8
신년사 양양군수 정상철	10
신년사 양양군의회의장 김일수	14
신년사 국회의원 정문헌	16

특별기고

- 전악(典樂) 허억봉과 漢詩이야기 |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18

향토사료

-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 25
(제27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향토사연구소
-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고찰(考察) 46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주관 제22회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발표회 최우수상을 수상) | 향토사연구소

문화학교 운영

- 2012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학생 수상, 공연내역 | 편집실 ----- 65

건강상식 ----- 68

가족여행

- 양양의 오토캠핑장과 트레킹 ----- 73

전설

- 임천리 철수혈 ----- 81
- 낙산사의 불상 ----- 81
- 쿵쿵산 ----- 82

민속놀이 (무형문화재 신청)

- 수동골 상여소리 ----- 83
- 입암농요 ----- 99
- 상복골농요 ----- 106

경로호친문예작품

- 심사평 ----- 110
- 입상현황 ----- 111
- 시부문 최우수상
 - 열여섯 소녀 / 김성희(현북중학교 3학년) ----- 112
 - 별하나 / 진세림 (한남초등학교 6학년) ----- 113
- 산문부문 최우수상
 - 경로호친과 봉사 / 최영식(양양중학교 2학년) ----- 114
 - 인사로 얻는 큰 행복 / 최리에(남애초등학교 6학년) ----- 116
- 포스터부문 최우수상
 - 작은효도 부모님 웃음꽃핀다 / 박다희(상평초등학교 5학년) ----- 118

2012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 편집실 ----- 119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에 보살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임진년은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역사적인 한해였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여성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운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향토사를 바로잡고 잊혀져가고 소멸해가는 향토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참으로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문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주최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오색령과 한계령의 왜곡된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라는 논문으로 제27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대상인 국무총리 상을 수상함으로써 동해신묘는 종묘와 같이 국가사적지인데 고증 및 발굴을 소홀히 하여 도 기념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해신묘는 고려 때부터 우리 양양에 세워진 것인데 강릉에서 이전되었다는 등 왜곡되어 있어 이에 관한 자료를 총망라하여 올바르게 바로잡아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조사한 철산마을의 애환이 담긴 “양양철광산의 문화사”를 발간하였습니다.

한편 민간주도 4년차인 제34회 현산문화제가 온 군민의 참여 속에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승화하였으며, 특히 두번째로 개최한 “제2회 강원도양양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각 시군에서 많은 참여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화원 회원 문화탐방은 국립춘천박물관, 강원도립 화목원, 남이섬을 탐방하였으며 문화학교 수강생 문화탐방은 강화도의 고려 왕궁터와 전등사, 평화

전망대 등을 탐방함으로써 견문을 많이 넓혔습니다.

문화학교에서는 매년 선생님과 수강생 여러분이 혼연 일체가 되어 열심히 가르치고 배움으로서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한시, 서예, 한국화 반에서는 각종 백일장이나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함으로써 초대 추천작가를 배출하였으며, 사물놀이, 민요, 통기타 반에서는 지역의 각종 축제에 참가하여 축제를 더욱 빛냈으며, 지역의 여러 행사에 초청 되어 공연활동을 하는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문화학교 운영과 국내문화탐방 제35회 양양 현산문화제 등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향토 사료를 꾸준히 발굴하고 정리하여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우리고장의 찬란한 전통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 양 군 수
정 상 철

존경하는 내·외 국민여러분!

신년 타종과 함께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각 가정마다 만복(萬福)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3년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풀어가게될 이 선물 꾸러미에 모조록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좋은 꿈과 희망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계사년은 특히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책과 비전이 제시되었으며, 우리는 기꺼이 이 정책과 비전에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저는 새해벽두의 이러한 벽찬 기운을 맞으며 올 한해 군정을 이끌어갈 사자성어로 타인능해(他人能解)란 네글자를 골랐습니다. 말그대로 ‘다른 사람이 열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능해는 전남 구례에 있는 운조루라는 양반가 고택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고택에 타인능해라는 네 글자가 적힌 쌀 뒤주가 있는데 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뒤주에서 퍼 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민란이나 난리통에도 마을사람들은 고택이 불타지 않도록 지켜주었고, 이를 두고 이웃과 공존하려는 나눔의 정신이 진가를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 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뒤주에 모자람이 없도록 열심히 채워나갈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에서부터 교육, 복지, 의료, 관광 등을 아



우르는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가득 채워놓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단위 수익모델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 과 양양재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본이 지역내에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범합니다. 관내 모든 학생들이 전액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 수련관 및 군립도서관 건립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도 활발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요트마리나,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이들 시설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로 경제 부가가치를 최대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과 연령의 공공 서비스들도 세심히 채워놓을 계획이며, 보육환경개선과 다문화, 장애인 인권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이 뒤주에 담겨질 예산만 총 2,100억원이 넘습니다. 분야별로 또 현안별로 군민께서 요구하시는 곳에 적정한 예산이 선제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2013년 타인능해의 양양은 개방(開放)과 공존(共存), 그리고 양양군이 지닌 모든 가치와 이상의 공유(共有)가 필수입니다.

지난 한해 군정을 추진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군민 모두의 여망이었던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년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이고,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의 창의와 도전을 이곳 양양군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능해의 '타-누구나'는 단지 3만여 양양군민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넓



은 의미의 양양군민이며, 이것은 장차 양양군민으로 속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양양군민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올해 우리는 타인능해의 균정으로 투자를 이끌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2013년 양양군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보십시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고, 이를 기반으로한 동서·동해고속도로는 나날이 그 건설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기에 빠져있던 양양국제공항은 중국 하얼빈과 다롄에 이어 3개 국내노선까지 확보하며, 유령공항의 오명을 벗고 부활의 날개짓을 활짝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2007년 처음 신청하였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도 예비지정을 마침으로써 앞으로 1조원이 넘는 민간투자가 이곳 동해안권으로 몰려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지닌 가치와 이상을 우리의 범주에만 한정시키고, 그 이익에도 같은 기준을 부여한다면, 타인능해의 '타-누구나'는 우리군을 멀리하고 그들의 창의와 도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것입니다.

양양군이 지닌 창대한 가능성과 미래를 우리 아닌 그들에게도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수많은 정부 예산과 민간투자를 양양군으로 돌리고, 수평과 수직을 망라한 모든 인적네트워크의 협력을 양양군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주요 정책과 투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조건없는 자유의사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양양군을 향한 우호적 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세우는 선(善)의 지향점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타인능해가 바로 그 선(善)의 지향점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가령 오색케이블카설치, 관동대기능전환문제, 부족한 다세대공동주택 확충, 산부인과·소아과를 비롯한 최소 의료시설 및 문화향유시설 확보 등 모두가 이러한 타인능해의 자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고택 운조루가 고고한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운조루에서 파생된 선(善)의 발현이 다수를 감동시키고 그들의 애정과 보호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권 확대는 물론, 앞으로 예견되는 동쪽 물류흐름의 대혁명을 떠받치기 위한 대륙전진기지로서



의 발전을 위해 “평화”라는 선(善)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원도 백년대계의 출발선엔 인구 3만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환동해권 교통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양양군의 원대한 비전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제1 허들은 누가 뭐라해도 오색케이블카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할 장애물로 서 있지만, 이 허들을 뛰어넘는 내일엔 대한민국 5천만이 함께 부르는 설악의 합창으로 우리의 꺾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신년 새아침! 우리군 제1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힘을 모으자는 다짐과 함께 군민 여러분께 계사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양군 의회의장
김 일 수

존경하는 3만 양양군민 여러분!

계사년(癸巳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동해바다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꿈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가져다주기 마련입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말씀처럼, 또 국민 모두의 바람대로 위기극복과 경제회생을 통해 국민행복의 시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지난 한해도 군민 여러분이 열망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이 준공되어 사이클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고,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앞으로 조성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관과 더불어 전국 제1의 종합산림휴양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동해·동서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아 분명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3만 군민의 오랜 염원대로 반드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관동대학교 기능전환 문제, 손양면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하조대 희망들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양국제공항의



화려한 비상과 더불어 우리 양양이 명실상부한 강원도 관광중심 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해도 양양군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집행부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왔으며,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선심성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조금의 소홀함 없이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역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집행부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감독으로 군민 모두가 바라는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활기찬 의회, 소통의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7명 의원 모두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회가 군민 여러분과 함께 숨 쉬면서, 진정 군민을 위한正道(正道)를 걸을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정 문 현

'해오름 고장' 의 이름을 살려 새롭게 단장한 『양양문화』 제24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을 뒤로 하고 어느덧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계사년 새해, 『양양문화』 독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롭게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몇 해 전 '미래학의 대부(代父)', 짐 데이토(Jim Dator) 교수는 "정보화 사회 다음에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 '꿈의 사회')가 올 것이며, 경제의 주력 엔진이 정보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상상력과 창조성이 핵심 국가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류(韓流)라는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상품으로 수출한 한국이야말로, 꿈과 이미지에 의해 움직이는 미래 '드림 소사이어티'에 진입한 '세계 제1호 국가' 라고 격찬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는 한 세기 전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소원했던, 문화강국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백범 선생의 소원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나라에게도 행복을 주는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이 되길 기원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양양문화』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영북 지역의 대표 향토문화지로서 더욱 발전해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양문화』제24호의 발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계사년 새해 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김종길 시인의 시(詩), 《설날 아침에》의 한 구절로, 『양양문화』제24호의 발간 새해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 한 해가 가고 /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돌아나듯 /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전악(典樂) 허억봉과 漢詩이야기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양양의 관노 허억봉은 조선 중기 장악원 전악이 된 천재 음악인이다.

8대조는 세종대왕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문경공 허조(許稠)로서 단종 복위와 관련되어 아들 허후(許誦)는 수양대군의 권력찬탈에 반대하다 교형을 당하였고 허후의 아들 허조(許造)가 교형을 당한 아버지의 빈소에서 사육신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기도하다 발각되어 자결했다. 이 사건과 연좌하여 세조는 하양 허씨 문정공파 가문을 일제히 사형하거나 노비로 만들어 버렸다.

허억봉의 조상은 이때 먼 지방 잔읍의 노비로 영원히 소속시키라는 세조의 명에 따라 관노가 된 것이다.

험난한 곡절 끝에 관노로 전락하여 양양에까지 와서 전전 하였다. 100여년이 지나 후손 중 한명인 허억봉이 양양의 관노로 있던 10대(중종 10년 1535년경 출생한 것으로 추정) 중반에 대금 연주에 능함을 인정받아 악공으로 한양으로 불려가 장악원(掌樂院)의 최고 지휘자인 전악(典樂)을 십 수년간 역임하였으며, 그의 수많은 음악활동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허억봉은 족보상에 허락(許珞)으로 표기되었으나 조선왕조실록에는 許億福 혹은 許億逢으로 표기하고 당시 사대부의 문집 여러 곳에는 許億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록에 의하면 양양의 관노는 동구리(同仇里)와 원손(元孫)이 양양군지에 수록되어 있



는데 동구리는 양양의 관노로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에 세조12년(1466년) 세조 대왕이 강원도를 순행하면서 윤 3월14일 양양 낙산사를 둘러보고 월정사로 향하던 중 연곡에서 장막을 치고 농가(農歌)를 잘하는 자를 불러 모아 노래를 하게 하였는데 그중에서 동구리가 가장 잘하여 유의(繡衣) 한 벌을 하사하고 악공의 예로 수가(隨駕)하게 하였다는 기록에 의거하여 양양문화원에서는 동구리를 기리기 위하여 2001년부터 동구리 경창대회를 2010년 까지 개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강원도 대회로 격상하여 제2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개최하므로 전통 민요를 발굴 전승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원손은 중종 28년(1533년) 양양의 관노로 승려와 함께 불탱(佛탱)을 만들어 부상대고(富商大賈: 자본이 없는 상인)와 여염(閭閻: 백성들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집을 드나들며 민중을 속이면서 동궁(東宮)에서 나온 것이라 사칭하다 의금부에 잡혀가 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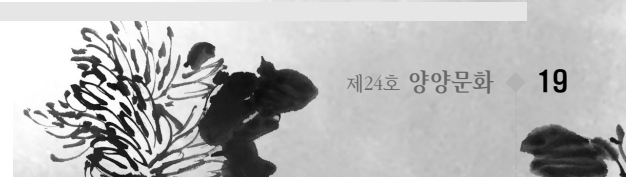
관노 허억봉은 악사로서 정사룡(鄭士龍:1491-1570:명종5년 예조판서)의 집에 자주 초청되어 연주를 했다. 요즘 예능인들이 아르바이트로 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연주자들도 연회에 초청되어 연주를 해 주고 약간의 식량을 얻거나, 사례비를 받아 생활에 보태곤 했다. 정사룡은 허억봉의 대금 소리가 워낙 훌륭하여 “허억봉의 대금연주(許億奉弄大琴)”라는 시까지 지었다.

그는 시에서 “재주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르렀지만 자네 오직 독보적이라” 고 극찬했다 한다. 시를 소개하면

許億奉弄大琴。書。

(허억봉농대금 희서)

憶在湖邊過上元。	대보름 지난 호숫가에 추억이 있으니
(억재호변과상원)	
星河殘夜正當門。	날 썰 역 은하수가 대문과 바로 했네.
(성하잔야정당문)	
落梅吹斷煙村簾。	매화지고 바람 자니 마을에서 피리소리 들리고
(낙매취단연촌적)	
萬頃平波月一痕。	한없이 넓고 넓은 물결위에 달빛만이 비추이네.
(만경평파월일흔)	
袞袞京塵近市喧。	서울의 속진이 성하게 떠오르니 근시도 시끄러우나
(곤곤경진근시환)	
淸愁和病臥黃昏。	시름도 맑아지고 병도 나아져가 황혼에 누웠노라.
(청수화병와황혼)	



誰人解截柯亭竹。 어떤 사람이 대나무를 잘라 피리를 만들었나.
 (수인해절가정죽)
 一曲涼州斷客魂。 고을도 시원하게 한 곡조로 객의 넋을 끊는가.
 (일곡량주단객혼)
 絕藝唐皇擅弟昆。 절묘한 기예에 당황한 형제는 멋대로요
 (절예당황천제곤)
 梨園常破衆音喧。 이원에서 피할 때는 여러 소리 시끄럽네.
 (이원상과중음훤)
 一聲裂石今安有。 돌 부서지는 소리 지금 어찌하여 들리는가?
 (일성열석금안유)
 伎到諸工爾獨尊。 모든 장인의 찬찬한 재주 너만 존경스럽네.
 (기도제공이독존)

정사룡은 음악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명종 6년 그는 임금에게 “음악은 신명(神明)을 감격시키는 것이니 반드시 음악이 조화된 뒤에야 신이 복을 내리는 법입니다” 라며 악기의 수리와 보수를 건의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정사룡은 그의 시문집에서 국공들을 자주 불러 연주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명종 5년(1550년) 3월 하순 당시 예조판서였던 정사룡의 집 정원에서 연주회가 있었다. 허억봉은 대금을 불고, 이좌(李佐)는 요고(腰鼓)를 두드리고, 정의견(鄭義堅)은 가야금을 탔다.

허억봉은 대금 연주에도 뛰어났지만, 악보 만드는 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안상은 명종 16년 (1561년)에 장악원 첨정(僉正)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악사 홍선중, 악공 허억봉, 이무금을 불러 장악원에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악보를 새로 만들도록 했다. 이 악보가 현재 보물 제 283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합자보(琴合字譜)」이다.

허억봉은 금합자보 중 대금 악보인 적보(笛譜)를 만들었다.

《금합자보》서문에 안상은 허억봉에 대해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평했다.

손곡 이달(孫谷 李達)의 스승인 정사룡은 허억봉의 대금 연주에 대해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내린바 있었다.

허억봉은 나이가 들어서 당대의 시인 손곡 이달과도 교분이 두터웠다. 이달이 악공이라 하지 않고 악사라고 부른 것은 허억봉이 장악원에서 승진하여 악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뒤 허억봉은 장악원 악인 중에서 최고의 직책인 전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허균의 스승 손곡 이달은 장악원에서 대금을 잘 부는 허억봉을 보고 “악사 허억봉에게 주는 시”를 칠언절구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贈樂師許億鳳

(증악사허억봉)

雙眉覆眼鬢蕭蕭。

(쌍미복안빈소소)

曾捻梨園紫玉簫。

(증념이원자옥소)

移向瑤臺彈一曲。

(이향요대탄일곡)

曲終垂淚說先朝。

(곡종수루설선조)

양 눈썹이 눈을 뒤덮고 귀밑머리 소소한데

일찍이 장악원에서 붉은 색 옥통소를 불었다네

요대(瑤臺)를 향해 가서 한 곡조를 타더니

곡이 끝나자 눈물을 흘리며 선조(先朝) 얘기하네

降仙樓夜懷

(강선루야회)

迢遞朱闌俯碧城

(초체주란부벽성)

滿天星斗夜雲輕

(만천성두야운경)

一千里外身何遠

(일천리외신하원)

十二峯前月正明

(십이봉전월정명)

多病未能成峽夢

(다병미능성협몽)

獨來猶自聽江聲

(독래유자청강성)

仙居不必求他界

(선거불필구타계)

何處緜山有玉笙

(하처수산유옥생)

아득하니 푸른 성 주란을 굽어보니

별 가득한 밤하늘에 구름은 빠르구나.

천리 밖 멀리 이 몸은 어디에 있는가.

열두 봉 앞 달빛은 정대 공명하구나.

짧은 꿈도 이루지 못하니 병 많은데

혼자니 오로지 강물소리만 들리네.

신선이 있는 곳을 구할 필요 없으나

옥 생황 부는 후산은 어느 곳인가.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나는 소시적에 태평한 문물을 볼 수 있었다, 악공에 허억봉이란 사람이 있어서 대금을 잘 불었는데, 만년에는 현금(玄琴)으로 옮겨서 또한 잘했다”며 허억봉을 소개한 바 있고,

조선 중기의 문신 서성(徐瀧)이 평해군에서 옛 악사 허룡을 만나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지은 시에서 전악 허억봉에 대한 기록이 발견 된다.

허룡은 허억봉이 자신의 형이라고 소개하고 10년 동안 전악을 한 대단히 뛰어난 음악인이었다고 자랑 한다. 이에 의하면 허억봉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던 듯하다.

이름은 허룡(許弄), 그 또한 악사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 허임(허억봉의 아들로 침술에 뛰어나 침구경험방 등 침술에 관한 책도 저술한 조선후기 침술의 대가였다고 한다)과 그의 부모는 황해도 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허룡은 강원도 쪽을 거쳐 경상도 평해로 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3년이 지난 선조 28년 (1595년) 상우도 관찰사 서성이 평해군으로 시찰을 나가 허룡을 만났다. 서성은 거기서 허룡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지은 시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시에서 허억봉의 모습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너는 어디에 살았느냐” 관찰사의 질문에 허룡은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허룡은 스스로 예전에 악사였다고 말하며 지난날을 이야기 한다.

“平海郡逢舊樂師許弄” 中에서

“평해군봉구악사허룡”

吾兄名億鳳 (오형명억봉)	나의 형 이름은 억봉으로
以笛隨乘輿 (이적수승여)	대금으로 임금의 수레를 따랐다오.
十年爲典樂 (십년위전악)	십년동안 전악을 하였고
進退隨鴻臚 (진퇴수홍려)	물러나선 홍려시 연의에 수행했었지요.
少小習耳目 (소소습이목)	어려서 귀와 눈으로 조금 익히고
樂其可知歟 (악기가지여)	그는 음악을 알 수 있었답니다.
十二仍學箏 (십이잉학쟁)	열두 살에 아쟁을 배우고

鯤絃飾玉環
 (곤현식옥거)
 哀音唳孤鶴
 (애음려고학)
 流聲咽宮渠
 (유성인궁거)
 藝成頗解律
 (예성과해율)
 梨園播名譽
 (이원과명예)
 班行亞師兄
 (반행아사형)
 先輩借吹噓
 (선배차취허)
 吹竹與彈絲
 (취죽여탄사)
 相須類駟驢
 (상수류거허)
 是時太平久
 (시시태평구)
 天衢和日舒
 (천구화일서)
 公卿事遊宴
 (공경사유연)
 三日已爲疏
 (삼일이위소)
 凝香掩槐柳
 (응향엄괴류)
 南池折芙蓉
 (남지절부거)
 每逐中畬宴
 (매축중사연)

거문고 줄에 옥고리를 장식하였지요.
 애절한 음은 외로운 학이 우는 듯
 흐르는 소리는 도랑물이 오염하는 듯
 기예가 어우러짐에 자못 울려를 이해하여
 이원(장악원)에 명예가 퍼졌다고.
 서열이 사형(師兄)에 버금갔고
 선배들이 대금을 불라고 뽑아 갔지요.
 대금을 불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사이입니다.
 이때는 태평세월이 오랜 지라
 큰 길에 잔치천막이 펼쳐졌다고.
 공경대부들이 노는 연회를 일삼아
 사흘이면 이미 소원한다고 여겼답니다.
 응향각에서 세월을 가리어 덮고
 남지에서 부용을 꺾었지요.
 매양 연회가 벌어진 가운데 쫓아다니느라

不覺流居諸 떠돌며 지내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
 (불각류거제)
 時從執拍位 때로 집행(執拍, 전악)의 자리에 서서
 (시종집박위)
 擅場不爲沮 연회장을 맘대로 휘저도 방해받지 않았답니다.
 (천장불위저)

전악 허억봉에 대하여 조금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뛰어난 인기 연예인이었던 허억봉은 30대 초반까지도 장가를 가지 못했다. 악공은 천직(賤職)이었고 생활이 너무나도 가난 했다. 양인집안 여식과 혼인을 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러저럭 허억봉은 30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노총각으로 지내고 있었다.

1560년 말경 허억봉은 악공에서 승진하여 악사로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허억봉은 궁중연회 뿐만 아니라 양반 사대부가의 각종 연회에 불려가 대금연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허억봉이 예조판서 김귀영(金貴榮)가에 불려가 악공으로 지낼 때 사비(私婢)와 남녀의 연을 맺고, 조선 제일의 침뜸 명의가 된 허임을 임신한 것도 이때 즈음이다.

김귀영은 1568년 5월에 예조판서가 되었다. 예조판서는 예악(禮樂), 제사, 연향(宴享), 외교, 학교, 과거 등을 총괄 관장한 예조의 으뜸 벼슬이다. 가비(歌婢), 금비(琴婢), 무비(舞婢)라고 불린 이들은 사대부의 풍류를 도왔다. 사대부들은 회갑 등의 잔치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악공들을 집으로 불러 풍류를 즐겼다. 이때 초청 음악인들에 더하여 집안의 사비들을 참여 시켰다. 이때 다만 가난하지만 대금으로 심금을 울리는 허억봉을 끄적어도 사모한 여비가 정성들여 마련한 둘만의 조촐한 잔칫상을 상상해 볼수는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살림을 꾸렸을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이 조선 중기 험난한 삶을 살다간 양양의 관노 허억봉에 대한 전악으로서의 천재적인 음악 활동과 그에 얽힌 한시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다른 분야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끝맺고자 합니다.

한시 번역을 위하여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한시교실 이종우 선생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참고문헌

- “조선 침뜸이 으뜸이라“ 손종양 지음 (사단법인) 허임 기념사업회
- “한국음악의 거장들” 송지원 저, 태학사
- “장악원 우주의 선율을 담다.”
- “처음으로 읽는 조선 궁중 음악 이야기” 송지원 저 추수밭 2010. 5.25
- “악인열전” 허경진(교수) 저 한길사

〈제27회 향토문화 공모전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논문〉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I. 연구의 목적

고래(古來)로부터 나약한 인간들은 신(神)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이러한 만물에는 신이 함께하고 있으며, 자연재해(自然災害)는 이러한 신들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므로 평안을 위해 산천해악(山川海嶽)에 제단(祭壇)을 만들고 수시로 제사(祭祀)를 지내왔다.

여기 양양(襄陽)의 동해신묘(東海神廟)는 황해도 풍천의 서해단(西海壇), 전라도 나주의 남해신사(南海神祠) 등과 함께 해신에게 국토수호, 국태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했던 곳으로 4해(海)의 으뜸인 동해지신(東海之神)이 주석하는 이곳에서는 왕(王)이 내린 향(香)과 축(祝)으로 매년 새해 별제(別祭)와 2월과 8월에 상제(常祭)를 행하여 왔다.

양양 동해신묘의 창건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고문헌·지리지·고지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고려 제6대 성종 10년(991년)에서 고려 제8대 현종 19년(1028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동해신묘(東海神廟)는 강원도 양양 땅에 있으며, 사해(四海) 가운데 첫 번째로 동해신(東海神)의 신호(神號)를 내렸다.”고 하고 있고, 『고려사』 동계편과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도 고려조에 동해신묘는 양양 땅에 있다고 하고 있으며, 조선조에도 『조선왕조실록』 등에 태종,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현종, 영조, 정조, 철종, 순종 당시에도 양양 지역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해신묘가 이전(移轉)하였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1968년 양양교육청 발간 『향토지』와 1976년 양양문화원 발간 『향토지』에 “묘(廟)가 본래는 강릉에 있었는데 성종 21년(1490년)에 수군만호영을 강릉으로부터 대포성(양양읍 조산리)에 이전할 때에 같이 이견하였다는 설이 전파된 것이 아닌가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990년 양양군이 출간한 『양주지』에는 “본래는 강릉 안인포에 있었는데, 성종 21년(1490년)에 수군만호영이 현 양양읍 조산리에 이견하였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으며”라고 이를 답습하고 있다. 또한 강릉시청 공식홈페이지인 디지털 강릉 문화대전에는 동해신묘의 정의를 “우리나라 동해안 강릉 정동의 동해신을 모신 곳”이라고 하고, “본래 정동진에 있었으나 현재는 양양 조산리에 이전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건립연대를 “고려 공민왕 19년(1370년)으로 추정” 하는 등 역사기록이 왜곡되고 있다. 그럼에도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지식백과에 링크시켜 놓고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설명자료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¹⁾ 이에 동해신묘에 대한 역사기

1) 참고로 동해신묘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종목: 강원도기념물 73호, 명칭: 양양동해신묘지(襄陽東海神廟址), 분류: 유적건조물/ 종교신앙/ 제사유적/ 제사터, 소



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올바른 역사를 알릴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순종 2년(1908년) 일본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따라 일제(日帝)의 통감부훈령으로 동해신묘가 훼손(毀撤)된 후 85년만인 1993년 정전(正殿)을 복원했으나, 일제가 민족혼 말살을 위해 흔적을 철저히 훼손하였고, 한국전쟁, 낙산도립공원 관광개발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훼손으로 흔적을 찾지 못한 채,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복원됨으로서 방위문제에 대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련 역사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오해(誤解)를 해소(解消)시킴으로서 역사를 바로 세워 민족의 유산(遺産)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Ⅱ. 해신(海神)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고찰(考察)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의 문헌기록에 미루어 삼국(三國) 이전에는 주로 종묘(宗廟)를 세워 시조신(始祖神)이나 조상신(祖上神)에 제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제전(祭典)에 삼산(三山)에 대한 기록은 백제(百濟)에도 있었으니,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남부여조에 “(扶餘)中有三山, 日日山·吳山·浮山, 國家全盛之時, 各有神人, 居其上, 飛相往來, 朝夕不絕”이라고 하고 있어 산신(山神)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新羅)의 종묘제도는 제2대 남해왕(南解王) 3년에 비로소 시조(始祖)인 박혁거세(朴赫居世)의 사당을 세워 4시(春夏秋冬)로 제사(祭祀)하였고, 제36대 혜공왕(惠恭王)에 이르러 5묘(廟)²⁾의 제(祭)를 정하였으며, 당(唐)의 도움으로 3국을 통일한 통일신라(統一新羅)는 당의 영향을 받아³⁾ 제37대 선

재지: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39외 (면적 1,316㎡), 지정일: 2000. 01. 22, 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동해신묘는 나라에서 동해신에게 풍농풍어(豊農豊魚)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천과 바다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였다. 세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사』를 통해 고려시대에 이미 나타나 조선 초기에 국가 제사 장소로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으로 대나무와 솔밭이 있고, 서쪽은 민가와 접해 있다. 남쪽과 동쪽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높은 대지 위에 새로 지은 정전이 1동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다가 1993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정전의 서북쪽에 정조 24년(1800년)에 강원관찰사 남공철이 글을 지은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가 있다.

- 2) 五廟: 미추왕(味鄒王)은 김씨 성의 시조(始祖)가 됨으로 해서, 또 태종대왕(太宗大王: 武烈王)·문무대왕(文武大王: 武烈王子)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큰 공덕이 있으므로 해서, 모두 3왕(王)을 세세불천(世世不遷)의 신위(神位)로 삼고, 거기에 친묘(親廟: 祖와 父) 2위(位)를 합해 5묘로 하였다.
- 3) 『고려사』 권42 / 세가 제42 / 공민왕 5 "永惟爲治之道必本於禮 考諸祀典知五嶽五鎮四海四瀆之封起自唐世崇明美號歷代有加"

덕왕(宣德王)에 이르러 名山大川에 대한 제전(祭典)을 확립하였다.⁴⁾

그러나 『증보문헌비고』제61권 악해독산천 신라편을 보면 “신라7대 일성왕 5년(138년) 임금이 북순(北巡)하여 태백산(太白山)에서 제사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미 신라초기(新羅初期)에도 삼산(三山)에 대한 제사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⁵⁾와 『증보문헌비고』⁶⁾를 보면 통일신라의 제전(祭典)은 3산(山) 5악(岳) 4진(鎭) 4해(海) 4독(瀆) 이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누어 제사(祭祀)를 하였던 것으로, 여기 대중소(大中小) 3사(祀)의 분류 역시 중국 고대의 사전(祀典)을 모방한 것이니, 주례(周禮) 춘관(春官) 소종백조(小宗伯條)에 “立大祀, 用玉帛牲牲, 立次祀, 用牲幣, 立小祀, 用牲”이라고 하고, 그 주(注)에 “鄭司農(鄭衆)云, 大祀, 祭天地, 次祀, 日月星辰, 小祀, 司命(宮中小神) 已下, 玄(鄭玄)謂大祀又有宗廟, 次祀又有社稷·五祀·五岳, 小祀又有司中(星名)·風師·雨師·山川百物”이라고 하고 있다.

신라의 국도(國都)인 경주(慶州)는 남쪽에 위치한 관계로 당시 동해는 경주의 동쪽인 아등변(阿等邊: 지금의 영일군 흥해면)에, 서해는 미릉변(未陵邊: 지금의 옥구군 임피면)에, 남해는 형변(兄邊: 지금의 동래)에, 북해는 비례산(非禮山: 지금의 삼척)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4해신은 이미 중사(中祀)로 모셔졌었고, 이를 관장하던 용왕전(龍王典)에는 대사(大舍)와 사(史) 각 2명이 있었다.⁷⁾

통일신라의 뒤를 이어 건국한 고려는 도읍을 개경(開京)으로 정하면서 개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전(祭典)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고려 제전의 설치기록은 성종(成宗) 10년(991년) 처음 사직단(社稷壇)을 설치하도록 명하고,⁸⁾ 이를 관장하는 기구로 사직단에 장상 2명을 두었다.⁹⁾

『증보문헌비고』악해독산천 고려편을 보면 “현종 19년(1028년)에 남해신(南海神)을 사전(祀典)에 올렸는데, 그것은 정안현(定安縣)에서 다시 산호수(珊瑚樹)를 바쳤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숙종(肅宗) 원년(1096년)¹⁰⁾과 숙종 3년¹¹⁾에 “5해신(海神)에 비를 빌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 이미 5해

4) 『삼국사기』 권 32 / 잡지 제1 / 제사

5) 『삼국사기』 권 32 / 잡지 제1 / 제사

6) 『증보문헌비고』 권61 / 예고 8 / 제단 1 / 악해독·산천 / 신라

7) 『삼국사기』 원전 / 삼국사기 권39 / 잡지 제8 / 직관 중
“龍王典, 大舍二人, 史二人”

8) 『고려사』 권3 / 세가 제3 / 성종 10년(991년) “爰自聖祖至于累朝未置夏松之祀尙虧周栗之禮 朕繼承以來凡所施爲必依禮典 子穆父昭之室髣髴經營春祈秋報之壇方將創立其令群公擇地置壇”

9) 『고려사』 권83 - 지 제37 / 병3 / 간수군 “社稷壇 散職將相二”

10) 『고려사』 권54 - 지 제8 / 오행 2 / 금 “肅宗元年 五月 旱, 戊申 設金剛經道場于乾德殿禱雨 三年 四月 旱 己亥 禱雨于五海神 四年 五月 乙巳 禱雨于諸神祠

11) 『고려사』 권11 세가 제11 / 숙종 3년(1098) “己亥 祈雨于五海神. 五月 壬子 雨雹. 辛酉 醮于會慶殿.



에 신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민왕 4년(1355년)에는 명나라 황제가 비서감 직장 하상봉(夏祥鳳)을 파견하여 신호(神號)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조서해 왔으므로 고려에서도 신호가 봉해졌다고 본다.¹²⁾

고려시대 해신(海神)은 국가수호, 국태민안, 풍농 풍어뿐만 아니라 바다와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모셔졌던 것으로 보인다. 해신은 신라와 당(唐)은 4방(四方)의 4해신(海神)을 모셨으나, 고려 숙종 원년과 숙종 3년에는 다섯 곳의 해신에, 숙종 7년에는 세 곳의 해신에 제사를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는 북쪽의 두 강과 함께 5해신을 모셨던 것 같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을 보면, 동해묘(東海廟)는 강원도 양양 땅에 모시고, 서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서해단(西海壇)을 황해도 풍천에 모셨으며, 남해를 다스리고 지키는 남해신사(南海神祠)를 전라도 나주에 모셨다. 그리고 북쪽은 바다가 없어 해신을 모시는 대신 강의 신을 모셨으니 강신을 봉사한 사당으로는 북동편은 함경북도 경원에 두만강신사(豆滿江神祠)를, 북서편에는 평안북도 의주에 압록강사(鴨綠江祠)를 모셨음을 알 수 있다.¹³⁾

『대동지지(大東地志)』 강원도 양양군 단유(壇壝)편에 “그 전고(典故)에 의하여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고 하고 있어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도 제전은 중국의 제도를 따랐던 신라와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태종은 부·주·군·현(府州郡縣)에 모두 사직단(社稷壇)을 세워서 봄·가을에 제사를 행하고,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며,¹⁴⁾ 동해신묘 찬실도에 보면, 조선 태종 14년(1414년) 8월 예조에서는 조선의 제전을 대중소사로 등급을 정했는데, 악해독(嶽海瀆)은 이때에도 중사(中祀)로 모셨다.¹⁵⁾

세종은 악(嶽)·해(海)·독(瀆)·산천의 단묘(壇廟)와 신편제도를 정하면서 나라에서 행하는 해(海)는 중사로 행하고, 사묘의 신호, 제복, 신위판, 제사의식, 단유 등 단묘(壇廟)와 신편(神牌)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¹⁶⁾

중사(中祀)인 해신(海神)은 조선시대도 고려처럼 국가의 안녕과 풍년, 풍어를 기원하였던 곳으로 매년 새해의 별제와 중춘, 중추의 상제에 왕이 향과 축을 보내어 제사를 올렸으며, 이외에도 가뭄 등 국가적 재난이 있거나 안전을 빌기 위해 수시로 제사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태종 4년

12) 『고려사』 권 42 세가 제42 / 공민왕 5년 “壬寅, 帝遣秘書監直長夏祥鳳來詔曰 (중략)

一四海稱東海之神南海之神西海之神北海之神 (중략) 於戲 明則有禮樂幽則有鬼神其理既同其分當正.”

1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 경도상(京都上) 壇廟 악해독단(嶽海瀆壇) “海東海在襄陽南海在羅州西海在豐川, 瀆…鴨綠江在義州北豆滿江在慶源”

14)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1406년) 6월 5일

15)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1414년) 8월 21일

16)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1437년) 3월 13일

(1404년) “종묘(宗廟)·사직(社稷)과 악해독(嶽海瀆)·명산 대천(名山大川) 및 소격전(昭格殿)에 비를 빌었다.”고 하고 있고,¹⁷⁾ 중종 11년(1516년)에도 “가뭄으로 향(香)을 내려 팔도의 악·해·독(嶽海瀆)의 신에게 비를 빌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¹⁸⁾ 또 영조 18년(1742년)에는 “북도의 곡물선이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동·남·북 3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해신(海神)에게 치제(致祭)하였다.”고 하고 있다.¹⁹⁾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권61 오례의(五禮儀)에 이르기를 “악해독(嶽海瀆)의 신좌(神座)는 남향으로 북쪽에 모신다. 정월에는 원장제(元壯祭), 2월 8월은 상제(常祭)로서 제사한다. 축문에는 국왕(國王)의 성명을 쓴다. 헌관은 정삼품(正三品) 지방수령이 맡는다.”고 하였으며,²⁰⁾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를 보면 “동해신묘 축문과 홀기(行禮)는 다음과 같이 하고 축판은 소나무로 하되 규격은 가로 8촌(寸) 세로 1척(尺) 2촌(寸) 두께 6분(分)으로 하고, 폐백(幣帛)은 저포(苧布)를 사용한다. 길이는 1장(丈) 8척(尺) 지금의 포백척 11척(尺) 5촌(寸) 2분(分), 색깔은 청(靑)색으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²¹⁾

이상에서 볼 때, 해신(海神)은 신라, 고려, 조선 이래 중사(中祀)로서 엄격한 기준에 의거 관리되었으며 예를 갖추고, 왕이 향과 축을 보내어 새해와 중춘, 중추, 그리고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해신에게 국태민안과 풍년, 풍어, 기우(祈雨)를 기원하던 매우 중요시 되었던 곳이었다.

Ⅲ. 동해신묘에 관한 역사 기록들

앞의 역사기록에서도 보았듯이 당나라 때부터 시작된 중국의 오악, 오진, 사해, 사독제도를 처음 받아들인 나라는 당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한 신라로 사해(四海)는 중사로서 당시 경주를 중심으로 동해는 영일군 흥해면에, 서해는 옥구군 임피면에, 남해는 동래에, 북해는 삼척에 설치하였으며,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는 도읍인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오악, 오진, 사해, 사독을 설치하였다.

17)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1404년) 5월 21일 "辛酉/禱雨于宗廟'社稷'嶽海瀆'名山大川及昭格殿. 審理冤獄, 賑恤窮乏, 掩骼埋骸, 又使文可學祈雨"

18)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1516년) 4월 17일 "以旱遣官, 祭宗廟'社稷'祈雨, 又降香祈雨于八道嶽'海'瀆之神"

19) 『영조실록』 권55, 영조 18년(1742년) 1월 20일 "命東'南'北三道道臣, 致祭海神. 上慮北路運穀, 易致臭載, 命禮曹別送香祝於三道, 使道臣虔誠躬禱, 以祈利涉"

20) 『증보문헌비고』권61 오례의 "嶽海瀆神座在北南向...仲春仲秋祭之孟春先行元壯祭...祝稱國王姓諱...獻官正三品州縣獻官守丞..."

21) 『세종실록』五禮儀 및 『축문과 홀기』: 『양양군지』 하권 1564쪽~1566쪽 참조



『고려사』제58권 동계편 익령현(翼嶺縣)에 “지양주사(知襄州事 : 지금의 양양)에 동해신사(東海神祀)가 있다”고 하고 있고,²²⁾ 『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도호부 명환(名宦)편에도 고려 때 왕이 내려준 향을 존무사가 받아온 기록이 있으며,²³⁾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 “고려 때는 동해이므로 중사에 실려 있다. 그대로 따랐다.”고 하고, 고종 1년(1864년) 『대동지지(大東地志)』 강원도 양양군 단유(壇壝)편에도 “양양군 동쪽 13리에 있는 동해신묘에서 고려 때부터 중사(中祀)로 받들어 왔으며 그 전고(典故)에 의하여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고 하고 있어 고려 때 이미 개성(開城 : 고려의 도읍)의 정동인 양양에 동해신사가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를 보면 고려의 국가체제를 완비한 고려 제6대 성종 10년(991년) 춘추로 제사하는 사직단의 터를 선정해 세우도록 대신들에게 명하였다고 하고, 국역 『증보문헌비고』 악해독산천 고려편을 보면 현종 19년(1028년)에 남해신(南海神)을 사전(祀典)에 올렸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동해신묘(東海神廟)는 강원도 양양 땅에 있으며, 사해(四海) 가운데 첫 번째로 동해신(東海神)의 신호(神號)를 내렸다고 하고 있고, 여지도서에 동해는 묘(廟), 서해는 단(壇), 남해와 두만강은 신사(神祠), 압록강에는 사(祠)로 기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해신묘는 남해신사 보다 앞선 시기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숙종(肅宗) 원년(1096년)과 숙종 3년에 “5해신(海神)에 비를 빌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 이미 5해에 신사가 모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공민왕 4년(1355년)에는 명나라 황제가 비서감 직장 하상봉(夏祥鳳)을 파견하여 신호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조서해 왔으므로 동해신호는 동해지신(東海之神)으로 봉해졌음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동해신묘는 강릉으로 이전했다거나 강릉에서 이전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의 각종 기록에도 동해신묘는 양양 땅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동해신묘 찬실도에 보면, 태종 14년(1414년) 8월 예조에서는 “동해는 양양, 남해는 나주, 서해는 풍천으로 정하고 치제를 관에서 주관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조선의 제전을 대·중·소사로 등급을 정하였고, 악해독(嶽海瀆)은 이때에도 중사(中祀)로 모셨다.²⁴⁾ 『세종실록』에 세종 19년(1437년) 3월 13일 2번째 기사에 “나라에서 행하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는 중사(中祀)이고 사묘(祠廟)의 위판(位版)은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쓴다. 동해는 강원도 양주 동해에 있다.”고 하고 있으며,²⁵⁾ 단종 2년

22) 『고려사』 권58 - 지 제12 / 지리 3 / 동계 “翼嶺縣 本高句麗翼嶺縣[一云 伊文縣] 新羅景德王改今名爲守城郡領縣 顯宗九年 置縣令 高宗八年 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使四十一年 降爲縣令四十四年 以降賊又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 陞知襄州事別號襄山 有東海神祠屬縣一.”

23)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명환 “高麗 崔宰 爲知州時 有降香使凌辱存撫使 宰曰將及我矣 棄官而去”

24) 『태종실록』 권28, 태종14년(1414년) 8월 21일

25) 『세종실록』 오례(五禮) 길례 서례(吉禮序例) 번사편

(1454년)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도 “동해신사당(東海神祀堂)은 양양부(府) 동쪽에 있는데 봄과 가을에 향과 축을 내려 보내 중사(中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있으며,²⁶⁾ 『세조실록』에 세조 12년(1466년) 윤3월 10일(신사) 1번째 기사에 “명하여 동해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²⁷⁾ 3일 후인 윤3월 13일 낙산사에 거동(舉動)하셨던 것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종실록』 중종 11년(1516년) 4월 17일 2번째 기사에 보면, 나라에 가뭄이 심하여 강향사(降香使)를 내려 보내 팔도의 악해독(嶽海瀆)(양양의 동해)의 신에게 비를 빌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²⁸⁾ 중종 25년(1530년) 조선 전기의 전국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산천편과 사묘편을 보면, “동해신사는 부(府) 동쪽 13리에 있고 중사이며 봄과 가을에 향과 축을 하사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있으며,²⁹⁾ 조선후기의 대표적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산천과 단묘편에도 동해모는 부(府) 동쪽 13리 해상에 있으며 중사이고 정전 6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 동서제 각2칸, 백천문 1칸으로 매년 새해(歲首)와 중춘, 중추에 향과 축을 내려 제사를 지낸다고 쓰여 있다.³⁰⁾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저서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권19의 비갈(碑碣)에 양양부사를 역임(1581~1583)한 황해도 관찰사 배삼익(裵三益)공의 신도비문(神道碑文)에도 “매년 축문을 받아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 있으며,³¹⁾ 현종 8년(1667년) 미수 허목의 글에도 “양양(襄陽)에는 해상(海上)에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³²⁾ 정조 24년(1800년) 4월 7일(기축) 기사에 “양양(襄陽)의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法典)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수 있다.”³³⁾고 하고 있으며, 영조 33년 읍지를 모아 편찬한 조선후기의 대표적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에도 “동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동해

26)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 강릉 대도호부 / 양양 도호부 襄陽: (중략) 東海神祠堂。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中祀。

27)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1466년) 윤3월 10일
“命祭東海神”

28)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1516년) 4월 17일(무진) “以旱遣官，祭宗廟，社稷祈雨，又降香祈雨于八道嶽海瀆之神”

29) 『新增東國輿地勝覽』襄陽都護府，山川。“海 在府東十三里 祀典祭東海神于此 載中祀”；“東海神祀 在府東 春秋降香祝致祭”

30) 『輿地圖書』江陵鎮管所屬襄陽府，山川(英祖33年)“海 在府東十三里 祀典祭東海神于此 載中祀”；江陵鎮管所屬襄陽府，壇廟“海 在府東十里海上 正殿六間 神門三間，奠祀廳二間，東西齋各二間，百川門一間，每歲首別祭 仲春仲秋常祭 香祝皆自京下來。”

31) 『西厓先生文集』비갈(碑碣) 배삼익(裵三益)공의 신도비문(1607)“數年 邑中稱治 去後多遺愛 襄陽 濱海之邑 土俗淳樸 公因俗爲治 乃更御之以寬簡 蘇殘起廢 政聲尤藉 尤重祀事 釋菜社稷城隍 厲祭 率皆以身親之 每年祭東海神 祝冊自京師至 公虔肅將事”

32) 『기언』권35 원집 외편 동사(東事) 현종 8년(1667년)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글 “旌善稱孝弟鄉 溟州獺國 壽春貉國 襄陽海上有東海神祠”

33) 『정조실록』 권54, 정조24년(1800년) 4월 7일(기축) “襄陽洛山津，有東海神廟，享禮在於國典，則其爲所重如何，(중략) 敎曰 襄陽洛山津東海神廟事，亦依狀請修補後，道伯狀聞，則當差爾爲獻官，設祭以祈襄民之若昔富盛”



묘(東海廟)를 강원도 양양 땅에, 서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서해단(西海壇)을 황해도 풍천에, 남해를 다스리고 지키는 남해신사(南海神祠)를 전라남도 나주에 각각 모셨다. 그리고 북쪽에는 바다가 없어 해신을 모시는 대신 강(江)의 신을 모셨으니 강신을 봉사한 사당으로는 북동편은 함경북도 경원에 두만강신사(豆滿江神祠)를, 북서편에는 평안북도 의주에 압록강사(鴨綠江祠)를 모셨다”고 하고 있다.

동해신묘는 수차례 중수를 거듭하였다. 조선 경종 2년(1722년)과 조선 영조 28년(1752년)에 양양 부사 채팽윤(蔡彭胤)과 이성억(李聖億)에 의하여 각각 중수되었으며, 어사 권준(權駿)의 상소(上疏)에 대해 전교(傳敎: 임금의 명령)를 내리니 강원관찰사 남공철(南公轍)의 주장으로 동해신묘를 중수(重修)하고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를 세웠다. 그 후에도 철종원년(1850년) 부사 홍운모(洪運謨), 광무 4년(1900년) 부사 이구영(李龜榮)에 의하여 중수(重修)했다고 『양양읍지』에 기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순종 2년(1908년) 12월 26일 양양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손(毀撤)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최종낙 군수는 동해신묘 훼손(毀撤: 헐어서 치워버림) 후 3일 만에 급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93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 6칸 1동이 건립 되었으며 정전의 북·서쪽에 두 토막이 났던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복원(復元)하여 세워 놓았다. 2000년 1월 22일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중수기사비는³⁴⁾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34) 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文

江原道觀察使南公轍 撰

海與王公同位望沈之祭報其德也 易說卦曰潤萬物者莫盛於水水之爲言演也 故其立字兩人交一以中出者爲水一者數之始兩人譬男女言陰陽交物以一起也 周制四坎驚蟄因郊而祭立夏因迎氣而祭白露因雩而祭大寒因蛰而祭歲凡四祭玉兩珪有邱五寸牲用少牢幣視天色王及尸皆服 毳冕樂奏葵賓歌函鐘舞大夏用五獻盡齊是朝踐之獻也 清酒是饋食之獻也 後世又加王爵東海曰廣德王西海曰廣潤王南海曰廣利王北海曰廣澤王禮諸侯得祀方內嶽濟我國亦有東海神廟在襄陽府治東十里 聖上二十四年御史權駿言臣行郡縣見東海神廟齋舍牆垣多頽廢宜修治民家之入居近廟者一並撤去毋使雞犬相聞孰嚴於嶽濟之祀而四方之以水旱疾苦祈禱者聚焉 甚非所以致崇極之道請著爲式以禁 教曰可 命觀察使主其事臣公轍適按關東謹依禮部知委舉行事訖驛 聞香祝自京師至以峻差獻官而祀之噫疾痛必呼人之情也 民之視海神如父母不獲者祈禱焉固宜然祀有其常祀彼愚夫愚婦之執金帛而來者將以求媚于神而徵福禮滋益漫則屑孰甚焉 朝廷之禁之乃尊神之至而導民於正也一舉而兩得矣 遂述其事刻石俾解其惑至於廟宇之隨時修補者有司存 銘曰 有宮奕奕有牆翼翼 盪豆靜嘉維珪及帛於粢灑掃肆筵說几神具醉飽神既安止御史自東歸奏于王嶽濟有祀曰沈曰望蚩蚩者氓凡有攸求握粟擲錢久爲神羞禮滋益慢神顧不歆 王命方伯其始自今敕其府吏祇存常祀迺宣祝冊迺御史不顯我 王以禮事神導率之正爰及衆民民皆稽首神宜酬惠酬之維何惠茲東裔衆有魚矣 多黍多稻既富而庶黃髮壽考維萬億年海晏河清維萬有衆偕我太平

崇禎紀元後庚申閏四月 日立

〈복원된 동해신묘 정전〉



〈동해신묘 중수기사비〉



이와 같이 동해신묘는 고려 때 개성(開城)의 정동(正東)인 양양에 처음 세워진 이래 계속 양양 땅에 있었다는 기록은『고려사』뿐만 아니라 조선조 태종,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현종, 영조, 정조, 철종, 순종 당시 역사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오히려 세조실록을 보면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상소하기를 “동해·남해·서해의 신사(神祠)는 모두 개성(開城)을 기준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방위(方位)가 어긋난다면서 동해신(東海神)을 강릉(江陵)에, 서해(西海)는 인천(仁川)에, 남해(南海)는 순천(順天)에, 북해(北海)는 갑산(甲山)에 이제(移祭)하고, 일대의 사전(祀典)을 새롭게 할 것을 상소하니 임금이 듣고만 있었다.”고 하고 있으며³⁵⁾ 그 후 4회의 어느 신사도 이전하였다는 기록이나 새로운 지역에 신사가 있었던 기록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IV. 동해신묘의 잘못된 이전(移轉) 논란

강릉시청의 인터넷 공식홈페이지인 “디지털강릉문화대전”³⁶⁾ 등의 동해신묘 이전설 내용을 보면, “동해신묘는 당초 강릉도호부 정동진(正東津)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조선(朝鮮) 성종(成宗) 21년 강릉 대도호부 안인진에 주둔하였던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대포진으로 이전 되는 시기인 중종 31년(1536년)에 함께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해신묘가 함께 이전하였다는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의 이 건 연혁을 살펴보면, 『세조실록』세조 13년(1467년) 8월 24일 기사에

35) 『세조실록』권3, 세조 2년(1456년) 3월 28일

36) 강릉시청의 동해신묘에 대한 게재내용

게재자: 디지털강릉문화대전(강릉시청) <http://gangneung.grandculture.net/>



“혁파(革罷)한 연곡·양양 두 포(浦)의 선군(船軍)과 강(江)의 선척(船隻)을 다시 설치하고, 만호(萬戶)가 수어(守禦)하게 하였다.”고 하고,³⁷⁾ 세조 14년(1468년) 6월 4일 기사에 의하면 “혁파(革罷)한 연곡포(連谷浦)·양양포(襄陽浦) 두 포의 선척(船隻)과 수부(水夫)를 안인포(安仁浦)에 이속(移屬)하고, 만호(萬戶)를 차견(差遣)하여 방어(防禦)를 굳게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³⁸⁾ 『대동지지』에 의하면 “혁폐(革弊)한 대포진(大浦鎭)은 양양부 동쪽으로 12리에 있다.”고 하고, “성종 21년(1490년)에 강릉 안인포에서 옮겨오고 만호(萬戶)를 두었다. 중종 15년(1520년)에 성을 쌓았으며, 둘레가 1천 4백 69척이었는데 후에 고쳤다. 청초호(靑草湖)는 고려 때 만호를 두어 정박하는 병선을 관리하였다.”라고만³⁹⁾ 기록되었을 뿐으로, 수군만호영을 이전 할 때 동해신묘도 함께 이전하였다면 중사인 동해신묘의 이전(移轉) 기록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동해신묘 이전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수군만호영과 동해신묘가 함께하여야 할 상관관계도 없다.

그렇다면 동해신묘에 대한 이전 설은 허균(許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있는 동해용왕비문(東海龍王碑文)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기록은 1968년 양양교육청 발간 『향토지』와 1976년 양양문화원 발간 『향토지』에 “묘(廟)가 본래는 강릉에 있었는데 성종 21년 경술(1490년)에 수군만호영을 강릉으로부터 대포성(양양읍 조산리)에 이전할 때에 같이 이 건하였다는 설이 전파한 것이 아닌 가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990년 양양군 『양주지』에는 “본래는 강릉 안인포에 있었는데, 성종 21년 (1490년)에 수군만호영이 현 양양읍 조산리에 이 건하였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으며…”라고 채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국어국문학자인 강릉대학교 장정룡교수가 “강원도민속연구” 논문에서 허균(許筠)의 『성소부부고(惺所覆 藁)』에 있는 동해용왕비문(東海龍王碑文)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던 강릉시청이 공식홈페이지인 “디지털강릉문화대전”에서 이를 왜곡 공문화시킴으로서 동해신묘가 강릉에서 이전해 온 양, 정사(正史)가 왜곡되고 있다.

먼저 동해신묘의 강릉 이전설의 근원인 허균의 『성소부부고』중 중수동해용왕비문(重修東海龍王碑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萬曆甲辰歲七月。襄陽府洞山居漁人池益福。乘舶捉魚于海中。風引其舶。行甚駛。一晝夜東泊于一嶼。有靑衣人招詣王宮。陸載仗衛甚嚴。王者被紫坐殿中。謂曰。吾享祀於江陵殆數千年。不幸爲府人所

37) 『세조실록』권43 세조13년(1467년) 8월 24일

38) 『세조실록』권46 세조14년(1468년) 6월 4일

39) 『대동지지』江原道 襄陽都護府 鎭堡 “革弊 大浦鎭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移江陵安仁浦萬戶于此 中宗十五年築城周一千四百六十九尺後革 靑草湖高麗置萬戶營泊兵舡其革罷未攷”

逐。移於茲土。非所樂也。我訴於帝。今始得請。欲假爾導意於列岳。還吾宇舊地。爾其言於司牧者。否則當以兵伐之。人必受吾害也。因以風送之。不一日。回抵東岸。漁人異之。不敢自陳於官。言諸鄉任人李碩霖俾達之。府使洪公汝成聞而心異之。取掌故攷之。嘉靖丙申歲。祠自江陵府正東村移于茲。不敢引神語以滋弊。乞還舊。牒于方伯。不見從。明年乙巳七月。關東大風雨。自安邊。通川。南至安東地數十郡。酷被水災。民畜死者以萬計。尤劇於江陵焉。洪公愈以爲異。招吏民議曰。神言不移祠。則當降沴以警之。而歲而水災若是。其果徵。吾之力不可移。吾視其神宇頽圯未修盍相與新之。以致吾敬。修吾職而誠以享之。則神其吐諸。咸曰。然。遂捐廩餘。鳩工徒。命鄉任人董之。易其瓦。墁其壁。繚以垣。作神門。除其庭。不數月告完。公躬祭之。自是襄無風而歲屢熟也。府人神異之。乞文於余。欲鑿石而豎之以示後。余曰。我國設四海龍祠。相度地理之中以置宇。江陵爲東海之最中。而正東尤其邑之中。位置爽塏。故名爲正東。自新羅祭龍于是。恭僖王朝。府人沈彥慶。彥光兄弟秉魁枋。以龍祠有費於府。諷方伯啓聞。無故移之。方纂輿地。書曰。東海在襄陽[○]。至今未復舊。今祠地庫污。不合妥靈[○]宜其神之怒也。彥光兄弟之敗。其亦坐是。而乙巳風水之變。實可懼也。神之明告人。人不能信。吁其惑也夫。府伯之改修廟。甚合於禮。其可泯之乎。遂備紀而係之以頌曰。

海於天地。爲物甚鉅。孰王其中。以風以雨。矯矯龍神。天用莫如。降福降沴。靈應孔孚。疇就其庫。俾徙我宇。惜其小費。宜神之怒。神之所都。貝闕珠宮。俗之陋居。奚戀以恫。不然誠敬。神所享者。不敬者慢。不誠則惰。掃地酌水。誠敬則臨。玉寢瓊甕。慢則不欽。移以污之。卽惰卽慢。豈以豐殺。而爲忻歎[○]告而不從。宜水之洪。溫溫邦侯。事神以恭。乃新其構。乃腆其饗。神顧以喜。風來悽愴。克敬克誠。奚擇江襄[○]願此永鎮。資歲穰穰。民無札傷。五兵不入。於萬斯年。祐我弊邑。”

먼저 중수동해용왕 비문(重修東海龍王碑文)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부 동산(襄陽府 洞山)과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 보면 “동산현에는朴·金·崔·李·陳·林성씨가 있다.”고 기록되었고 池씨는 없는 것으로 보아 池益福은 가공인물일 가능성이 높다.⁴⁰⁾
2. 동해의 한 섬에 용왕의 궁이 있었고 이를 보았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풍자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3. “내가 강릉(江陵)에서 제사를 받아먹은 지 수천 년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강릉부 사람에게 쫓기어 이곳에 옮겨와 보니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 글로 보아 이곳은 동해의 외딴 섬을 가

40)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 강릉 대도호부 / 양양 도호부 “洞山縣 戶一百二十五, 口二百十八. 軍丁, 侍衛軍七十三, 缸軍一百九十五. 土姓二, 金, 李; 亡姓四, 孫, 朴, 河, 鄭; 續姓三, 張, 林, 尹. 洞山縣姓四, 朴, 金, 崔, 陳; 來姓一, 林; 亡姓一, 李.”



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양양의 동해신묘를 직시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앞의 역사기록에서 볼 때 동해신묘는 통일신라시대에는 경주의 동쪽인 영일군 흥해면에, 고려조 이래 개성의 정동인 양양에 위치하고 있었음이 역사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수천년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동해신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동해신묘는 중사이므로 왕의 명에 의해 이전하거나 고치거나 해야 함에도 용왕이 “목민관에게 말하라.”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신묘를 보수했다면 왕의 명이 있어야 함에도 역사기록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향임(鄕任) 이석림(李碩霖)에 말하여 관에 보고하게 하였다는데, 이석림은 대포수군만호(大浦水軍萬戶)를 역임한 이봉(李菴: 1486~1552)의 둘째 손자로 당시 10대 소년에 불과한데 어찌 향임(鄕任)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었겠으며, 녹봉까지 떼 내어 공장이와 인부를 모아 향임 이석림에게 감독케 하고 보수 후 공이 몸소 제사를 지냈다고 했다. 동해신묘의 제사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었는데, 임금의 승인도 없이 부사가 마음대로 보수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6. 부사 홍여성(洪如誠)을 홍여성(洪汝成)으로 기록한 것은 사실인양 하기 위해 비슷한 이름을 다르게 쓴 것으로 보이며, 홍여성(洪汝成)이 전고(典故)를 들어 상고해 보니 사당(祠堂)이 강릉부 정동촌에서 중종 31년(1536년)에 이곳으로 옮겨졌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미 6년 전인 중종 25년(1530년)에 만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도 “동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동해묘를 강원도 양양 땅에(중략) 모셨다.”⁴¹⁾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3해(海: 동해: 양양, 남해: 나주, 서해: 풍천)에 대한 지명이 표기되어 있는 팔도총도(1481년)가 있다.

특히 심언광(沈彦光)은 당시 문신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수에 참여한 관원 중 일원이었는데 심언광이 편수당시인 중종 25년(1530년)에는 동해묘가 양양에 있다고 기록하고, 6년 뒤인 중종 31년(1536년)에 심언경, 심언광 형제가 용왕사당을 비용이 든다하여 옮겼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7. 동산현에 산다는 지익복이 만났다는 왕이라는 자가 사당을 옮겨 달라고 했었는데 퇴락한 사당이 이미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동해신묘는 오래전부터 양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앞뒤 정황이 맞지 않다.

8. 사당을 보수 단장하고 제사를 지내니 이때부터 양양에 바람이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는데, 동해신은 양양의 신이 아니라 동해의 신임에도 강릉과 양양지역으로 한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일정지역을 지키는 용왕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 강릉시는 디지털 문화대전에서 우리나라는 사해용왕을 위해 사당을 세우되 강릉이 동해의 한가

4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 京都上 壇壝편과 江原道襄陽都護府 祠廟 “海東海在襄陽.. 東海神祠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

42)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 남원 도호부 / 용담현

운데이고 정동이라 이름하고 신라 때부터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동해묘는 경주의 동쪽인 아등변(阿等邊: 지금의 영일군 흥해면)에, 북해묘는 비례산(非禮山: 지금 삼척시)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고려사』에 보면 고려 때는 개성의 정동인 양양에 동해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신라 때부터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내용은 맞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해 해신은 고려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방위(동해-양양, 서해-풍천, 남해-나주)를 설정한 후 조선조에도 『조선왕조실록』 등에 태종,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현종, 영조, 정조, 철종, 순종 당시에도 양양 땅에 있었음을 확인되고 있고, 동해신묘가 이전(移轉)하였다는 기록이나 흔적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또한 동해신묘가 고려 개경의 정동인 양양에서 한양의 정동인 강릉으로 옮겨졌다면 서해나 남해신사도 풍천과 나주에서 인천과 순천에 함께 옮겨졌어야 이치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한양의 정동인 강릉에 동해신묘가 이전하였다면 정동이 아닌 양양으로 다시 이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고려 말 이래 동해(東海) 신(神)의 공식 신호인 동해지신(東海之神)과 동해용왕(東海龍王)은 분명하게 다르다.

용왕신에 관한 기록으로 『지리지』전라도 남원도호부 용담현 편에 보면 “마산담(馬山潭)은 현의 동쪽. 곧 웅진분소(熊津濱所)가 있는데, 용왕신(龍王神)이 있다. 봄·가을에 그 고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있으며,⁴²⁾ 『지리지』황해도 연안도호부 우봉현 편에 보면 “박연(朴淵), 개성(開城)의 한우물[大井]과 임진(臨津)의 덕진(德津)과 함께 세 곳 용왕(龍王)이라 하여, 가물 때 비를 빌면 응험이 있으므로, 지금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고 하고 있으며,⁴³⁾ 『지리지』경기 양주도호부 편을 보면 “양진(楊津) 부(府) 남쪽에 있으니, 곧 한강[漢水]의 남쪽이다. 단(壇)을 쌓고 용왕(龍王)에게 제사지내는데, 봄·가을의 가운데 달[仲月]에 (나라에서) 향(香)·축(祝)을 내리어 제사 지낸다.”고 하고 있어⁴⁴⁾ 해신과 달리 용왕신은 연못이나 우물에서도 용왕제를 올린 것으로 보아 당시 강릉 고을에서도 고을의 안녕을 위해 동해용왕에게 제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오랜 정치생활과 판서까지 지낸 허균이 동해지신과 동해용왕을 구별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도 모순투성이 『성소부부고』를 지은 이유를 생각하건데 허균은 당시 사회문제를 『홍길동전』을 통해서 알리고 개혁하려 했었다면, 당시 관리가 소홀했던 제전의 문제를 『성소부부고』를 통해서 알리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이를 문학적 해석이나 당시의 사회문제로 이해하려하지 않고 개인 문집을 정사와 연결시킴으로서 발생한 잘못된 역사해석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43) 『세종실록지리지』 황해도 / 연안 도호부 / 우봉현

44)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 양주 도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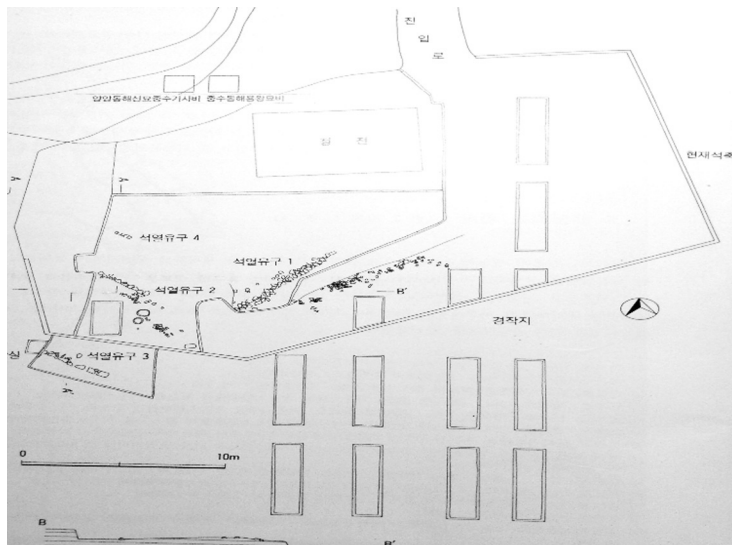
V. 동해신묘 복원과 방위문제

『관동읍지』양양부 단묘편과 『여지도서』강원도 양양군 단묘편에 의하면 동해신묘는 정전 6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 동·서재 각 2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⁵⁾

그런데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1908년 12월 26일 동해신묘가 훼손(毀撤)된 후 80여년이 지난 지금, 주변이 많이 훼손되었고, 동해신묘의 경우 일반인들이 왕래 할 수 없었던 곳이었던 관계로 원래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여 동해신묘중수기사비가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악해독(嶽海瀆)의 신좌(神座)는 남향으로 북쪽에 모신다는 『세종실록』 오례편⁴⁶⁾과 『증보동국문헌비고』 권 61 오례의(五禮儀)에⁴⁷⁾ 근거하여 제단의 신위를 남향으로 하여 1993년 정전 6칸 1동을 복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98년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동해신묘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제의 동해신묘지에 대한 철저한 훼손과 한국전쟁 시 치열한 격전으로 피난민들이 돌아와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농지를 개간하고, 낙산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면서 심하게 훼손되어 발굴지

〈동해신묘 발굴조사 현황도〉



에서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동해신묘 복원지에서 서쪽으로 100여 미터 지점 민가 앞에는 옮겨온 것이라는 기단석인 장대석이 2개가 발견되었다.”고 하고 있고,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의 규모나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전지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건물지의 기단석 열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이들 석렬 유구 2, 3, 4의 방향이 모두 북서-남동방향으로 노출된 점으로

45) 『관동읍지』 양양부 / 단묘 / 동해묘

46) 『세종실록』 오례 / 길례 서례 / 신위

47) 『증보문헌비고』 권61, 禮考 8, 嶽海瀆山川

보아 동해신묘의 정전의 방향은 동남방향으로 안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위의 발굴현황 도면으로 볼 때, 건물이 동남향을 하였다면 건물이 악해독의 신은 북쪽에서 남향으로 앉아야한다(嶽海瀆神 座在北南向)는 『세종실록』이나 『증보문헌비고』의 남향이 아닌 동남향으로 안치된 상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발굴조사나 구전을 통해 건물의 방향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역사기록을 통해서 방향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고지도를 통해 방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고지도 중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 광여도(廣輿圖; 1800), 여지도(輿地圖; 1736), 지승(1776) 등 대부분의 지도에는 관청, 역, 동해묘, 사찰 등의 위치를 표시하면서 글씨와 건물 그림 모두를 위(上) 한 방향으로 그려놓았으나, 지방도(地方圖; 1872)와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1745-1765)에는 건물그림의 방향을 글씨방향과 다르게 그려놓고 있다.

〈1872년 지방도-양양읍지도〉



48) 강릉대학교박물관, 『양양동해신묘』, 1999, 58쪽.



각 고을에서 그려 올린 것으로 알려진 1872년의 지방도(地方圖)를 보면 글씨는 지도의 윗방향인 서향으로 쓰여 있으면서도 관아(府官), 상운관(驛), 향교(文廟) 등은 남향으로, 신흥사와 낙산사는 동향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에 동해묘와 명주사는 서향으로 거꾸로 그려져 있으며, 1745년의 비변사인방안지도에도 관아(衙舍), 상운관(驛), 향교(鄉校) 등은 동남향으로, 신흥사와 낙산사는 동향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에, 동해묘와 명주사는 서향으로 거꾸로 그려져 있고, 현재 건물이 남아있는 신흥사, 낙산사, 명주사의 현 방향에 비추어 볼 때, 동해묘의 방향은 서향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1745-1765)〉



뿐만 아니라, 세조 7년 예조판서 황수신과 참판 민원이 세조에게 아뢰기를 “성신(星辰) 1단(壇)은 동쪽에 있어 서향(西向)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쪽의 10단(壇)은 북악단(北岳壇)·북진단(北鎮壇)·동악단(東岳壇)·동진단(東鎮壇)·동해단(東海壇)·태세단(太歲壇)·제왕단(帝王壇)·산천단(山川壇)·

신기단(神祇壇)·사독단(四瀆壇)”이라고 하고 있으며, 전하께서는 “이러한 옛날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殿)을 짓고, 담을 두르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다. 다만 근년에 국가에서 일이 많아서 갑자기 시작할 수가 없으므로 여력(餘力)이 있기를 기다려야 하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라”고 하였고,⁴⁹⁾ 『관동읍지』와 『여지도서』에 보면 “동해묘는 양양부 동쪽 10리 해상에 있다.”고 하고 있고, 『기언』35권 미수 허목의 글에도 “양양에는 해상에 동해신사가 있다.”고 하고 있어⁵⁰⁾ 아마도 동해신묘 정전 뒤쪽은 바다와 접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삼국유사에도 문무대왕을 동해 대왕암에 상사한 후, 해룡(海龍)이 된 문무대왕을 위해 동해변에 감은사(感恩寺)를 지었는데 아들 신문왕이 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금당계하(金堂啓下)에 동향한 한 구멍을 냈다고 하듯이,⁵¹⁾ 이는 동해신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고 재단에 쉽게 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바다를 등지고 있지 않았을까?

또한 『연재선생문집』에 보면 “동해신묘는 좌우 송림속에 있다.”⁵²⁾고 함에 비추어 볼 때도 동해묘 정전은 서향을 하고 있었고, 뒤에는 바다가, 남북에는 지금과 같이 구릉지를 따라 송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1908년 일제에 의해 동해신묘가 철회된 지 9년만인 대정 6년(1917년) 일제에 의해 측량된 지적도면을 보면, 조산리 399번지만 신사부지로 되어있고 현재 복원한 정전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조산리 434-55번지는 당시 임야였으므로 현재의 복원 위치는 맞지 않다고 봄이 가할 것이며, 도면의 형태로 볼 때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해신묘는 정전 6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 동·서재 각 2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일제가 측량한 조산리 399번지는 671㎡로 이를 모두 짓기에는 협소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강릉대학교의 발굴조사 시 399번지 경작지 일부에서도 석열 유구가 발굴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복구도면을 보면 신사부지 주변 토지가 국가소유였고 주변에 송림이 울창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일제가 동해신묘 철회 후 기사중수비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면적을 줄여 측량했을 수도 있으므로 휴경기인 겨울을 이용하여 임야 사이인 조산리 398번지, 399번지, 400번지 일대를 추가로 발굴 조사한 후 신묘 터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토지를 매입한 후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아 복원함으로써 더 이상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9) 『세조실록』권7 세조 3년(1457년) 3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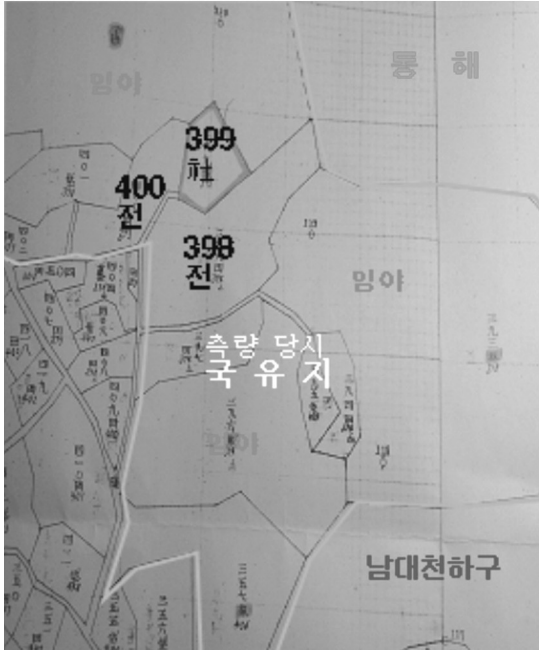
50) 『기언』 제35권 원집 외편 동사(東事) 현종 8년(1667)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글 “溟州嶽國 壽春貊國 襄陽海上有東海神祠”

51) 『삼국유사』변역문 / 삼국유사 권 제2 / 기이 제2 / 만파식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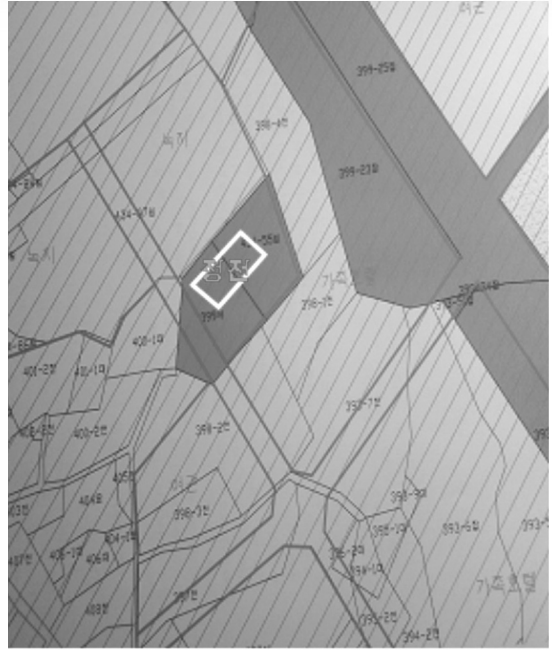
52) 『연재(淵齋)선생문집』권지20 雜著 東遊記 (歲戊辰暮春)1868년(戊辰) “自杆城歷襄陽。至江陵記。癸卯 復折而上義相臺。巨石臨海傑立。高可數十步。眺望爽豁。而東海神廟。在右松林之間矣。”



〈1917년 복구 지적원도〉



〈현재의 정전 위치〉



〈항공사진〉



VI. 맺는말

우리나라의 해신(海神)에 대한 제례문화는 통일신라 당시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제례의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고, 매년 정례적으로 제례를 올려 국태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 해 왔다.

그런데, 신라의 도읍은 경주였던 관계로 당시 동해는 영일군 흥해면에, 서해는 옥구군 임피면에, 남해는 부산(동래)에, 북해는 삼척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후 고려가 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개성의 정동인 양양에 동해묘를, 정서인 풍천에 서해단을, 정남인 나주에 남해신사를, 바다가 없던 북쪽에는 해신 대신 강의 신을 모셨으니 북동편은 함경북도 경원에 두만강신사(豆滿江神祠)를, 북서편에는 평안북도의주에 압록강사(鴨綠江祠)를 모셨었다.

여기 양양의 동해신묘는 국태민안과 풍농, 풍어 등을 기원하던 4해의 으뜸인 동해지신이 주석하는 곳으로 왕이 내린 향과 축으로 매년 새해 별제와 2월과 8월 상제를 행하던 곳이다.

동해신묘는 고려 현종 19년(1028년) 이전에 이미 양양에 설치된 후, 조선조에도 태종,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현종, 영조, 정조, 철종, 순종 당시 역사기록들이 동해신묘는 양양 땅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조 당시 한양을 중심으로 한 이전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중사인 동해신묘뿐만 아니라 서해신단, 남해신사 또한 이전했다는 기록이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동해신묘가 강릉으로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정책에 따라 1908년 동해신묘가 강제 철거 훼손된 후 80여년이 지난 1993년 정전 1동을 복원하였으나, 복원위치, 방위 등이 역사기록과 상이하고, 1998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도 복원위치와 방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광범위한 발굴조사를 통한 복원이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오늘 동해신묘의 역사를 재정리하면서 『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동국여지승람』, 그 밖의 수많은 역사기록들이 남아있음에도 이들 정사(正史)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역사를 정립하지 않고, 일개 문학집이나 일정구역의 발굴 단면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누(累)는 인터넷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정보화 시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왜곡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잘못된 역사일지라도 이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서, 더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이므로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잘못 알려졌던 동해신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사를 바탕으로 역사를 바로 잡아 공공기관부터 관련된 기록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지금 복원중인 동해신묘의 위치와 방향문제도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역사기록과 광범위한 발굴조사를 통해 복원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민족정신 말살정책으로 일제(日帝)에 의해 강제로 철거 훼손된, 고려시대 이래 국가의 안녕과 풍농, 풍어, 기우 등을 기원하던 중사인 동해신묘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복원해 국민 정신문화의 기반으로 삼아나가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여지도서』

『대동지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애선생문집』

『기연』

『관동읍지』

『양양읍지』

『백호전서』

『연재선생문집』

『양양읍지』

『증보문헌비고』

디지털강릉문화대전

장정룡, 『강원도민속연구(江原道民俗研究)』, 국학자료원, 2002

장성욱, 『고려시대 도자제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7

주강현, 『觀海記3 동쪽바다』 웅진지식하우스, 2006

강릉대학교, 『양양 동해신묘』, 1999

〈제22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 대상 수상〉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고찰(考察)

발표자 :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이기용

I. 문제의 제기

소동라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 “要害, 自本府西去麟蹄境界所等羅嶺三十六里”라는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는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치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라는 기록이 있는 등 소동라령에 대한 역사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현재의 한계령이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역사 기록에 보면 분명히 오색령, 소동라령, 옛 한계령은 모두 다른 영이었다.

그럼에도〈사진 1〉에서 보듯이 한계령(오색령) 정상에는 언제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는 낡은 간판에 “문헌상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한계령에 관한 지명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의 ‘소동라령(所等羅嶺)’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8년도에 발간한 『한국 지명 유래집』에도 한계령이 “옛날에는 소동라령이라고 불리었다”¹⁾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진 1〉한계령 정상의 간판



그러나, 이 모두 소동라령이 지금의 한계령이라는 출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설악산은 중추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 녹으며 설악, 설산, 설화산으로 불리었고 소동라령도 같은 뜻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한계령으로 바뀌었다”²⁾는 막연한 주장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서 ‘소동라령’을 검색하면 현재의 한계령이 옛 소동라령인 양, 왜곡되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소동라령의 위치를 고지도, 문헌기록, 경제기록, 하천기록, 거리기록 등을 통해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현지를 실사도 해 봄으로써 잘못 알려진 소동라령과 한계령의 위치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우리의 향토문화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II. 소동라령(所冬羅嶺)의 위치

1. 고지도(古地圖)를 통해서 본 소동라령

소동라령과 오색령, 옛 한계령은 명백하게 다른 영(嶺)이었다. 이는 먼저 〈표 1〉과 〈지도 1〉고지도(古地圖)들에 표기된 고개명칭을 보면 오색령, 소동라령, 한계령을 다른 위치의 영으로 함께 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한국지명유래집』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연구소, 2008. 제5부 강원도 인제군 689p

2) 『지금의 한계령과 오색령에 대한 연구』최병현, 2012, <http://blog.daum.net/bhunc1/8224402>

〈표 1〉 소동라령이 표기된 옛 지도들

제작년도	지도명	고지도에 표기된 고개 명칭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58	팔도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89	여지도		오색령		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800	해동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830	좌해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834	청구도		오색령	필여령	연수령	소동라령	
1857	동여도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구룡령
1776	좌해분도		오색령			소동라령	
1750	해동지도(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1776	지승(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1800	광여도(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지도 1〉 팔도지도(1758~1767년)



이 영들은 영동에서 영서로 통하는 백두대간을 넘는 영들이기 때문에 지도상에도 북에서부터 남으로 순차적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 영의 좌

우관계를 그르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위치에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파(박달령)와 구룡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동라령은 오색령과 멀리 떨어진 구룡령에 더 가까운 영으로 지금의 한계령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문헌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여지도서(輿地圖書, 1765년)』의 양양 관애(關陔)편에는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형제현·양한치 등의 일곱 항목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오색령은 설악 남쪽 가지에 접하고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춘천 기린계이다.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가지에 접해 있고 기린계로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기린계이다. 구룡령은 조침령 남쪽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강릉 금천면과 경계를 이룬다”³⁾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관동읍지(1871)』양양 관애(關陔)편에도 “오색령은 설악산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인제와 경계이고,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춘천기린과 경계하며,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기린과 경계하며 과거 서울로 가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가지에 접해있고 기린과 경계한다. 구룡령은 조침령 남쪽가지에 접해있으며 강릉 금천면과 경계한다.”⁴⁾고 적고 있다. 강원도『양양군읍지 2(江原道 襄陽郡邑誌 二)』에도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에 있다. 즉 필여령 남쪽 가지로 기린과 경계를 이루며, 옛날 서울로 통하던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쇄되었다”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소동라령은 필여령과 조침령 사이에 있었던 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하여, 필여령 북쪽에 위치한 현재의 한계령은 소동라령과 같은 영이 아님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여지도서』 江原道 襄陽 / 關陔편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弼如嶺 在府西四十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 棋麟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卽弼如嶺南枝接棋麟界舊有路通京今廢 阻沈嶺 在府西四十五里卽所冬羅嶺南枝接棋麟界 九龍嶺 在府西七十里卽阻沈南枝接江陵 金川面界 兄弟峴 在府西四十里向五色嶺路兩峴對峙相似故名 兩寒峙 在府西二十里向九龍嶺路

4) 『관동읍지』관애편

五色嶺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弼如嶺在府西四十里卽是五色嶺南枝接春川棋麟界 所冬羅嶺在府西六十里卽弼如嶺南枝接棋麟界舊有路通京今廢 阻沈嶺在府四十五里卽所冬羅嶺南枝接棋麟界 九龍嶺在府西七十里卽阻沈南枝接江陵金川面界

5) 『江原道 襄陽郡邑誌 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 卽弼如嶺南枝接棋麟界舊有路通京今廢

3. 경계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위 문헌뿐만 아니라 『대동지지(大東地志)』1866년 양양 영로조(襄陽嶺路條)에는 연수파령·오색령·필여령·박달령·소동라령·구룡령·양한치·소량치 등의 모두 여덟 개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 소동라령(所冬羅嶺)에 대해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모두 서쪽 50리 인제계이고,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로 아주 험한 서울로 통하는 대로였다. 기린계이다”⁶⁾라고 적고 있다. 또한, 『만기요람(萬機要覽)』군정편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편에는 “양양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 개탄(麟)통로는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 모두 서쪽 통로다.”⁷⁾라고 기록되어 있고, 1829년에서 1831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관동지』13권에는 “영로(嶺路) 연수파령은 서북쪽 75리에 있으며 오색령·필노령·박달령은 모두 서쪽 50리에 있는 인제계(麟蹄界)이다.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서쪽 60리에 있는 험한 절벽지로 경성으로 통하던 대로로 기린계(麟蹄界)이다. 구룡령(九龍嶺)은 서남쪽 60리에 있으며 강릉계(江陵界)이다.”⁸⁾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역사기록에서 소동라령은 춘천 기린계라고 하고 있어 현재의 인재군 기린면 진동리를 경계로 하는 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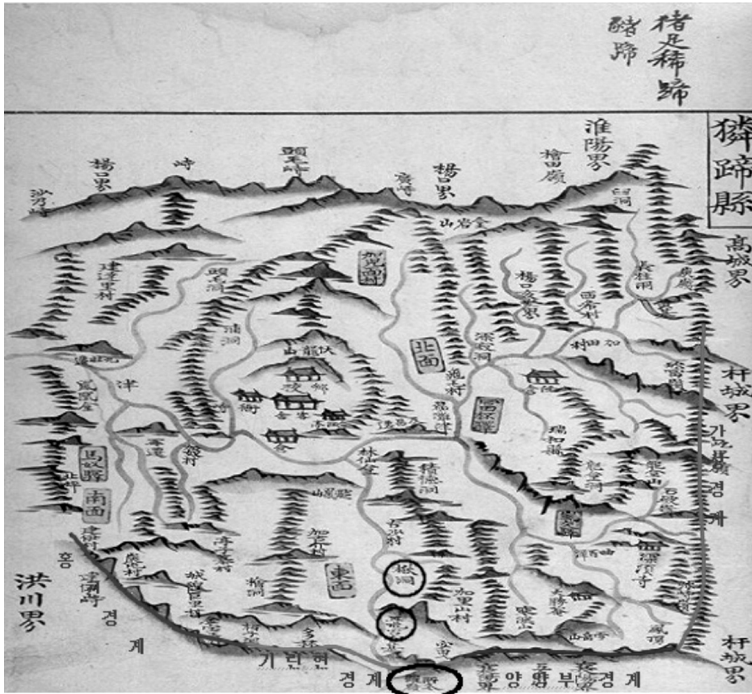
아래<지도 2>1834년도 지도인 청구요람에서 보듯이 귀둔까지는 인제현 관할이었으나, 기린면 진동

<지도 2> 청구요람(1834년)



- 6) 『대동지지(大東地志)』양양, 영로조
 五色嶺 弼奴嶺 朴達嶺 俱西五十里獐蹄界. 所冬羅嶺 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獐蹄界.
- 7) 『만기요람(萬機要覽)』군정편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江原道)
 襄陽嶺路 五色嶺 弼如嶺 猗麟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 江陵界 兄弟峴 兩寒峙 并西路.
- 8) 『關東誌』제13권
 嶺路連水坡嶺西北七十五里五色嶺弼奴嶺朴達嶺俱西五十里獐蹄界所冬羅嶺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獐蹄界九龍嶺西南六十五里江陵界.

〈지도 3〉 여지도(1736~1767년)-인제현



리는 당시 춘천부 관할의 기린현에 속해 있었고, 구룡령 너머 홍천과 평창의 일부지역은 강릉대도호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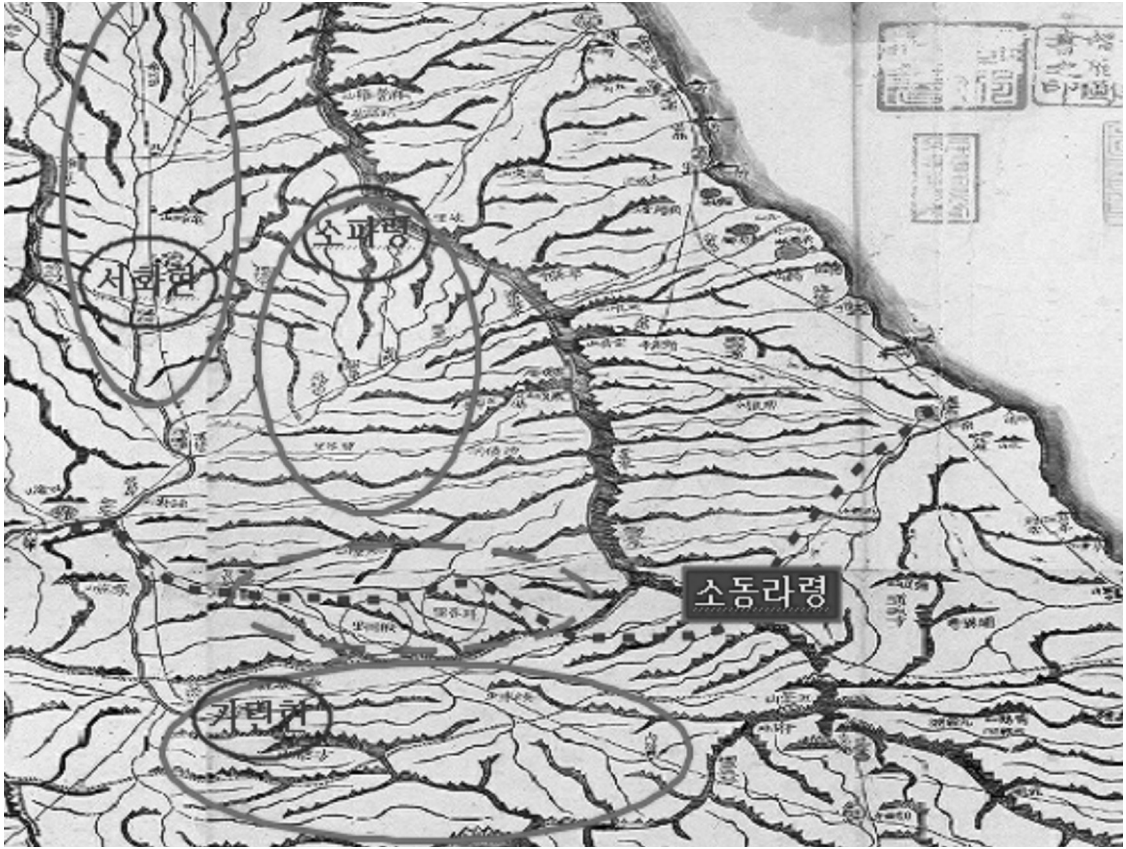
4. 하천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신증동국여지승람』인제현편 산천조와 『연려실기술』 별집16권 총지리, 다산정약용의 『산수심원기』 등에 보면 “미륵수가 하나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파령(所波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서화현(瑞和縣)에서 나오고, 하나는 기린현(基麟縣)에서 나온다.”⁹⁾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대의 대표적인 지도인 <지도 4>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보면, 인제로 흘러드는 수계는 금강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서화현’으로 나오는 수계, ‘소파령’ 일대에서 발원하여 원통으로 흐르는 설악산 수계, 오대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기린현’을 거쳐 나오는 수계, 그렇다면 나머지 한 수계는 점봉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귀둔지역을 경유하여 나오는 수계로 이 수계가 소동라령 수계일 수밖에 없는 바, 그렇다면 소동라령은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린현 진동리를 거쳐 곰배령과 귀둔, 하추리, 고사리, 합강정을 거치는 경로였음을 알 수 있다.

9) 輿覽云彌勒之水。一出所冬羅嶺。一出所波嶺。一出瑞和縣。一出基麟縣。

〈지도 4〉대동여지도



이는 1767년의『인제현 여지도』, 1776년『인제현 지승』지도, 〈지도 5〉1800년『인제현 광여도』등에서도 소동라령은 현재의 한계령이 아닌, 귀둔고관묘, 추동, 고사촌, 임선대, 합강정, 인제현으로 이어지는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5〉 광여도(1800년)古4709-58-인제현



뿐만 아니라, 양양지역의 하천기록을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44권 양양도호부편에 “남대천(南大川)은 부 남쪽 2리에 있는데 강릉부 오대산(五臺山)에서 나오며 소동라령(所冬羅嶺)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¹⁰⁾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양양남대천의 본류는 오대산이며 구룡령과 오색령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북암령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합류하여 내려오다 읍내에서 오대산 본류와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가므로 소동라령은 현재의 북암령을 경유해 기린현 진동리와 귀둔으로 이어지는 영로였을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1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 / 강원도(江原道)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南大川 在府南二里出江陵府五臺山 與所冬羅水合流經府南入海

5. 거리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지금까지 고지도와 각종 문헌을 확인한 결과 소동라령은 박달령(연수파)과 조침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고지도와 기록에서 양양부에서 소동라령까지의 거리를 60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에는 거리를 측량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잘못된 기록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양양도호부편에 “소동라령”을 “소동라령(所等羅嶺)”이라 표기하고 “소동라령은 요해처(要害處)로 양양부(府) 서쪽 인제경계로 36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¹¹⁾ 1923년 『양주읍지(현산지)』에는 “소동라령은 부에서 서쪽으로 30리”¹²⁾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지도서』와 『관동읍지』관애편에 오색령은 50리, 필여령은 40리, 조침령은 45리라고 한 점에 비추어 백두대간 능선의 지형으로 볼 때, 필여령과 조침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동라령은 당연히 양양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의 양양부에서 30리에서 36리가 맞는 기록일 수밖에 없다.

〈지도 6〉양양에서 백두대간 영까지의 거리



11) 要害自本府西去麟蹄境界所等羅嶺三十六里

12) 所冬羅嶺在府西三十里

6. 소동라령과 소어령, 북암령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기록들을 바탕으로 소동라령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유 금강산기』를 보면 “(낙산사에서) 20리쯤 가서 양양부(襄陽府) 앞의 냇가에 이르러 말을 쉬게 하였다. 또 10리를 가서 설악에 들어가 소어령(所於嶺) 아래 고개에 오르니, 냇물은 왼쪽에 있고 산봉우리는 오른쪽에 있다. 산기슭을 다 지나 냇물을 건너 왼쪽으로 가니, 산은 맑고 물은 빼어나며 흰 바위가 서로 포개진 것이 대략 금강산 대장동(大藏洞)과 같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오색역(五色驛)에 이르니 산의 달이 이미 흰빛이었다.”¹³⁾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양에서 오색으로 향하노라면 중간쯤 지점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고개가 있다. 일명 발딱고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한령(寒嶺)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마을이 송어리와 송천리이다. 이는 일본인들이 만든 지명으로 지금도 옛 지명인 소어(所於), 소래(所川)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 북암리(北庵, 北庵里)로 인제 진동리로 연결되는 대로의 옛 고갯길이 있다. 지금은 북암령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 고개의 옛 지명이 소어령, 소동라령이었다. 이는 박달령이 일본식 한자인 단목령(檀木嶺)으로 바뀌었듯이 북암령이라는 지명도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애미¹⁴⁾를 일본식 한자인 북암리로 고친 후, 영의 이름도 일본식 지명인 북암령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로인 옛길은 있는데 고지도에는 소동라령만 있을 뿐 소어령이나 북암령이라고 표기된 영이 없기 때문에 소동라령의 다른 이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 금강산기』의 남효온선생도 소어령 아래 고개를 지나 오색으로 갔다고 하고 있어 소동라령 아래 한(寒)고개나 망령(望靈)고개를 지나 오색으로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도 7>에서 보듯이 소동라령은 양양에서 남대천을 따라 올라오다 망령고개(望靈峙)나 한령을 넘고 소천이나 소어리를 거쳐 지금의 북암령을 넘어 기린현내 진동리와 곰배령을 거쳐 귀둔, 추동, 고사촌, 합강정을 경유해 인제로 연결되는 영로였다.

13) 至襄陽府前川上歇馬。又行十里入雪岳。陟所於嶺下峴。則川水在左。峯巒在右。過盡山麓。涉川流而左。山明水秀。白石交加。略如金剛山大藏洞。沿流而上。至五色驛。山月已白矣。是日。陸行三十里。山行四十里。

14)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7, p217

〈지도 7〉오늘날의 지도에 고지도를 연계시켜본 소동라령



7. 현지 실사를 통해서 본 소동라령

『신증동국여지승람』제45권 강원도(江原道) 간성군편에 보면 “미시과령(彌時坡嶺)은 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¹⁵⁾고 적고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부 산천조에도 “소동라령(所冬羅嶺)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¹⁶⁾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소동라령으로 추정되는 북암령을 실사한 결과 귀둔(耳屯, 耳呑)에서 진동리로 연결되는 곰배령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향으로 이미 옛길 탐방코스로 변해있었고 진동리 삼거리에서 북암령 정상까지는 고개가 완만하며 일부 도로는 유실되었으나 옛길의 도로폭도 2m정도로 우마차가 다녔을직한 대로였으며, 정상에는 위에 이정표를 세웠음직한 돌무지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6척(尺)을 1보

15) 『신증동국여지승람』제45권 강원도(江原道) 인제현
彌時坡嶺在郡西南十里許有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復開興路

16) 『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부 산천조
在府西六十里重巒疊嶂地勢險阻舊有路通京師今廢

(步), 360보를 1리(里), 30리를 1식(息)이라고 하고 10리마다 작은 표식을, 30리마다 큰 표식을 세우며, 30리마다 역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일정한 거리마다 돌무지를 쌓고, 장승을 세워 도로의 리수와 지명을 기록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였다.”고 한다.¹⁷⁾ 영 정상의 돌무지는 정상 주변에는 돌이 없고 돌의 규격도 고른 것으로 보아 일부러 돌을 옮겨 쌓은 것으로 보여 국가에서 관리하던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양에서의 거리가 30리였음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정상에서 북암리 방향은 급경사였고 계곡을 따라 길이 형성된 관계로 폭우로 많은 구간이 유실되어 있었으나 나라에서 영로를 폐지한 지 600여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구간에 도로의 형태가 남아있었고, 노퍽은 서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2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암령을 접어들기 위해서는 양양에서 한(寒)고개(발딱고개)나 망령고개까지 넘어야 했으므로 지세가 험한 궁벽지라는 기록을 실감하게 했고, 국가의 영로로서 비만 오면 유실되는 급경사인 소동라령을 관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동라령을 폐지하였음에도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조선말까지도 일반인들은 이 영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이나 하듯이 1911년 조선지리지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인제편 영치현명(嶺峙峴名)에 보면 곰뻔령(丁嶺, 곰배령)을 양양으로 통하는 영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행자들이 민가에서 자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던 원(院)이 조선후기에 들어가면서 그 기능이 쇠퇴하자 주막(店舍)이 그 역할을 떠 맞게 되었는데 길손들이 먹고 자던 주막이 진동리에 갈터주막, 삼거리주막, 귀둔리에 버덤말주막, 곰배골주막, 하추리에 가래올어주막, 당수터주막, 원대리에 안삼재주막 등 이 구간에 특별히 주막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얼마나 길손들의 많은 영로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Ⅲ. 옛 한계령의 위치

위에서 우리는 지금의 한계령이 소동라령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동라령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계령이 옛날의 한계령은 맞는 것일까?

조선시대에도 한계령이라는 지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옛 한계령의 위치를 찾아 바로 잡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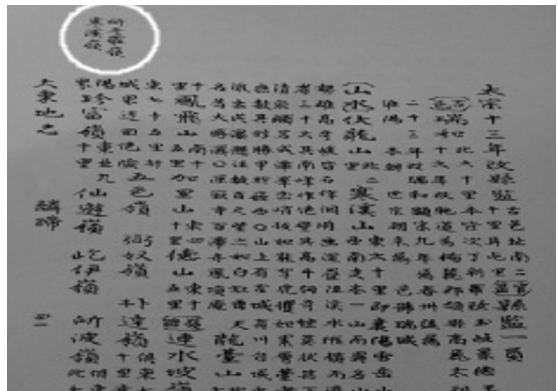
17) 『양양군지』 양양군, 발행일 2010, 11, 30, 163페이지 교통과 통신

1. 역사기록으로 본 한계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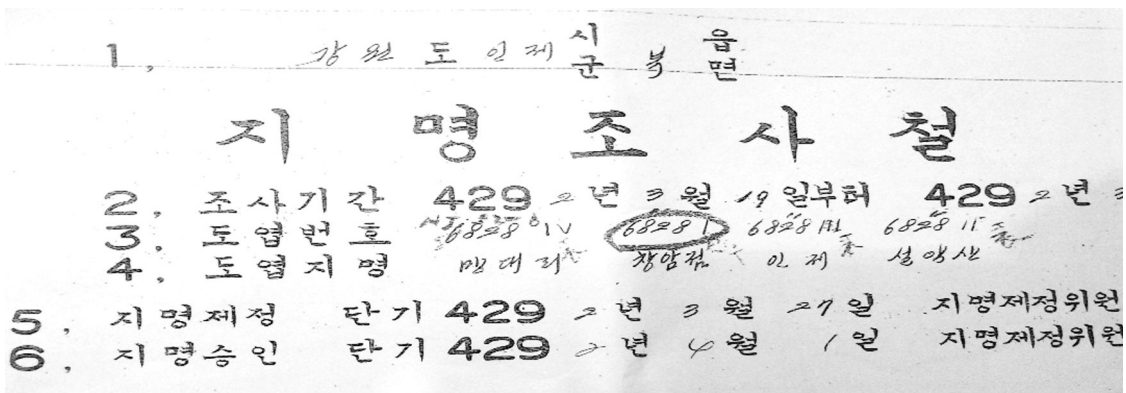
『대동지지』강원도 인제현 영로편에 “連水坡嶺東七十五里杆城界迂回絶險 五色嶺彌奴嶺朴達嶺俱東七十里襄陽界”라고 쓰고 상단 여백에 所冬羅嶺, 寒溪嶺”이라고 쓰여 있는 바, 『대동지지』의 전반적인 기록형태를 보면 쓰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상단에 추가로 기록하고 있어 당시에 오색령과 함께 한계령도 다른 곳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1959년(단기 4292년) 인제군 북면에서 작성 보고한 지명조사철¹⁸⁾을 보면 한계령을 “영

〈사진 2〉대동지지



〈사진 3〉지명조사철(인제군 북면)



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나즌 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 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이영이라고도 함”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현재의 한계령(오색령)은 옛 한계령이 아니며 옛 한계령은 한계지역에 있는 오색령 보다 낮은 영으로서 넓게는 오색령의 일부임을 알 수 있고, 일제가 만든 지도에는 오색령을 한계령이라고 적고 있음에도 인제지역에서는 해방 후인 1959년 당시에조차 현재의 한계령은 오색령으로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옛 한계령의 위치를 찾아보자.

한계령의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일 것이다. 그런데 고지도를 보면 양양에서 오색역을 거쳐 인제로 연결되던 대로인 오색령은 모든 지도에서 볼 수 있으나, 이용이 많지 않았던 한계령은 유일하게 동여도에서 볼 수 있다.

18)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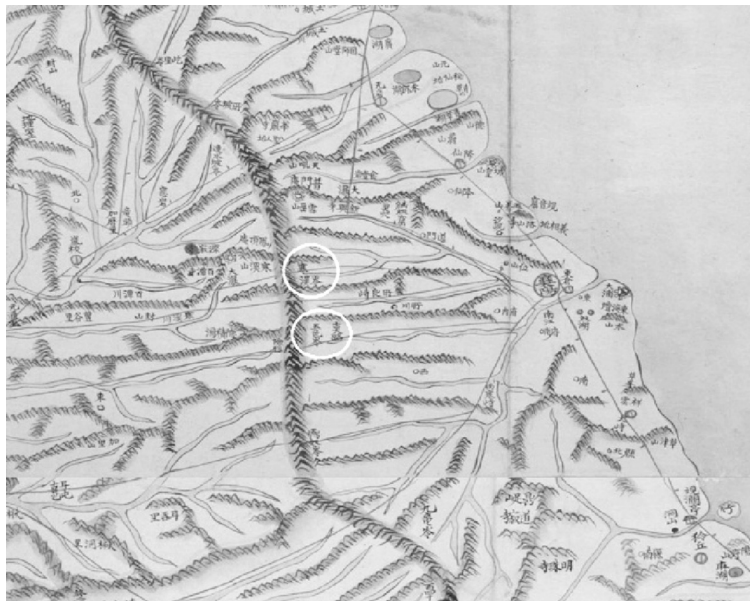
그런데 <지도 8> 동여도에도 오색령과 한계령은 다른 영로로 함께 기록되어있으며 오색령은 고대로(古大路)라고 표기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한계령은 오색령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담천을 거쳐 남교역과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교리에서 계곡을 타고 오르다 한계산(산성)의 정상인 안산과 귀때기청봉으로 이어지는 경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몽화의『유설악록』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몽화의『유설악록』을 보면 “대승령에 올라 돌아보니 어젯날 만경의 오세암, 남대의 영시암, 좌우

<지도 8> 동여도(1857년)



봉의 만경 모두 무릅 아래요, 봉정암이 앞을 가리고 있어 밟은 볼 수 없었다. 산허리 10리에 참으로 한계의 관폭대에 오르니 구천은하(九天銀河)라고 크게 네 글자가 새겨져있다. (생략) 관폭대 아래의 길은 아주 험준하여 갈수 없고 많은 돌들이 이빨처럼 쪼개져 겹나며 장차 갈라져 떨어질 것같이 그윽하게 세워져있어 혹 이런 꿈을 꾸지 않기를, 한계령을 향하다가 아름다운 수석을 만난 곳에서 가마를 세우고 쉬면서 개울물을 떠 마시고 물에 밥을 말아먹었다. 개울에 큰 바위와 바위의 좌우에 단풍이 비치므로 정차암이라고 칭하여 불렀다. 오색이라 하는 이 영을 넘으니 석봉의 기풍이 힘 있게 나열된 설악산의 한가지다. 여기에서 묵으니 오색촌이다.”¹⁹⁾ 라고 기록하고 있다.

19) 김몽화(金夢華) 『칠암문집(七巖文集)』(유설악록(遊雪嶽錄))

登大乘嶺回視日昨經過處五歲之萬景永矢之南臺晚頃之左右峯皆在膝下獨鳳頂爲前峯所遮而不可見下山腰十里寔爲寒溪登觀瀑臺有九天銀河四大字刻此政乾坤逞技『之處造化得意而成者也此之日所見十二瀑則細柳之眞將軍棘門灑上之兒戲必有能下之者矣臺下路絕險下臨無地間多石齒鑿鑿惴惴然如將隕墜班孟堅幽入之夢無或類此歟向寒溪嶺遇水石佳處舍輿息肩酌溪水澆飯而喫溪上有巨巖巖之左右丹楓映請名之日停車巖踰嶺是爲五色石峰峭拔羅列雪嶽之一支也止宿于五色村

여기에서 관폭대 아래의 길은 험준하여 갈수가 없다고 하고 있고, 한계령을 향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한계천(장수대, 한계사가 있던 곳)으로 내려와 오색령을 넘은 것이 아니라 대승령에서 능선을 따라 귀대기청봉으로 향하는 경로로 오색령을 넘어 오색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계령은 대승령에서 귀대기청봉, 오색령으로 연결되는 코스에 있다고 본다.

2. 한계령이 고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

한계령은 동여도 이외의 고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허목(許穆)은 『동유박물(東遊博物)』에서 “한계(寒溪)의 남쪽 봉우리는 절벽이 위험한데 그 맨 위는 몹시 높고, 그 아래는 더욱 깊다. 산석(山石)의 빼어난 정기는 높고 험하여 명상(名狀)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몽화는 『유설악록』에서 “관폭대에 오르니 구천은하(九天銀河)라고 쓰여 있다”고 했으며 정약용의 산수심원기를 보면 “한계산기(寒溪山記)에 이르기를 한계산은 높고 크며 기이하고 절승하여 영동(嶺東)의 으뜸이다. 산 위에 성(城)이 있고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성안으로부터 흘러나와 폭포를 이루어 그를 대승폭(大勝瀑)이라 하며 수백 길 높이에서 현류(懸流)하여 바라보면 마치 흰 무지개가 하늘에서 드리운 듯하다. 원통역(圓通驛) 동쪽으로부터 좌우가 모두 큰 산으로서 골짜기가 깊숙하고 시냇물이 중횡으로 흘러 돌다리를 건너는 곳이 서른여섯 굽이나 된다. 뾰뾰하게 들어선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 위로만 솟아 옆으로 뻗은 가지가 없으며 그 중에도 송백이 더욱 높아 그 끝을 볼 수 없다. 또 그 남쪽 봉우리의 절벽은 1천 길이나 깎아질러 그 기괴함을 형언할 수 없는 형세라, 나는 새도 능히 건널 수 없으며 행인들은 곧 바위덩이가 떨어져 눌릴 듯한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그 밑에는 험한 암석으로 못을 이루었는데 사람이 앉을 만한 반석도 있다. 또 동쪽 몇 리 길은 동구(洞口)가 몹시 협착하고 좁은 길은 벼랑을 끼고 돌아가는데, 암석은 입을 벌린 듯 함하(哈呀)하고 산봉우리는 뾰족뾰족 뺨어나 마치 용이 후려치고 호랑이가 덮치듯 누누이 층대를 이룬 것이 무수하다. 그 수맥은 모두 곡담(曲潭)·한계(寒溪)의 근원이다.”고 하였듯이²⁰⁾ 이 도로는 안산(한계산성)에서 대승폭포, 귀대기청봉, 소승폭포로 이어지는 기암 절경지로서 예로부터 풍류객들이 즐겨 찾던 이 구간에 있었던 영이 한계령으로 일반인들은 길이 험하여 주로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고지도에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0) 다산시문집)다산시문집 제22권)잡평(雜評)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

寒溪山記云寒溪山高奇峻。甲於嶺東。山上有城。有水自城中流出。卽成瀑布。名大勝瀑。懸流數百丈。望之如白虹垂天。自圓通驛而東。左右皆大山。洞府深邃。溪水縱橫。石涉者三十六曲。樹木如篋。上竦雲霄。旁無橫枝。松柏尤高。不見其巔。又其南峯絕壁。高可千仞。奇怪莫狀。禽鳥不能飛度。行人疑遭壓墜。其下觸巖成潭。盤石可坐。又東數里。洞口甚狹。細徑緣厓。窵穴哈呀。峰巒峭拔。如龍拏虎攫。爲累層臺者無數。其水脈皆曲潭寒溪之源也

IV. 한계령이 오색령인 근거들

1. 한계령의 옛 지명은 소솔령

우리는 소동라령이나 한계령은 지금의 한계령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계령인 옛 지명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589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팔곡집(八谷集)』에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寒溪寺 : 장수대 인근의 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 . . .”²¹⁾라고 적고 있다. 또한, 추강 남효온(秋江南孝溫, 1454~1492년)의『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²²⁾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오색에서 장수대(한계사)를 지나 인제를 통하는 지금 한계령의 옛 이름은 소솔령이었다.

2. 소솔령이 오색령인 근거

문헌에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 72(宣祖實錄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戊戌)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寧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嶺東)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과(彌水坡)·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嶺)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²³⁾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토록 이용이 많았던 소솔령(所率嶺)이라는 고개명은 이때부터 모든 기록과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는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복잡한 고개명칭(소파령, 소솔령, 소어령, 소동라령 등)의 혼돈으로부터 오색역을 지나는 영로라는 지명을 통해 고개의 위치를 쉽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팔곡집(八谷集)』 한계산(寒溪山) / 시(詩) / 주석(註釋)

古寺 卽寒溪寺 自襄陽所率嶺 抵麟蹄舊路 經由寺下往來人 必投宿于寺 寺僧不堪迎接之苦 不肯居住 遂致空廢 今則頽圯已久 只有舊基 礧礎宛然 曾是巨刹也

22)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추강 남효온(秋江南孝溫)

乙未。發五色驛。度所率嶺。雪岳亂嶂。無慮數十餘。峯皆頭白。溪邊石木亦白。俗號小金剛山。非虛語矣。...余於嶺上辭東海...自元通履平地...宿麟蹄縣。

23) 備邊司【去正月三十日, 備忘記回啓也】啓曰: ……賊兵由慶尙道寧海, 沿海以北, 則平海蔚珍, 當先受敵。此處若失, 而賊兵深入於嶺東, 則楸池嶺, 彌水坡, 五色嶺, 白鳳嶺等處, 皆爲踰嶺之路, 不可不備也。……

이는 김수증(金壽增)의 『한계산기(寒溪山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91년(辛未) 5월 9일(甲午)의 기문(記文) 중에 “한계사(寒溪寺) 옛터를 지나니 북쪽편의 모든 산봉우리들은 곧게 솟아 있고, 나무들이 무성하여(생략) 개울가 돌 위에서 점심을 먹고서,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곧 대답하기를 오색령(五色嶺)을 경유하여 양양(襄陽)으로 가는데 거리는 약 80리가 된다.”²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우리는 양양에서 오색을 거쳐 한계사 터를 지나 인제로 가는 영이 소슬령임을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그런데 한계사 옛터를 지나면서 지나는 스님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 오색령을 거쳐 양양으로 간다고 하고 있다. 이로서 소슬령이 오색령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와 이세구(養窩 李世龜)의 『양와집(養窩集)』에 1691년(辛未) 10월 3일(甲申) 동유록(東遊錄)에도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고 그 동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麟蹄)이며 오색령 북쪽에 미시파령을 이룬다.”라고 적고 있으며²⁵⁾ 식산 이만부(息山 李滿敷)의 『금강산총기』 서두에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백두산(白頭山)의 낙맥(落脈)이 남으로 흘러 철령에 이르며 남북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동으로 흘러서 추지령·쇄령·온정령 등 세 고개가 팔백리를 관통하며, 온정령에서 남쪽으로 삼십리 지점이 금강산이다. 금강산은 동해 바다를 따라 백리를 내려가 진보령이 되며 진보령에서 오십리를 더 가면 석파령, 그곳에서 삼십리를 더 가면 미치령, 다시 육십리를 가면 한계산이 되고, 다시 삼십리를 가면 오색령에 이르며, 이곳에서 구십리를 가면, 오대산에 이르고, 삼십리 거리에 대관령이 되고, 사십리 거리에 백복령이 되고, 백리 거리에 태백산과 황지가 된다. 이것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그 위 아래의 형승이 막히고 험준한 모습의 대략이다.”²⁶⁾라고 적고 있다.

『증보문헌비고』 양양 산천편(襄陽山川編)에 “양양 오색령은 서쪽 50 리에 있다. 산의 총설에 나타나 있다. 영로(嶺路) 오색령은 양양영로로 필여령과 함께 서로이며,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로, 형제현, 양한치 모두 서쪽로이다. 인제 영로(麟蹄嶺路)는 미시령·흘이령·탄둔령·두모치·건리치·오색령·서파령·가노치·진보령이다.”²⁷⁾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앞에서 본 고지도들에서도 소슬령과 오색령이 함께 표기된 지도는 없으면서도 모든 고지도에서 소슬령이 사라지고 오색령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계사에 투숙객이 많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절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았던

24) 考亡何歷寒溪寺舊基。北面諸峯矗立森羅。(생략) 至溪邊石上飯。逢過去僧。問其何向。則曰由五色嶺至襄陽。蓋此距海路八十里云。

25) 曹姑之北爲五色嶺。其東則襄陽。西則麟蹄。五色之北爲彌時坡嶺。

26) 大抵我東之山 起自白頭 白頭之脉 南流至鐵嶺 限南北界 東迤爲楸池 鎮 溫定三大嶺 通八百里 溫定南三十里 爲金剛 金剛東遵海 百里爲眞寶嶺 五十里爲石坡嶺 三十里爲 彌時嶺 六十里爲寒溪山 三十里爲五色嶺 九十里爲五臺山 三十里爲大關嶺 四十里爲百複嶺 百里爲太白·黃池。此其上下形勝阻阨大體也。

27) 『增補文獻備考』卷二十八

襄陽 五色嶺在西五十里右諸山見總說 嶺路五色嶺見襄陽嶺路 弼如嶺並西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江陵路 兄弟峴 兩寒峙並西路 麟蹄嶺路 味施嶺……吃伊嶺 炭屯嶺……頭毛峙……建里峙……五色嶺 見襄陽嶺路 西坡嶺並東路 加奴峙南路 眞寶嶺北路

소슬령 지명이 모든 지도에서 사라졌다면, 문헌상에 필여령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지도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오색령이 과거의 소슬령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오색령은 당시에 양양과 인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로로 지금의 한계령임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고지도, 각종 문헌 등을 확인한 결과 과거의 소동라령, 오색령, 한계령은 일부의 주장과 달리 모두 서로 다른 영들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동라령은 고지도, 고문헌, 경계기록, 하천수계, 양양부에서의 거리기록, 현지답사 등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오색령이 아니라, 필여령 남쪽 가지에 위치한 춘천 기린계로 연결되는 영으로, 양양에서 한령이나 망령고개를 넘은 후 소어리나 소래를 거쳐 지금의 북암령(일명 소어령)과 춘천 기린계였던 진동리, 곰배령(곰배고개), 귀둔, 추동, 고사리, 합강정, 인제로 이어지는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옛 한계령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되지 않던 고개인 관계로 동여도에만 설악산과 오색령 사이의 백담수를 거쳐 남전역으로 연결되는 고개로 표시되어 있어, 김몽화의 유 설악록과 연결시켜 볼 때, 남교리에서 한계산성(안산), 대승폭포, 귀때기청봉을 지나는 능선을 통해 오색으로 이어지는 고개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한계령(오색령)은 과거 소슬령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양과 인제를 잇는 주도로로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그 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슷한 영의 이름(소파령, 소어령, 소동라령 등)이 가져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오색역을 지나는 영인 소슬령을 오색령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는 모든 고 자료에 소슬령이 사라지고 오색령이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는 좋던 나쁜던 간에 사실대로 남겨 후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분명한 역사기록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 이를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할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후손에 물려주는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관동읍지』

『관동지』

『대동지지』

『동국여지지』

『만기요람』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군읍지』

『양주읍지』

『선조실록』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김몽화, 『유 설악록』

남효은, 『유 금강산기』

구사맹, 『팔곡집』

안경석, 『삼교집』

이만부, 『금강산총기』

이만부, 『지행록』

정약용, 『산수심원기』

허목, 『동유박물』

허목, 『삼척기행』

신종원,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경인문화사, 200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양양군, 『양양군지』 2009

인제군, 『지명조사철』 1959

2012

문화학교 소개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합 계	8 명	102명
한 시 교 실	이 종 우	김경일의 12명
서예교실(한문)	함 연 호	손인환외 17명
서예교실(한글)	김 광 희	심용구의 15명
한국화교실	정 영 택	박희숙외 9명
민 요 교 실	이 희 선	김봉신외 9명
기 타 교 실(초급)	강 명 근	권옥수의 12명
기 타 교 실(중급)	강 명 근	안경옥외 2명
사물놀이교실(초급)	임 효 건	이순옥외 6명
사물놀이교실(중급)	임 희 영	손영애외 11명

모범상 수상자

교 실 명	성 명
한 시 교 실	김 형 래
서예교실(한문)	박 옥 화
서예교실(한글)	장 우 인
한국화교실	박 희 숙
민 요 교 실	김 은 단
기 타 교 실(초급)	권 옥 수
기 타 교 실(중급)	안 경 옥
사물놀이교실(초급)	길 광 수
사물놀이교실(중급)	이 매 자



2012 문화학교 학생 수상 및 공연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내역
한글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님의침묵 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김영순 - 특 선 : 박경숙, 이희숙, 이용우, 노복현(초대작가 자격 획득) - 우수상 : 심용구 - 초대작가전 출품 : 장우인 ● 강원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이희숙, 이용우, 김영복 - 특 선 : 박경숙, 김영순, 심용구 - 특별상 : 장우인(추천작가 자격 획득) ● 대한민국 운곡서예문인화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남춘란, 김영복 - 특 선 : 박경숙, 김영순, 이용우, 심용구 - 삼체상 : 이희숙 - 특우수상 : 장우인 - 최우수상 : 노복현(초대작가 자격 획득) ● 대한민국 강릉단오서화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작가전 출품 : 장우인 - 특 선 : 김영순, 김영복, 이용우, 심용구, 노복현 <li style="padding-left: 40px;">전명자(추천작가 자격획득) ●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이용우, 심용구 ● 해풍연묵우리글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 품 : 남춘란, 박복수
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조 과거 재현 한시백일장(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과급제 : 황재권 ● 전국한시현장백일장(한시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작 : 김경일 - 장려상 : 이종우, 김구래, 김주호, 안병대

강좌명	수상 & 공연내역
한문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침묵 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신동우, 손인환 - 특 선 : 김형래 ● 대한민국 단오서화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선 : 김경일 ● 대한민국 서화대상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작가 : 김형래, 손인환 ● 동아국제미술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상 특선 : 윤정희 ● 대한민국 운곡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선 : 손인환 ● 강원미술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손인환
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 민요 경창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상 : 김봉신외 9명 ● 제34회 현산문화제 공연 ● 2012 연어축제 공연 ● 기로연 공연 ● 디모테오꿈마을요양원 봉사공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회 현산문화제 공연
사물놀이 (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무식 공연 ● 시장공연 3회 ● 갈천나물축제공연 ● 제34회 현산문화제 공연 ● 영월 사물공연대회 ● 장애인 행사공연 ● 송이축제행사공연 ● 서면체육대회 공연 ● 기로연 공연(향교)

건강상식



▶ 몸에 좋은 음식 궁합

콩&미역

콩에는 사모닌이 함유되어 항암효과가 있으나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 체내에 있는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리게 됩니다.

이런때에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미역 또는 다시마를 먹어주어 요오드의 균형을 맞추는것이 좋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게 될 경우 갑상선호르몬 분비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콩과 미역은 몸에 좋은 음식궁합으로 좋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돼지고기 & 새우젓

새우젓에는 지방분해효소인 리파아제가 들어가 있어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므로 아주 환상적인 음식궁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새우젓이 발효되며 단백질 분해효소인 프로테아제 성분이 많이 분비되므로 돼지고기와 함께 먹는것을 권장해 드리는 이유중 하나랍니다

된장 & 부추

된장은 함암효과가 뛰어난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죠!!

하지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런때에 부추와 함께 먹게될 경우 부추에 함유된 칼륨이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도록 도와주며 된장에 없는 비타민A와 비타민C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멸치 & 풋고추

풋고추에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칼슘의 대표식품 멸치에는 칼슘과 더불어 칼슘의 흡수를 막는 인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을 경우 칼슘의 섭취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풋고추를 기름에 볶을 경우 함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카로틴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쇠고기 & 깻잎

단백질이 주 성분인 쇠고기에 철분, 비타민 A/C가 풍부한 깻잎과 함께 먹을 경우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쇠고기를 참기름에 찍어 먹을 경우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남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호박 & 계란

계란의 단백질이 체내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호박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네요.

계란의 칼슘성분을 호박의 섬유소와 함께 섭취하게 될 경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신체적 긴장감도 풀 수 있습니다.

소주 & 오이

술을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 칼륨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에 오이는 칼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때문에 술을 마심으로써 빠져나가는 칼륨들을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주의 강한 자극을 낮춰주며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답니다.

이 외에도 음식궁합으로 안맞는 것들로는 팔죽에 설탕을 넣어 먹는 단팔죽은 영양섭취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단팔죽에 넣는 백설탕이 팔의 사포닌 성분을 파괴하므로 팔죽에 경우 소금 간을 하여 달달한 맛을 내

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이와 무를 함께 먹게 될 경우 오이의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성분인 아스코르비나제가 함유되어 있어 무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맥주와 콩을 함께 먹을 경우 배탈이 날 수 있으며

우유와 초콜릿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유발하게 하고, 햄버거와 콜라는 영양소를 대량 배출한다는 사실 몸에 좋은 건강상식, 음식궁합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알고 먹어야 몸에 좋은 음식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몸에 좋은 한방차

구기자차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간장을 보호해 준다.

만들기 구기자 잎이나 열매에 물을 넣어 끓인다.

오미자차

과로로 인한 기억력 감퇴, 시력감퇴 개선에 효과적이다.

만들기 씻어서 물기를 뺀 오미자를 물에 담고, 끓여서 식힌 물 2컵을 부어 하루동안 둔다.
오미자 물이 우러나면 체에 걸러 물을 받아내고 여기에다 8배의 물을 부어 희석시킨다.

황기차

만성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이고 장기 속의 좋지 않은 피를 몰아낸다.

만들기 황기 20g을 300ml 물에 넣고, 물이 반이 될 때 까지 끓인 후 마신다.(하루분량)

영지차

기관지를 튼튼하게 한다.

만들기 영지를 그릇에 담고 물을 잠길 만큼 부어 24시간 정도 우려낸다. 입맛에 맞춰 희석해서 마신다.

침차

설사를 낮게 하고 갈증을 완화시켜 준다. 그리고 중년 이후의 어깨 결림에도 효과적이다.

만들기 깨끗이 씻어 말린 칙뿌리를 절대로 찢어서 분쇄기로 간다. 뜨거운 물 1컵에 칙뿌리 가루 1큰술을 넣어 우려내서 마신다.

지황차

간을 보호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만들기 지황을 알코올 30도정도 되는 술에 적셔서 찢 다음 물을 붓고 차로 끓여 마신다.

▶ 스트레칭의 효과와 주의사항

스트레칭은 몸을 곧게 쭉 펴서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부상방지과 체력단련 및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의 목적 중 하나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범위를 넓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꼽을 수 있으며, 스트레칭은 근육과 건에 탄력을 주고,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시키고, 활성화 되지 않은 인체를 활성화 시켜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무리 없이 전환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거나, 집안일, 자동차 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필요한 운동입니다.

유연성 향상을 비롯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스트레칭도 강도가 점점 높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준비운동이나 마무리운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연성 향상이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1주일에 3~4번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준비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칭 전에 준비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운동은 땀이 약간 나올 정도의 체온이 상승되는 운동을 말합니다. 가벼운 걷기나 제자리 뛰기 등을 통해 체온을 높인 뒤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근육의 신장에 의한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효과

-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육체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 근육과 관절의 부상을 예방합니다.
- 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합니다.

부위별 주의사항

- 몸: 상체를 스트레칭 할 때 상체의 통증은 물론, 하지가 저리거나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등이 드는 감각 변화가 생기면 그 이상 스트레칭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팔: 어깨의 근육들을 스트레칭 할 때 어깨와 견갑골이 들려 있다거나 해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스트레칭 힘이 견갑근육으로 분산되어 의도하는 부위의 스트레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팔꿈치의 스트레칭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번갈아 실시해야 합니다.
- 하체: 고관절의 근육들은 골반과 요추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 주위 근육을 스트레칭 할 때 골반을 고정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부위에 불필요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양의 오토캠핑장과 트레킹



갈천솔밭가족캠핑장

갈천 솔밭 가족캠핑장에서는 솔숲으로 이뤄진 3만9600㎡의 캠핑장 어디든 텐트를 치면 그곳이 사이트가 된다. 일정 간격을 두고 번호표가 붙어있지만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도심을 벗어나 찾아든 자연 속에서 내 땅, 네 땅 따지며 야박하게 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캠핑장 옆으로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갈천계곡도 멋스럽다. 유리처럼 투명한 계곡물은 발을 담그기가 미안할 정도로 맑다. 게다가 물살이 부드러워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피서지로도 손색이 없다. 계곡 종류에는 아이들을 위한 풀도 마련돼 있다. 운영주가 직접 돌을 쌓아 만든 이곳에선 여름철 내내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날것의 느낌이 강한 캠핑장이지만 캠핑을 즐기기에 시설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다. 우선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캠핑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전기 사용할 일이 많다. 이는 비단 겨울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 여부는 캠퍼들에게 있어 캠핑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갈천솔밭 가족캠핑장은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할만하다. 캠핑장 곳곳에 전기 콘센트를 설치해 손쉽게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도록 해놓았을 뿐 아니라, 하루든 이틀이든 원하는 만큼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캠핑장 구석구석에 마련해 놓은 전기 콘센트만도 무려 5곳에 이른다. 다만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는 릴선은 각자 준비해야 한다. 갈천솔밭가족캠핑장의 모든 편의시설에서는 이처럼 캠퍼들의 동선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개수대는 큰 규모의 시설보다는 작은 규모의 것을 5곳으로 나누어 배치했고, 화장실과 샤워장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2곳으로 나누어 설치해 놓았다.

이용안내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 70번지

전 화 033-673-0887

홈페이지

<http://cafe.daum.net/galchunauto>

부대시설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콘센트

이용기간 연중무휴

이 용 료 1박2일 2만원



갈천솔밭가족캠핑장



양양오토캠핑장

이용안내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산1-5
전 화	010-9468-0630 033-672-3702
홈페이지	http://www.camping.kr
부대시설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콘센트
이용기간	연중무휴
이 용 료	1박2일 2만원 (성수기 3~4만원)

양양오토캠핑장은 솔숲이 무척이나 매력적인 캠핑장이다. 진입로부터 길게 이어진 솔숲은 도열하듯 그렇게 캠핑장을 감싸고 있다. 덕분에 어디에 사이트를 구축하든 향긋한 솔 향을 맡으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여유로운 공간도 양양오토캠핑장의 자랑. 6만 6000㎡에 이르는 캠핑장에는 600동의 텐트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를 이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안락한 캠핑을 위한 식수대와 화장실 그리고 온수 이용이 가능한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서도 부족함을 찾아볼 수 없다. 대여용 텐트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양양오토캠핑장에는 30여동에 이르는 대여용 텐트가 마련돼 있어 취사도구와 침낭 등 간단한 장비만 준비하면 언제든지 편안히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양양오토캠핑장



흘림골 트래킹

흘림골은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다. 숲과 계곡이 깊어 골짜기에 들어서면 마치 날씨가 흐린 듯 보인다 하여 붙여진 흘림골은 태고적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자연이 깃든 곳이었다. 흘림골은 1985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가 지난 2004년 20년 만에 자연휴식년제에서 해제되어 왕성한 자연의 비경을 선사하고 있다.

흘림골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오색령 정상에 있는 휴게소에서 양양방면으로 3.4km 떨어진 흘림골공원 지킴터를 출발해 여심폭포와 등선대에 이르는 길은 1.2km로 길지 않지만, 가파른 오르막이 많은 길이다. 30분 정도 오르다 보면 등선대 0.6km 남았다는 표지판을 만난다. 벌써 반이나 왔나 싶어 기쁜 마음이 먼저 앞선다. 표지판을 뒤로 하고 오르다 보면 길게 이어진 나무테크가 작은 계곡을 가로지른다. 작은 계곡 안쪽에는 높이 20m의 여심폭포가 있다.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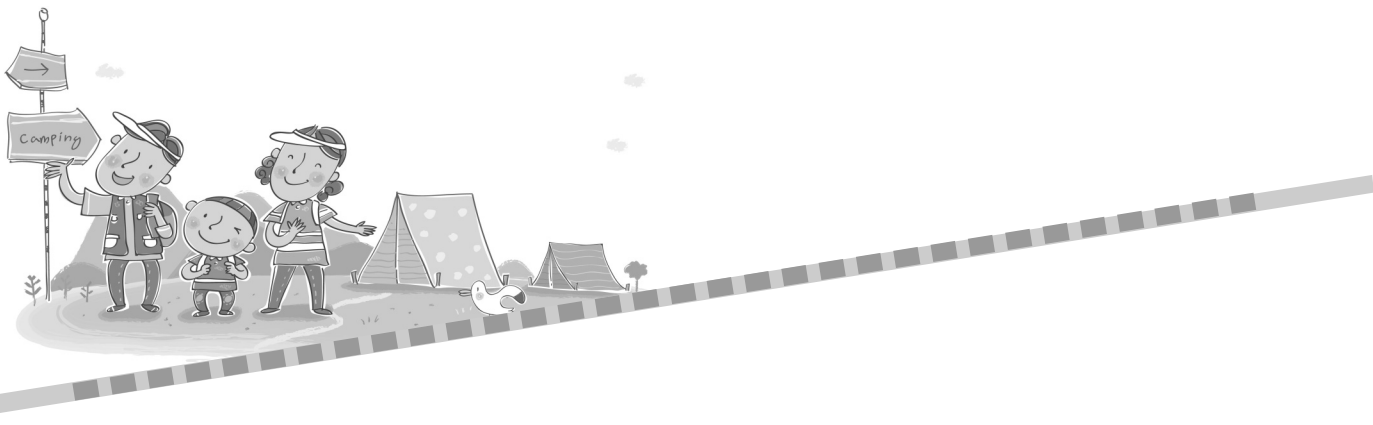
흘림골 트래킹 코스안내

흘림골공원 지킴터→여심폭포
(0.9km) → 등선대(0.3km) →
흘림골공원 지킴터(1.2km)
총 2.4km

흘림골 지킴터 이용안내

주차료와 입장료가 따로 없다.
주차는 도로에 인접한 이면도로
에 주차해야 한다.





여심폭포의 전경

쳐다보고 있자니 민망함이 밀려든다. 1970~80년대 여심폭포는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단골명소였다. 여심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심폭포에서 등선대까지는 가파른 경사가 이어진다. 0.3km 정도 밖에 안되는 짧은 길이지만 오르기가 만만치 않다.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숨이 거칠게 차오르지만, 숲 사이로 보이는 칠형제봉의 절경이 거친 숨을 잦아들게 한다. 칠형제봉의 우람한 암봉이 눈높이를 맞출 정도에 이르면 등선대 입구에 이른다. 10분 정도 오르면 등선대 정상이다. 등선대는 신선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여 붙여졌다. 등선대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남설악의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기암괴석들이 사방에 펼쳐져만 가지 모습으로 보인다하여 만물상이라고 하는데 등선대는 만물상의 중심이자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한 눈에 굽어볼 수 있는 포인트다. 울망줄망해 보이는 칠형제봉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듯 정겹게 둘러 앉아 있고 뒤편으로는 안산, 귀매기청봉, 끝청, 대청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서북주능이 완만하게 이어져 있다. 바람이 구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구름은 만물상의 절경을 가리며 심술을 부린다. 등선대에 올라 사방을 굽어보면 하늘을 오르는 신선이 부럽지 않다. 내가 곧 신선이 된다.





주전골 트래킹

주전골은 남설악에서 가장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계곡으로 가을 단풍이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주전골은 승려를 위장한 도둑이 위조엽전을 만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용소폭포 주변 시루떡바위가 마치 엽전을 쌓아놓은 것 같다 하여 붙여졌다고도 한다. 주전골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오색약수다. 주전골에서 흘러내리는 오색천 주변의 너럭바위에서 샘솟는 오색약수는 줄서서 마셔야 할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색약수는 500여 년전 조선시대 때 성국사(현 오색석사) 승려가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약수에는 철분과 탄산 성분이 많아 위장병과 신경통, 빈혈 등에 효과가 크고 실제로 음주 후 오색약수를 마시면 속이 시원하게 풀릴 정도로 효험이 있다고 한다.

오색약수를 지나 출렁다리를 건너면 본격적인 주전골 트래킹이 시작된다. 오색천을 따라 오붓한 숲길이 이어진다. 탐방로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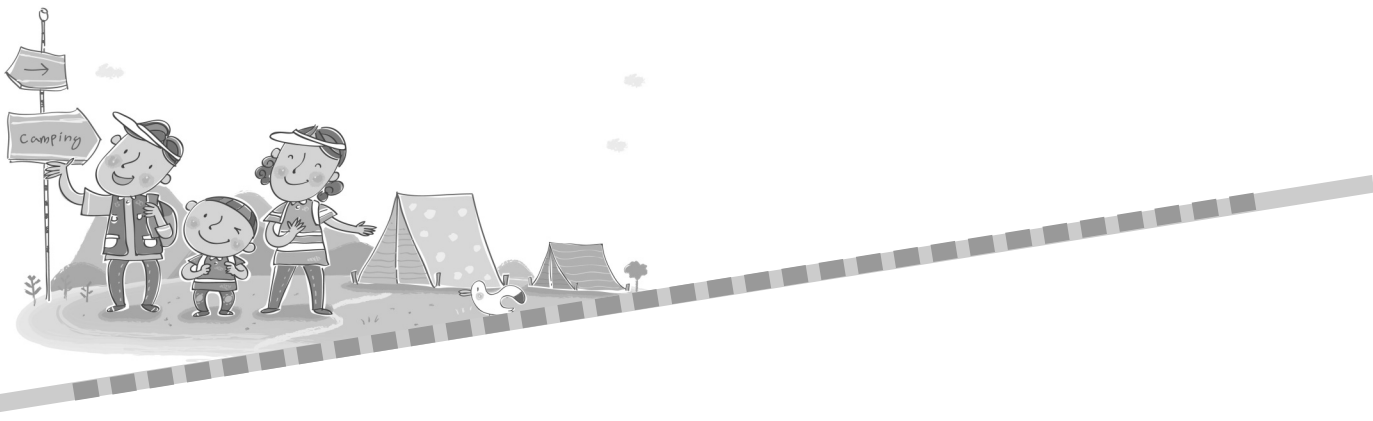


주전골 트래킹 코스안내

주전골 탐방지원센터→오색석사(0.8km)→용소삼거리(1.9km)→용소폭포(0.2km)→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0.3km) 총 3.2km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주차료 이용안내

비수기(경차 2,000원, 소형 4,000원, 중형 4,500원, 대형 6,000원)와 성수기(경차 2,000원, 소형 5,000원, 중형 5,500원, 대형 7,000원)에 따라 주차료를 받는다. 입장료는 따로 없다.



옆으로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계곡수가 힘차게 흘러내리고, 계곡 안쪽으로 들어설수록 주전골에 늘어선 암봉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민다.

계곡과 어우러진 숲길을 따라 1km 못미처 성국사를 만난다. 성국사는 옛 오색석사 터에 새로 지은 사찰이다. 사찰 후원에 다섯 가지 색의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 오색석사라 불리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옛 사찰의 느낌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경내에 남아 있는 보물 제497호로 지정된 삼층석탑과 허물어진 석탑 부재만이 옛 시절을 떠안고 있다.

성국사를 나서면 독주암, 선녀탕, 금강문에 이르기까지 주전골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풍경이 이어진다. 깊은 계곡을 따라 걷기도 하고, 계곡을 가로질러 다리를 건너기도 한다. 하늘로 우뚝 솟은 암벽이 걸음걸음마다 새롭게 이어지고, 계곡수는 바위와 긴 암반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흐른다. 우뚝 솟은 독주암과 옥빛의 물빛을 간직한 선녀탕의 비경에 흠뻑 젖어 발걸음도 더더진다. 주전골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길 수 있다하여 붙여진 금강문을 지나면 어느덧 흘림골과 용소폭포로 가는 갈림길이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300m쯤이면 용소폭포를 만난다.



오색약수



자연이 살아 있는 청정 트래킹 코스, 달래길



시루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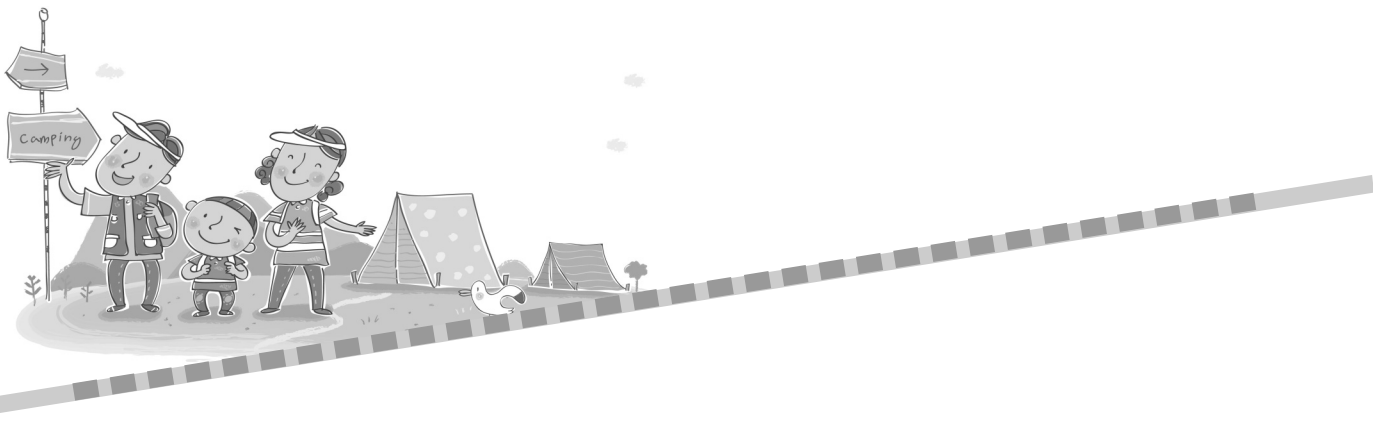
삼형제봉

송이와 연어의 고장 강원도 양양군에 또 하나의 명물로 떠오르는 곳은 바로 달래촌의 달래길이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달래길'이라는 이름을 달고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달래촌에 80km의 트래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달래길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계곡, 우거진 숲의 생태관찰 코스와 설악산 삼형제봉으로 이어지는 자연 속 트래킹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달래길은 달래촌 화동(꽃골)에서 시작해 설악산 삼형제봉으로 바로 가는 코스를 비롯해 시루봉 등 산로와 해맞이길, 맨발 걷기길, 만보길, 느르리길, 산소길, 숲치유길, 자연생태길, 사색길, 숲탐방로 도전길, 달래촌 둘레길 등 13개 길을 경유하는 80km의 트래킹 코스. 현재 2개 코스를 제외한 11개 주요 트래킹 코스에 대한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있고, 차후 약 200km까지 달래길을 확장할 계획이다.

달래길의 시작점인 달래촌 입구에는 달래길 코스에 대해 알려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코스별 거리와 시간이 꼼꼼히 정리돼 있어 여행자에게 더없이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한데 이곳에 서면 기분 좋은 걱정을 하게 된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13개 코스 중 어느 길을 따라 걷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달래길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달래길은 코스마다 거리와 난이도가 제각각이다. 40km에 달하는 달래둘레길이 있는가 하면 산악인들 사이에서 명품 산행 코스로 알려져 있는 삼형제봉(618m) 코스도 있고, 마을길을 가로지르는 만



보길도 있다.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취향과 체력을 고려해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골라가는 재미가 있다는 얘기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트레킹이라면 1~2km 내외로 조성된 숲탐방로나 느르리길, 해맞이길 등이 좋아 보인다. 물론 이들 코스는 중간중간 다른 코스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 둘레길을 제외한 달래길 전체코스를 섭렵해보는 것도 괜찮다.

달래길의 대표주자라면 삼형제봉과 시루봉 코스를 꼽을 만하다. 삼형제봉까지는 5km, 시루봉까지는 2km 남짓이지만 코스의 난이도로 본다면 시루봉 코스가 조금 더 힘들다. 특히 삼형제봉에 올라 바라보는 동해의 모습은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을 정도로 멋스럽다.

Travel tip

남해항에서는 선상낚시, 창경발아전통어업, 문어통발어업 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다.

(남해마을 033-672-3624, 홈페이지/nameae.seartour.org)

달래마을은 2010년 10월 1일 국내 최초로 '아토피 없는 마을'로 선포됐다. 산에 오르면 쪽빛 동해 바다가 보이고, 마을 중심으로는 오염원이 전혀 없는 화상천이 흐르며, 동해고속도로 현남톨게이트로 나와 자동차로 10분이면 우리나라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꼽히는 남해항에 갈 수 있다.

임천리(林泉里)의 철수혈(鐵穴)

영동지방에는 양강지풍(襄江之風)이요, 통고지설(通高之雪)이라는 말이 있다.

양양과 강릉은 바람이 세차고 통천과 고성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이다. 어느 때엔가 양양부사가 부임해 보니 어찌나 바람이 심한지 농작물이 제대로 크지 못할뿐더러 설사 결실은 했다 하더라도 바람에 다 떨어져 버려 농민은 1년 내 농사를 짓고도 굶어야 할 형편이었다. 새로 부임한 부사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 고을 사람을 잘 살게 하자면 바람을 막을 수밖에 없으니 강풍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아야겠다고 정사에 앞서 바람의 근원을 찾으려 나섰다. 사또가 바람결을 거슬러 따라 올라가 보니 바람이 이곳에서 생겨나는 것 같은데 어디인지 그 장소를 알 수 없다. 이리 저리 찾다보니 석성(石城)이 있고 그 성내에 10여 개의 혈(穴)이 있었다. 귀를 기우리고 자세히 들어보니 이 혈(穴)마다 안에서 바람이 나오는 소리가 나기에 바람의 진원처가 바로 여기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안 사또는 동민을 동원시켜 큰 바윗돌을 가져다가 10개의 혈을 다 막아 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양양에는 큰 바람이 불지 아니 할 것이며 농사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다. 사또가 돌아오는 동안에는 바람이 잠잠하더니 부중(府中)에 돌아와 동헌(東軒)에 올라서니 전에 일찍이 겪지 못했던 큰 바람이 또 불기 시작했다. 혈의 당처에 바윗돌로 막아 이제 바람이 안불 터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또는 사람을 시켜 그곳에 가보라고 했더니 갔다 온 사람이 말하기를 “굴을 막았던 돌은 다 넘어지고 혈은 옛 모습대로 이었습니다.”하고 보고하기에 사또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관원과 동민을 데리고 다시 그 굴에 가서 이번에는 혈을 막지 아니하고 제물(祭物)을 차려 혈마다 제사를 지냈다. 그 뒤로부터 바람이 잦다 한다. 이에 유래하여 양양에서는 큰바람이 불기만 하면 이곳 철수혈에 와서 제를 올렸다고 하며 이 혈을 신혈(神穴)이라 부르게 되었다.

낙산사의 불상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에 지금 빈터만을 남기고 있는 신라시대의 대찰 굴산사의 창건주인 범일대사가 대화년간(大和年間)에 당나라에 가서 그곳 명주땅에 있는 개국사에서 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대찰의 법회이기에 천하의 명승들이 많이 참석하였는데 그 법회 맨 끝자리에 원편 귀가 없는 중한 사람이 앉아 있다가 범일국사를 보더니 “스님은 동해 신라에서 오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저도 신라에서 왔습니다. 만 리 이국에서 이렇게 대사를 뵈올 수 있어 반갑습니다.”하고 인사를 걸어온다. 범일도 인사를 한 뒤에 그 중이 살고 있는 곳을 물었더니 명주와 접경인 익령현 덕기방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니 귀국하거든 오늘 이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꼭 한번 찾아오라는 것이다. 범일도 이국에서의 인연이 있으니 돌아가면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헤어져 범일은 그곳에서 수도를 마치고 신라에 돌아와 명주땅에 와서 굴산사를 세워 포교에 열중하느라 당에서 만났던 중의 일을 까맣게 잊

고, 어느 날 꿈에 대사가 새로 절을 건립하고 중생계도하기에 바쁘겠지만 당나라 명주땅 개국사에서 약속한 일을 왜 잊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니 찾아오면 좋은 불복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니 한번 찾아오십시오 하고 돌아갔는데 당나라에서 본 왼쪽 귀가 없는 그 중이었다. 그중이 원망하는 눈길을 남기고 돌아가기에 대사는 꿈에서 깨어 자기의 불신을 뉘우치고 그 중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들 일행이 길을 떠나 한 곳에 당도하여 어떤 부인에게 그들이 찾아가는 덕기방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덕기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내 이름이 덕기인데”라고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범일은 부인의 이름이 덕기라는 말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부인에게 이곳의 풍속 지리에 비슷하여 부인의 생활과 근황까지 자세히 물어보았다. 부인은 묻는 말에 자세히 대답하더니 “제게 8살 난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나이의 아이들 하고 놀지않고 매일 남촌 가는 돌다리 위에서 혼자 놀다 와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거나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사는 도를 얻었을 것이니 이 아이의 이상한 행동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거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다. 대사도 이상하여 그 아이가 돌다리에서 종일 놀다가 돌아와서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더니 “몸이 금색으로 된 동자하고 논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다. 범일은 금색동자 부처님의 화신이 아닐까 생각하고 소녀를 데리고 돌다리에 가서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돌다리 밑에 물이 핀 웅덩이가 있을 뿐이다. 범일은 사람을 시켜 그 웅덩이를 파보라 하였다. 얼마 파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불상 하나가 나왔는데 황옥으로 된 누런색의 돌부처였다. 돌부처를 물에 잘 씻어보니 왼쪽 귀가 떨어져 없을 뿐 다른 데는 한군데도 손상된 곳이 없어 자세히 살펴보니 범일이 당나라에서 만났던 왼쪽 귀가 없던 중 그대로이었다. 범일은 이 불상 앞에 향불을 올리고 그동안 일찍 찾지 아니하였던 불신(不信)을 사(謝)하고 “부처님은 어느 절에 모심을 받고 있습니까?”하고 염불을 하며 물었더니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비몽사몽간에 바람 곁에 들리는 말이 “낙산사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멀리서 들려왔다. 범일은 정신을 가다듬고 이 불상은 정취보살이 분명하니 원대로 낙산사에 봉하라 하여 낙산사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쿵쿵산

손양면 가평리 동쪽 지점에 있는 조그마한 산인데, 이 산에 올라 발로 구르면 마치 북을 치듯이 쿵쿵 하는 소리가 지금도 난다. 전설에 의하면 그 옛날 하늘에 있던 북이 떨어져 이 산 밑에 묻혔다고 하여 북방망이는 오산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 산속이 비어있는 것인지 내부의 일을 아는 이가 없으며, 전설에 의할 따름이다. 옛 지사(地師)가 “삼대지하연화부수국(三垓之下蓮花淨水局)”이라 하고 정철(鄭澈)의 혈압지라고도 한다. 또 천고하락지지(天鼓下落之地)라는 전설도 있는 신기한 쿵쿵산이다.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

(2012년 무형문화재 신청)

I. 발굴 재현

양양군 남단부에 위치한 현남면 입암리를 중심으로 화상천이 흐르고 화상천을 발상지로 한 유역에는 들판이 펼쳐져 상하 좌우로 예부터 예닐곱 촌락이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수동골은 서로 인접하여 마을이 형성된 관계로 예부터 늘 왕래하며 농경과 관혼상제 등을 함께하는 이웃생활권으로 오늘날까지도 유지 이어 오고 있다.

이 수동골은 보수적이고 전형적인 농촌 전통마을로 지형적인 고립과 영농의 기계화로 인한 영농방법의 변화, 행정구역의 변동, 교통 불편 등으로 유동인구와 외지인구의 유입이 적었고 영농방법



의 변화, 관혼상제, 생활풍속 등의 현대화가 아주 늦었던 관계로 전통 민속의 희석이나 변질, 변형 없이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마을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온 마을이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입암리 지역에 밀양두라고 하는 상두계(상여를 메는 사람)에 의하여 전통장례 방법으로 장사를 지내는 과정을 재현하였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입암리 지역에서는 밀양두의 상두계가 운영되었다.

호상과 악상을 고려하여 선드래 놀이를 하는 아량도 있으며 절차마다 불리지는 수동골 상여소리는 망자를 애도하고 명복과 내세를 기원해 줌을 물론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소리로 망자가 집을 떠나게 하고 산과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좁은 다리, 끊어진 다리를 건너고 봉분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상여가 집을 떠나 봉분을 완성할 때까지 절차마다 부르는 초초소리, 이초소리, 삼초소리, 하직소리, 상여가는 소리, 달회소리, 달구소리로 구성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죽음에 초연했던 것은 극락왕생의 내세관을 믿었기에 상두꾼들의 애절한 만가는 망자의 애도와 명복을 비는 것은 물론 상주와 가족을 위로하고 망자의 왕생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고증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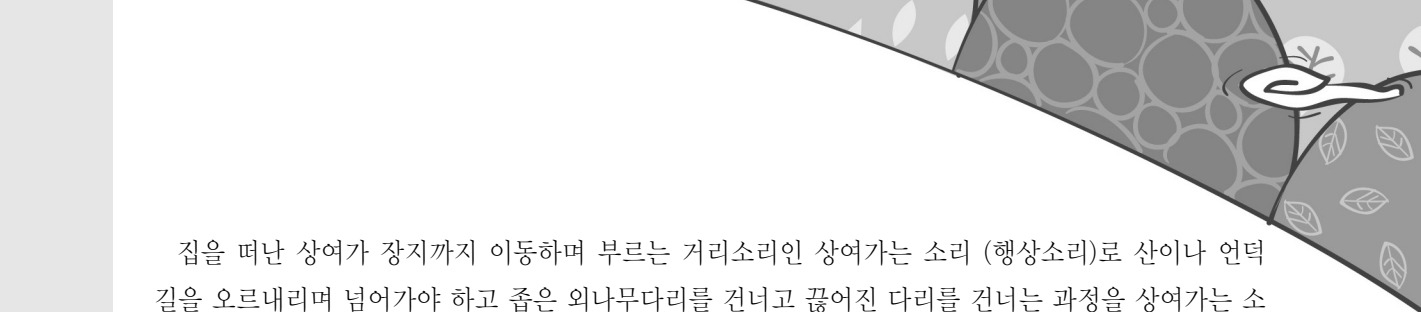
그러나 근래에 장례문화의 변화로 전통 장례 방법으로 장사를 지내는 집은 없어 매장 전통 장사의 절차나 상여 이동 방법, 봉분을 만드는 방법, 상여소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으며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어 수동골 입암리 지역 상여소리의 보존 전승을 위해 발굴·재현 하였다.

II. 구성 및 연출

수동골 상여소리의 구성 및 연출 과정은 수동골 입암리 지역의 전통장례에서 장사를 치르는 과정 중 상두꾼들이 절차마다 부르는 소리를 중심으로 상두꾼들의 소리와 함께 장사를 지내며 치르는 과정으로 구성 연출하였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드장날 밤 상두꾼들의 선드래 놀이를 시작으로 상여가 장지까지 여러 형태의 다양한 길을 소리를 하며 가는 과정과 장례 절차에 따라 상주꾼들이 여러 가지 만가를 부르며 장사를 지내는 과정을 재현 하였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드장날 저녁 선드래 놀이가 끝나고 이 밤이 지나면 망자의 떠남을 예고하는 초초소리(초초 아웁), 장사날 아침에 부르는 이초소리, 상두꾼들이 상여를 주위에 상주와 둥그렇게 서서 상여가 곧 떠남을 알리는 삼초소리,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상여가 상주와 집을 향해 절하며 부르는 하직소리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집을 떠난 상여가 장지까지 이동하며 부르는 거리소리인 상여가는 소리 (행상소리)로 산이나 언덕 길을 오르내리며 넘어가야 하고 좁은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끊어진 다리를 건너는 과정을 상여가는 소리와 함께 연출 하였다. 그리고 흰가루와 마사토를 섞어 다지는 달회소리와 봉분을 쌓아 올리며 부르는 달구소리로 이어진다.

특히 수동골 상여소리에서 상여가 산이나 언덕길을 오르고 내리며 외나무다리를 건너 끊어진 다리를 건너는 과정은 상두꾼들의 상여소리로 협동심, 일체감, 균형감을 유지하게 하여 건너게 하고 많은 경험과 숙달이 필요한 상두꾼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슬아슬하고 멋지고 보기 좋은 묘기에 가까운 과정이다.

끝으로 장사의 마지막 절차인 상두꾼들이 건을 벗고 손을 씻어 복을 벗는 다는 의미의 복 벗기를 한다. 그리고 감사하고 위로하는 의미로 상두꾼은 장사를 모두 끝냈으므로 상주와 상두꾼이 맞절을 하는 복 벗기 과정을 연출 하였다

Ⅲ. 연출과정

1. 초초소리

초초소리는 수동골 전통장례 절차에서 가장 먼저 부르는 상여소리로서 드장날 저녁 저녁식사 후 선드래 놀이가 끝나고 상두꾼 및 장사꾼들에게 떡국으로 밤참을 대접하는 떡국 적기를 마치고 음식을 봉지에 넣어 상두꾼들에게 나눠주는 봉개를 배포한 후 하는 소리이다.

초초소리는 선소리꾼이 “초초아웁니다.”하고 큰소리로 삼세번 고한 후 선소리꾼의 긴소리를 받아 상두꾼들은 뒷소리를 받아 부르게 된다.

이렇게 세 마디의 초초소리가 시작되면 상주들은 곡을 멈추었다 소리가 끝나면 더욱 슬프고 애달프게 곡을 하며 상두꾼들과 절을 한다.

상주들은 큰절로 상두꾼들은 두 손을 포개는 공수한 자세의 반절로 맞절을 한다.

2. 선드래 놀이

수동골 지역의 전통장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선드래 놀이는 상두꾼들이 벌이는 특이한 놀이로서 장사 전날 저녁인 드장날 밤에 저녁 제사가 끝나고 저녁식사 후 밀양두인 상두계로 상두꾼을 조직구성한 후 하는 놀이이다.

상두꾼들은 사위나 복인들은 매달며 웃음을 이끌어 내는 오락적인 요소가 내포된 상주와 장사집의 슬픔을 달래 주는 과정으로 펼쳐졌던 놀이이다.

선드래 놀이는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는 연초대 세 개를 삼발로 묶고 그 위에 가로대를 설치 마당 멍석자리에 세우고 복인들을 십자가 형태의 가로대에 양팔을 묶어 상하전후로 흔들며 고통을 주는 아리

랑 달기를 한다.

아리랑 달기는 연초대에 매단 복인의 양팔을 상하전후로 흔들어 마치 아리랑에 맞춰 춤을 추는 형태로 고통을 준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한다.

선드래 놀이에서는 주로 사위를 많이 달며 상주는 절대로 매달지 않는다.

“선드래”는 선소리꾼이 상두꾼을 부르는 호칭으로 선소리꾼인 계수가 “선드래”하고 호령하면 상두꾼들은 “예예”하고 대답하고 상두꾼 계수가 지명하는 복인을 데리고 와 매달며 담배, 음식 등의 물품을 받아내는 놀이이다.

이렇게 벌이는 선드래 놀이는 복인들로부터 받아 낸 담배, 음식을 되도록 많이 상두꾼들에게 배분·대접하도록 한다.

3. 이초소리

이초소리는 장사날 아침 빈소 앞이나 가매장 해놓은 앞에서 상주의 곡과 함께 상두꾼들이 부르는 소리고 곧 상여를 타야 한다는 망자에 예고하는 절차의 소리이다.

상두꾼들은 상여가 가는 거리와 하관 시간에 맞춰 아침식사를 하고 상여를 꾸미게 된다.

이초소리는 장사날 아침 빈소 앞이나 가매장으로 모셔놓은 장소 앞에서 짐을 싣기 전 상주는 곡을 하고 선소리꾼의 긴소리로 앞소리를 메기면 상두꾼들은 뒷소리를 받아 부른다.

이렇게 이초소리도 삼세번 세 마디만 부르게 되며 상두꾼들은 소리가 끝나면 반절로 망자에 대한 예를 올린다.

4. 삼초소리

상두꾼들은 이초소리가 끝난 후 관을 옮겨 상여틀 위에 올려놓는다.

이러한 과정을 수동골 지역 상두꾼들은 짐(관)을 싣는다고 표현한다.

마당가에 설치해 놓은 상여틀에 짐을 싣고 묶은 후 단경을 덮고 청천을 친 후 줄로 단단히 묶는다.

모든 장식을 설치 그 위에 광목을 띄우고 상여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렇게 상여가 하관 시간에 맞춰 떠날 준비가 되면 상주와 상두꾼들은 상여를 향해 둥그렇게 마주 보고 서서 삼초소리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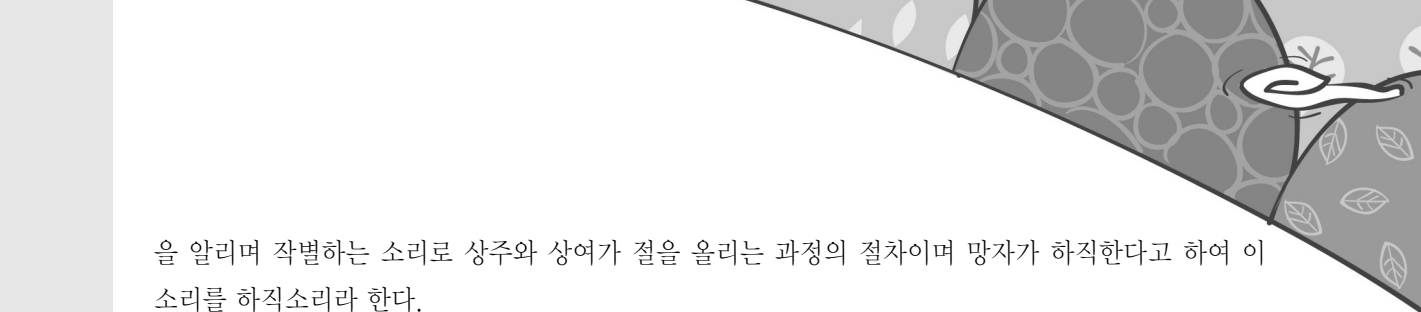
선소리꾼이 “삼초아웁니다.”하고 세 번 고한 뒤 “한번 가는 우리 인생 설워마라 설워마라 미리미리 타불”하고 긴소리인 선소리꾼의 메김 소리를 받아 상두꾼들의 뒷소리로 이어진다.

이렇게 삼세번 세 마디의 소리가 끝나면 상여를 들어 어깨에 멘다.

이 삼초소리는 상여가 생시 살던 집을 곧 떠나게 된다고 망자에게 알리는 과정의 절차이다.

5. 하직소리

하직소리는 망자를 실은 상여인 행상이 평생을 함께하며 살아 온 정든 집과 상주들에게 이제 떠남



을 알리며 작별하는 소리로 상주와 상여가 절을 올리는 과정의 절차이며 망자가 하직한다고 하여 이 소리를 하직소리라 한다.

하직소리를 할 때에는 상여를 메고 집을 향해 상주들과 마주보고 소리를 하며 상주와 상두꾼들이 맞절을 하게 된다.

상여와 상두꾼의 움직임은 선소리꾼이 메김 소리를 할 때에는 제자리에 있다가 “우”하고 상두꾼들이 뒷소리를 받을 때 대여섯 걸음 걸어 나가며 상여의 앞쪽 앞구짚이들이 한쪽 무릎을 굽혀 상여 앞채를 낮춰 상주와 맞절을 한다. 선소리꾼과 상두꾼의 구슬프고 애달픈 하직소리로 상주와 상여가 절하는 장면에 슬픔이 더욱 북받쳐 상주는 물론 상가의 모든 조문객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6. 상여가는 소리(거리소리)

상여가 하직하고 집을 떠나 다양한 형태의 길을 가며 부르게 되는 상여가는 소리(거리소리)인 행상소리는 메김 소리인 선소리꾼의 앞소리와 상두꾼들의 받음 소리인 뒷소리를 이어 부르게 된다.

상여가 집을 떠나 장지로 가는 길은 주로 망자가 잘 다니던 길이나 전답이 있는 곳을 거쳐 가기도 하며 친인척들의 노제도 지내나 시간 및 연출상 재현을 생략 하였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 설워마라 명년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한번 가는 우리 인생 이제 가면 언제 오나”하는 선소리꾼의 애절한 만가는 죽음을 애달퍼 하며 망자의 떠남을 달래는 듯하기도 하다.

상여가는 소리는 앞소리를 받는 상두꾼들의 뒷소리가 상두꾼들의 다양한 음색의 조화로 애절하고 구슬픈 자연적 화음을 이루며 멀리까지 퍼져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고 명복을 비는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고 한다.

7. 산이나 언덕길 넘어가기

옛 전통장례의 분묘 매장 문화는 근거리 있는 가산의 묘자리를 마다하고 멀리 심산계곡을 찾아서라도 명당을 찾아 조상을 모시기를 원하였다.

상여가 멀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은 혼한 일이었으며 상여가 언덕길을 오르고 내려갈 때 고개를 넘을 때 상두꾼들의 자세와 역할은 위치마다 달라 경험과 요령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여가는 소리인 행상소리는 농요와 노동요처럼 힘을 모으고 일체감으로 상여의 균형을 잡으며 집중력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어떠한 길도 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상두꾼들은 강조한다. 상여소리가 없으면 집중력이 분산되고 협동심이 무뎌져 일체감과 균형감을 잃고 상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대형소품으로 상여가 산을 넘고 구렁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험한 길을 재현 연출한 것은 수동골 상여소리의 역할을 확인 강조하려고 구성 재현하였다

8. 외나무다리 건너기

옛 시절에는 마을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쪽다리나 외나무다리를 상여가 건너가는 장면을 재현 연출하였다.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는 무게의 중심을 다리 가운데인 상여틀에 두고 좌우 상두꾼들의 힘과 무게의 균형이 맞아야 하며 좌우 상두꾼들의 자세가 역삼각형 형태로 균형을 유지하며 다리를 건널 수 있다.

외나무다리 건너기는 소리에 발을 맞춰 발을 내딛으며 일체감으로 호흡을 맞춰야 상여가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며 이동 할 수 있으며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9. 끊어진 다리 건너기

옛날 전통장례의 상여가는 길은 험하고 다양하여 끊어진 다리, 넓은도랑, 구렁진 곳이 많아 상두꾼들이 발을 물에 적시지 않고 건너가는 장면을 재현·연출하였다.

상여가 끊어진 다리를 건널 때에는 앞구짚이는 뒤로 물러나며 앞 의관만 먼저 상여 앞채 머리에 매달려 건너간 다음 앞의관이 상여 앞채머리를 받쳐주며 1장부터 차례로 상여틀가락에 매달려 건너가게 되는 묘기 같은 힘든 장면이다. 끊어진 다리 건너기는 체력을 바탕으로 요령이 필요하며 상여가는 소리에 동작을 맞춰 일체감으로 상여의 전후좌우의 중심을 잡아 균형을 유지하며 건너가야 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재현하였다.

10. 달회소리

청광자리에 하관을 한 후 관위 횡대목을 깔고 황토마사와 회를 잘 혼합하여 덮을 흙을 다지며 부르는 소리를 달회소리라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관위의 흙이 무너지지 않게 황토마사와 회를 섞어 발과 연초대로 잘 다져 관 위 횡대목을 덮어 굳게 하는데 필요한 흙을 다지는 과정의 소리이다.

상두꾼들의 뒷소리가 “어허 달회야 하여 달회소리라” 하며 달회소리는 먼저 느린 가락의 긴소리를 세 마디하고 선소리꾼과 상두꾼이 메기고 받고 하며 빠른 자진모리가락으로 달회소리를 한다.

이 소리는 관 위만 덮은 적은 양의 흙을 다지는 소리로 관이 들어갈 청광자리 옆에서 7~8명 정도만 참여 짧은 시간 동안만 달회소리를 한다.

11. 달구소리

수동골 전통장사에서 상두꾼들의 장사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로 묘의 봉분을 쌓아 올리며 하는 소리이다.

봉분을 만들 흙을 덮어 놓고 연초대를 잡고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며 달구소리에 맞춰 봉분을 다진다. 달구질은 달구꾼들의 일체감과 정확한 동작으로 발을 맞추며 해야 힘도 덜 들고 능률적이라 한다.

선소리꾼은 달구질꾼들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더욱 애절하면서도 신명나게 메김 소리를 하면

달구질꾼들도 저절로 신명이 나서 절정에 이르게 되며 두 번 세 번 단계별로 봉분을 쌓아 올리게 된다. 달구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연초대를 좌우 어깨위로 넘겨 흙을 짚어 다지며 왼발 오른발을 연초대에 맞춰 번갈아 밟아가며 다져야하므로 체력과 운동감각이 요구되며 율동성과 일체감으로 연속적인 동작이 필요한 힘든 일로 숙달이 필요하다고 한다.

보통 상두꾼 16명 전원이 참여하나 서툴러 참여 못하는 상두꾼도 있다고 한다.

12. 복 벗기

끝으로 장사의 마지막 절차인 상두꾼들이 건을 벗고 손을 씻어 복을 벗는다는 의미의 복 벗기를 한다. 장지에서 장사일이 끝나면 상두꾼들은 장사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게 된다.

마당 명석자리 가운데 상을 놓고 상위에 물동이와 수건을 준비해 놓으면 상두꾼들은 먼저 건을 벗어 상위에 올려놓고 물동이에 손을 씻는다.

상두꾼들도 건을 쓴 복인으로 장사를 치렀으므로 장사가 모두 끝나 건을 벗어 복을 벗는다하여 복 벗기라고 한다고 한다.

상주는 장사를 잘 지내게 해준 감사의 뜻으로 상두꾼들은 장사지내는 임무가 끝났다는 의미로 상주와 상두꾼들은 감사와 위로의 맞절을 하는 복 벗기 과정을 연출 하였다.

IV. 수동골 상여소리 사절

1. 초초소리(초초아림)

- 1) 초초아웁니다(선소리꾼이 고향)
- 2) 초초아웁니다
- 3) 초초아웁니다(삼 세 번)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어 등 돌아나니 백발이로다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아~ 어~ 무명 못혈 죽음시오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2. 이초소리

- 1) 이초아됩니다(선소리꾼이 고향)
- 2) 이초아됩니다
- 3) 이초아됩니다(삼 세 번)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 어 가자 가자 찾아가자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아~ 어~ 천하 명산 어디메냐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3. 삼초소리

- 1) 삼초아됩니다(선소리꾼이 고향)
- 2) 삼초아됩니다
- 3) 삼초아됩니다(삼 세 번)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 어~ 한번 가는 우리인생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아~ 어~ 설워마라 설워마라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4. 하직소리

아~ 어~ 어어~ 우~ 여~ 어어~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우~ 여~ 어어~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 어~ 신 사당에 문안하고 구 사당에 재배하야
아~ 어~ 어어~ 우~ 여~ 어어~

아~ 어~ 하직이요 하직이요 인간 하직 망극하여이다
아~ 어~ 어어~ 우~ 여~ 어어~

5. 상여가는 소리(거리소리)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워마라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명년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어제는 청춘 오늘은 백발 그 어느덧 늙어간가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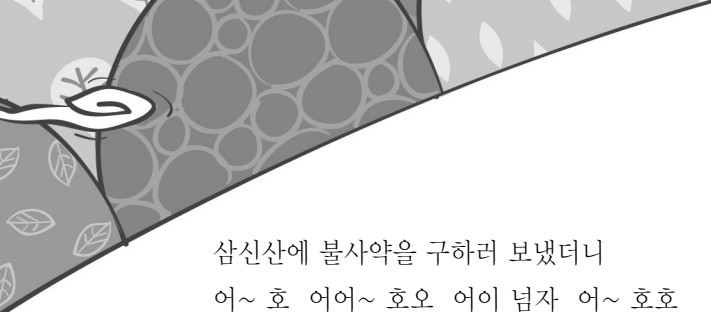
여보시오 소년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젊다고 자랑을마라 다시오기도 어려워라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가겠네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정월이라 십오일에 망월하는 소년들아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음풍도 보련마는 부모봉양 잊지마라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누턱으로 나왔느냐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삼신산에 불사약을 구하러 보냈더니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소식조차 동결하여 사후련대 저문날에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예산황초 뿐이로다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우리조선 십삼도에 삼신산이 어디메냐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강원도라 이십육관 명승지가 어디메야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금강맥이 비봉하여 명산을 이뤘구나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권자 낙조가 여기로구나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무정소세월 여류하야 어언간에 백발이라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부모은덕 모르리라 부모은공 모르리라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아침나절에 성튼 몸이 저녁 무렵 병이 들어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인간세상 하직이요 인간하직 웬말이나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실날같은 약한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드니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부르는 게 부모님이요 찾는 게 냉수로다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인삼녹용 소용없네 효렴이 있을소냐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6. 달회소리

(긴소리)

※ 아~ 어~ 어어~ 달~ 회~ 여어~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달~ 회~ 여어~ :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 어~ 삼사월절 흐르는 물아
아~ 어~ 어어~ 달~ 회~ 여어~

아~ 어~ 산처내로 흘러서 가네
아~ 어~ 어어~ 달~ 회~ 여어~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 이팔청춘에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 마
어제는 청춘이요
오늘은 백발이라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설악산 제일봉에는
봉학이 앉아쉬고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상하월천 흐르는 물은
화상천으로 흘러가네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저승길이 얼마나 멀어
한번 가면 못 오시나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 일세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대궐 같은 집을 두고
문전옥답을 앞에 두고
슬프도다 우리부모
북망산천 찾아 가네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아버님에 뼈를 깎아
어머님에 살을 붙이니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부모님 전에 달았으니
부모은공 못다 말아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이 세상 하직이요
슬프도다 우리부모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원수백발 달려드니
상고님들 왜 모르나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삼재팔란 관재구설
우환질병 근심걱정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휘몰아다 내버리고
어화동실 다버리고

아~ 허 달회야
아~ 허 달회야

동지선달 설한풍에

아~ 허 달회야

그 자손이 추울세라	아~ 히 달회야
깎아주고 덮어주고	아~ 히 달회야
부모은덕 누가아라	아~ 히 달회야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 히 달회야
아방궁을 높이 짓고	아~ 히 달회야
만리장성 쌓은 후에	아~ 히 달회야
육국제후를 조공 받아	아~ 히 달회야
목도마르고 숨도차니	아~ 히 달회야
이만 저만에 그만두세	아~ 히 달회야

7. 달구소리

(긴소리)

※ 아~ 어~ 어어~ 달~ 구~ 여어~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달~ 구~ 여어~ :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 어~ 문전을 돌아나니
아~ 어~ 어어~ 달~ 구~ 여어~

아~ 어~ 설워마라 설워마라
아~ 어~ 어어~ 달~ 구~ 여어~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 산지조정은 권룡산이요
물에 조정은 황하수라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신체발부 사대절골

아~ 히 달구야

먹고 가나 쓰고 가나
맨손으로 가는 구나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어제 날엔 성 튼 몸이
저녁 날에 병이 들어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바늘 같은 약한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들어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인간하직 웬 말이나
원통하고 원통하네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아 춘수에 만사중하니
물이 깊어 못 오시나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손이나 장막이요
초패왕이 손을 잡고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원도에는 이십칠관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양양땅으로 접어드니
살기좋은 양양일세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설악점봉에 기봉하고
동해를 펼쳤구나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국태민안 시화연풍
태평연월이 좋을시고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군으로는 양양군이요
면으로는 현남이라

아~ 허 달구야
아~ 허 달구야

망령재를 돌아내려

아~ 허 달구야

화상천이 발원이라

아~ 히 달구야

수동골 접어들어
갯바우가 터전했네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건구곤명 상 씨대주
곤명에는 동 씨부인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명산중에 오봉산에
낙산사를 가람하고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살아생전 부모은덕
극락왕생 발원이라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무정세월 여류하여
어언간 백발되니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목도 마르고 숨도차니
이만저만에 그만두세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양양 입암농요

(2012년 무형문화재 신청)

I. 작품해설

1. 논 삶는 성군소리


소로 쟁기를 끌며 사용하는 성군의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보구레(논을가는 쟁기)로 소를 몰며 논을 갈고 씨레로 논의 흙을 고르며 삶는 과정에 부르는 농요다.

소를 몰러 논을 갈거나 흙을 고르며 삶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을 성군이라 하며 많은 경험으로 소를 능숙하게 몰러 소를 부리는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군은 질이나 마을에 몇사람 없으며 상일꾼으로 대우 받는다.

논 삶는 성군소리는 소를 몰며 소를 의인화하여 소와 대화 형식의 사설로 주로 '이랴 이랴' '올라





서라' '내려서라' '돌아서' '어서가자' 등의 소에게 명령하는 대화체와 주위환경 일 현장 애환 등을 즉흥적 사설로 많이 부른다.

2. 모찌기 소리

모판에서 모를 찢때(모를 뽑는 과정)부르는 짧은 소리로 작업과정 동작이 되풀이 되며 모 한층을 찢때마다 한마디씩 주고 받으며 부른다.

가락과 사설의 단조롭고 계속 반복되며 빠르고 짧은 경쾌한 소리로 주고 받으며 이어 부르는 농요이다.

다른 일꾼들은 '으흐 이히 잘한다 어 잘찢다 어 잘찌네 나간다' 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운다.

3. 모심기 소리

모를 심으며 부르는 소리로 한사람이 부르면 다른 사람이 받는 주고 받으며 하는 소리이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나 주게 바라같은 이 논빼미 심어나 주게 아라리 타령을 부른다.

소리꾼 몇사람이 주고 받으며 부르며 다른 일꾼들은 잘한다 으히 으히 어허 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우며 모를 심는다.

4. 팔래놀이

팔래놀이는 질을 먹을때 하는 놀이로서 일의 능숙도에 따라 질(두레)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품앗이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질먹는 놀이는 모심기가 모두 끝나면 술을 빚고 음식을 만들어 집마당에 멍석을 깔고 또는 마을의 쉼터에서 잔치를 벌이며 며칠씩 노는 놀이이다.

팔래할 대상자는 술과 음식을 준비해야 하며 영좌(두레대표)를 모셔 놓고 놀이를 한다.

총각대방은 팔래할 사람을 영좌의 상 앞에 앉히고 술을 한잔 올리게 하며 영좌에게 예를 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영좌는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을 당부하며 팔래놀이가 끝나면 질의 구성원과 품앗이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의 놀이이다.

5. 김매기 소리

① 큰소리(큰노래)

김을 매기 시작하는 아침에만 부르는 특이한 소리로 벼에 맺힌 이슬이 김을 매면 털어 진다 하여 '이슬털기' '큰 노래' 라고도 하며, 아침 김매기 시작할 때 하루 한번만 몇마디만 부르는 농요이다. 때문에 밭갈 채록할 당시 큰소리를 부르는 창자가 한두사람 밖에 없어 겨우 녹취하고 지도하며 가르친 소리이다.

앞소리를 부르는 선창자와 뒷소리를 부르는 일꾼들이 전혀 다른 가락으로 동시에 부르며 노래를 짜준다고 하는 2부 합창과 같은 형식으로 부르는 소리이다.

앞소리와 뒷소리 가락이 전혀 다른 특이한 창법의 농요를 병창형태로하며 소리의 어울림이 한층 돋보이게 한다.

큰소리는 아침에 한번만 하여 소리를 잘하도록 목소리를 푸는 역할로 노래를 짓는다 노래를 짜주는 농요라고도 한다고 고증해 주었다.

② 동따래기

김을 뭍때 부르는 이 농요는 ‘동따라기’ ‘똥따래기’ 라고도 한다.

이 소리의 유래는 항상 백성의 원성을 사던 하급관리인 『청용』이라는 아전의 관복소매가 떨어진 것을 보고 직접 말로 옷의 동을 달아 입으라 할 수 없어 노래로 놀려 주면서 전했다는 재미있는 유래가 전해진다고 고증을 해준 농요다.

‘동 떨어졌네 동 떨어졌네 정용소매 동 떨어졌네’ ‘정용소매 감쳐주게’ ‘동달아 입지’의 사설에서 동따래기의 어원과 유래를 보면 고증은 의미 있으며 참 재미있기도 하다.

③ 사령가

김매기소리의 일종으로 사랑가라고도 하는 이 농요는 다른 소리보다 비교적 경쾌하고 흥겨운 농요로 짧은 호흡으로도 소리할 수 있어 힘든 소리를 하다가 사령가를 부르며 쉰다고 한다.

여러 가지 김매기 농요 중에서도 여럿이 함께 쉽게 부를 수 있는 농요라고 한다.

④ 양승백이

김을 뭍때 많이 불려지던 농요로서 울진태생의 「양승백」이라는 선비는 풍류를 즐겨 방랑하며 글을 짓는 선비로서 항상 걸식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양승백이는 걸식을 하며 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기가 일쑤여서 밥값으로 글을 한 수씩 지어 주었다고 한다.

마침 이 일대를 지나던 중에 김매는 일터에 도달하여 일터에서 점심을 한끼 얻어 먹고 시를 한 수 지어 주었다고 한다.

양승백이는 이 시로 김매기 소리를 불러 보는게 어떻겠느냐고 하자 일꾼들은 한번 불러 보자고 하였다고 한다. 그 후로 이 농요를 부르게 되었으며 농요의 곡명은 ‘양승백이’로 불려지게 되었으며 이 농요의 제목을 ‘양승백이’로 하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까닭은 내 이름을 잊지 말고 다음에 또 오면 잊지 말고 밥을 먹게해 달라는 의미하고 했다.

이 농요의 사설 중에 ‘돌아왔네 또 돌아왔네 양승백이가 또 돌아왔네’의 사설을 보면 그 유래가 참 재미있기도 하다.

⑤ 주름이

동따래기가 끝나자 마침 비가와서 논밭으로 나가 우장을 쓰고 다시 들어와 김을 매는 대형을 김을 매던 논 끝 부분에서 둥글게 원으로 모이면서 옷의 주름을 잡듯 좁혀가며 매던 논빼기의 김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정심참 실참 일을 끝내고 밖으로 나올때 항상 논빼미 끝부분에서 둥글게 모이면서 하는 농요로서 사령가는 딱 세마디만 부르며 논빼미의 김매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에 ‘아, 으, 우’ 등의 구음창과 마지막 끝은 일어서며 만세 부르는 동작으로 모두 ‘싸대’ 하며 끝을 맺는다.

⑥ 오덕떼기

김을 땀때 가장 많이 부르는 농요로서 시정적이며 서정적인 재미있는 사설 가사가 많으며 아주 정적인 농요다.

오덕떼기의 유래는 조선조 세조대왕께서 병을 치료하고자 산수 수려한 곳을 찾아 다니던 중 오대산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다.

마침 동해안 쪽으로 산책을 하다 김을 매는 농부들의 농요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저 김을 매며 부르는 소리하고 하자 세조대왕께서는 내가 곡명을 붙여 주겠노라고 한 후 한참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자가 들어 있는 곳에서 덕을 입어 병을 떼었으니 ‘오덕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농부들은 그것이 참 좋겠다 하여 그후부터 ‘오덕떼기’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고증을 얻었다.

김매기 농요중 사설은 시적이고 가락은 음악적이며 느리고 긴 농요로 여러 창자들의 다양한 사설과 즉흥사설로도 많이 불리며 채록 당시 창자가 한두명 밖에 없었으며 녹취하고 가르치며 지도한 농요로 가장 많이 불려진다.

II. 출연과정

1. 성군소리(논 삶는 소리)

이러 이러 이러 어~

이러 이러 어서 가자

자아 이러 어 모꾼들이 쫓아온다

이놈의 쇠야 빨리 가자 이러 어

어디야 올라서라 이러 이러
이러 어 돌아서라 돌고

이러 어 내 탓이냐 네 탓이냐
네가 못 쉬는 것은 주인 탓이오

이러 어 내가 쉬지 못하는 것은
내 담배가 떨어진 탓이라 이러 어

이러 어 올라서라 어서가자
이러 이러 돌아서 가자 돌고

이러 이러 어 굵은 돌은 굵어 내고
쟁돌은 밀어내자 이러 이러 어

이러 어 쇠대거리 모춤 올라간다
이러 이러 어 빨리가자 내어 서라

이러 어 이놈어 쇠야 주인 닦았나
코빼기가 왜이리 세냐 이러 어 돌고

이러 이러 산너머 산이 있고
버딩에도 돌도 많구나 이러 이러

2. 모찌는 소리

얼른 얼른 한춤을 찌어라.
아 어어 어 한춤을 찌어라.
아 어어 어어 한춤을 묶어라.
얼른 얼른 하더니 한춤을 묶어라.
그 소리 멀리가기 전에 나도 한춤을 묶어라.

아 어어 어 나도 새로 한춤을 묶어라.
아 어어 얼른 한춤을 찌어라.
아 어어 얼른 나도 한춤을 찌어라.
너도 한춤 나도 한춤 한춤을 묶어라.
얼른 하더니 새로 한춤을 묶어라.
에헤에 에헤 또 한춤을 나간다.
아아 뒤미쳐 나도 한춤을 찌었다

3. 모심기 소리

아리리야 아리리야 아라리로구나
아라리 고개고개를 잘도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나 주게
바다 같은 이놈빼미 심어나 주게

허궁 중천에 뜬 저달은 님 계신곳을 알건만
나는 야 어이해서 님계신 곳을 모르나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나 주게
일심받아 얼릉얼릉 심어나 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나 주게
원앙에 줄모를 심어나 주게

남전백설이 찾아지도록 봄소식을 몰랐나
뒷동산에 행화춘절이 나를 알귀주네

앞능선에 저목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날과 같이 금년에도 또 묵는구나.

넘어가네 넘어가네 또 넘어가네
반달같은 이놈빼미 또 넘어가네

4. 큰소리(큰노래)

창밖에 노송 끝에 학이 앉아
그 학은 젊어가고 우리 인생은 늙어만 간다.

늙기 젊기는 설지는 않아도
내 머리 시는 양이 더욱더 설다.

낙산사 의상대 끝에 고기 낚는 저선비야
그 고기 낚지 말고 이네 몸이나 낚아 주오.

《독창자와 병창으로 부르는 소리를 싸는 소리》

어리시구나 저리시구나 지어 졸졸 저리시구나
어리시구나 저리시구나 지어 졸졸 저리시구나

5. 동따래기

동떨어나아 에헤 으흐흐 졌네 에에
정용 으흐흐 옷 소매에
동떨어나 에헤 으으 졌네

감चना 주게 에헤 으흐흐 주게
감चना 에헤 으흐흐 감चना 주게
정용 으흐흐 소매를 감चना 주게

동달아나 에헤 으흐흐 입지 에에
동달아 에헤 으흐흐 입지
정용 으흐흐 소매 동달아 입지

6. 사령가(사랑가)

갈거나 보나 갈거나 보다

내님 찾아 으흐 갈거나 보다

돈 실러가세 돈 실러가세
충주 목포로 으흐 돈 실러가세

연줄가네 연줄가네
해와 달속으로 으흐 연줄가네

신사다주게 신사다주게
총각 낭군이 으흐 신사다 주게

술집에 큰애기는 술잔을 들고
베푸장 밑으로 으흐 왕래를 하네
겉에 겉잎 제쳐놓고
속에 속잎 으흐 나를 주오

(후렴) 에헤루 사리랑아 에헤 으흐
아무리 하여도 내사령아

7. 양승백이

에헤 또 돌아온다 에헤 또 돌아오네
양승 으허허 백이가 또 돌아온다.

에헤 더디온다 에헤 더디 온다.
칠월 으허허 한달이 더디 온다.

에헤 돈실러 가세 에헤 돈실러 가세
충주 으허허 목계로 돈실러 가세

에헤 돈실어 놓고 에헤 돈실어 놓고
서천 으허허 개수로 술타령 가세

에헤 남문을 열고 에헤 파래를 치니
계명 으허허 산천이 밝아 온다.

에헤 칠월 한달 에헤 얼른 오면
부모 으허허 동생들 만나보세

에헤 오동동 추야 에헤 에헤 명랑도하다.
칠월 으허허 한달도 달도 밝네

(후렴) 에헤야 데헤 으흐흐
 으흐 아이고 지야자 지야
 지여 월잔 부어도 못오시나

8. 주름이(싸대)

에헤헤 에헤요 우여 어어 사대
에헤헤 에헤이요 우여 어어 사대
에헤야 에헤헤 헤헤이요 싸대

9. 오덕떼기

남산 봉학이 죽순을 물고
한양 성내를 굽어보네.

양양이라 낙산사는
관동팔경 제일이라.

남문을 열고 파래를 치니
계명 천지가 밝아온다.

월정리 오대산 물은
청심대를 감돌아 든다.

연줄가네 연줄가네
해와 달속으로 연줄가네

화상천 흐르는 물은
굽이굽이 감돌아 흘러가네

양양이라 낙산사 의상대
고기남는 저 선비야

그 고기 남지 말고
이네 몸이나 낚아 주오.

양양 상복골농요

(2012년 무형문화재 신청)

I. 작품해설

1. '상복골 농요'는 소하천 주변의 좁은 들이나 골짜기의 다락논에서 주로 불려지던 산간지방의 농요로서 가락은 정적이며 사설은 지역의 명소나 명물들을 등장시킨 통속적이고 해학적이며 권논을 중심으로 한 충효애향 근면과 애정 그리고 사랑을 담은 내용이 많다.
2. 고려초부터 집단마을을 이루어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 '상복골 농요'는 일의 과정과 동작에 알맞고 다락논에서 일하기 적합하게 짜여져 있어 항상 힘든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에게 흥을 일으키게 하고 보람을 갖게 하는 양양지방의 대표적 농요이다.

3. 산골 다락논까지 기계영농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질(두레)을 조직하여 재래식 방법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향토색 짙은 '상복골 농요'를 마을노인의 고증과 구전을 발굴 재현하게 되었다.

① 성군소리

우장을 메고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입장하여 한바탕 흥을 돋운다. 스레질하는 성군이 스레질 소리를 하며 다른 일꾼들은 모찌기 준비를 한다

(소의 의인화하여 대화하는 형식의 사설과 가락으로 선소리와 뒷소리없이 성군이 소리를 한다.

② 모찌기 소리

모판에서 모찌기를 한다. 나간다. 잘한다. 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우며 모를찐다.

짧은 작업과정이 되풀이 되므로 가락과 사설이 단조롭고 계속 반복된다.

③ 모심기 소리

모를 다 찐후 양손에 모흙을 들고 춤을 추며 논 앞쪽으로 나가서 횡대로 모 심는 형태로 선다.

모심기를 시작하면 모심는 소리를 하게 된다. 소리를 주고 받으며 모두 모심기를 하게 된다. 선소리와 뒷소리 없이 소리를 하게 되는데, 다른 일꾼들은 잘한다. 어허, 이히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우워 모를 심는다. 모종들은 모를 던지며 모종을 한다. 모를 다심고 설터로 나오게 된다.

④ 실참 좌판놀이

설터로 나온 일꾼들은 앉아서 참을 먹으며 두레패 농악이 흥을 돋우워 주면 모두 흥겨워 어깨춤을 추며 흥겨워 한다. 이때 끝머슴은 상머슴에게 잔을 올리고 큰절을 한다. 이렇게 좌판놀이를하다 흥에 겨워 모두 일어나게 되며 한바탕 흥겹게 논다.

⑤ 김매기소리

- 농민아리(미나리 소리)

상복골 농요중에서 가장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이 김매기 소리이다.

이 미나리 소리는 주로 오전에 부르는 김매기 소리로서 사설은 4,4,4,4조로 이루어진 시조형태의 농요이다.


처음에는 일렬행태로 김을매다 마지막 논빼미에서 김을 펴때에는

양쪽끝에서는 우겨라하여 오므리며 원형형태로 모이며 소리를 한다.

- 동강소리

농악가락에 맞추어 다시 김매기 형태로 서게 한다.

동강소리는 오후에 불려지는 김매기 소리로 미나리보다 빠르며 가락이 경쾌한 편이어서 김을 빨리 딸수 있는 민요이다.



점심참에 휴식을 취한 뒤이므로 김을 싸워 매기 위함이다.
김을 뽐때는 끝부분이 우겨매므로 원형대형이 이루어진다.

⑥ 한바탕놀이

일이 끝나면 심신의 피로를 풀기위함과 일이 끝남에 즐거운 마음으로 한바탕 놀며 흥을 돋운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피로를 풀며 상머슴을 지게 가마에 태워 질꾸레기 가락에 춤을 추며 귀가한다.

II. 출연과정

1. 성군소리

이라이라 오르내리지 말고
제골수로만 돌고요. 이라이라 오도오(돌고)

이라이라 잔들은 씨러뒸고
끓은 돌은 냉겨뒸고 이라이라 오도오

이라이라 이큰 암소야
어정거리지 말고요
점심참이 늦어진다. 이라이라 오도오

이라이라 화채봉에 해는 올라섰는데
한눈팔지 말고 이라이라 오도오

이라이라 서산에 해지는데
얼른얼른 하고말자. 이라이라 오도오
이라이라 쇠머리에
모춤 올라 앉는다.
얼른얼른 하자. 이라이라 오도오

2. 모씨는 소리

얼른얼른 하더니 여기도 또 한춤(나간다)
걸찢걸찢 하더니 여기도 또 한춤
그소리 멀리 가기전에 여기도 또 한춤
너한춤 나한춤 여기도 또 한춤
물소리 찰랑찰랑 여기도 또 한춤
담배참이 늦어진다. 여기도 또 한춤
궁뎡이 수풍할라 여기도 또 한춤
얼른얼른 잡아댕겼구나. 여기도 또 한춤
눈치보지 말고 뎡겨라 여기도 또 한춤
이모판에 저모판에 여기도 또 한춤
잘도찢다. 잘도찢다. 여기도 또 한다.

3. 모심기 소리

하늘 중천에 뜬구름은 비나 줄려고 떴지
골목골목 나선 색시는 누구를 불라고 나선나

설악산 산지골에 실안개 돌고
우리집 문전에 정든님 오네

심어주게 심어주게 또 심어주게
바다같은 요논빼기 또 심어주게

아들딸 못낳는다고 산제불공 말고
야밤중에 오는손님 문뺨겨 주게

산이야 높아야 골이나 깊지
조그만 여자속이 얼마나 깊나

놀다가 죽어도 원통한데
밤낮을 모르고 모만심네

나도야 남클적에 다같이 컷건만
무슨기 팔자로 며슴살이만 하나

살지골 흐르는 물에 뒷집총각 웃고
다락논 풍년에 저색시 시집가네

넘어가네 넘어가네 또 넘어가네
반달같은 이논빼기 또 넘어가네

노랑주 대가리 솔잎상투
저것이 언제커서 쌀낭군 되나

가는데 쪽쪽들이 정들여 놓고
이별이 찾아서 나 못살겠네

앞슴에 머리치고 뒷슴에 궁뎅이 치니
반달같은 이논빼기 꺾어나 주게

세월아 네월아 오가지 말아
알뜰한 요네 청춘 다늬어 간다.

천년만년 누루살려 걱정했더니
오늘로서 그 천년이 다 되었네

설악청봉 먹구름에 풍년이 오니
다락같은 이논빼기 꺾어나주게

4. 김매기 소리

① 농민아리(미나리 소리)

심시하고 양양한데 질꾸레기 불러보세
매여주게 매여주게 손을세워 매여주게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지고
모시적삼 입던몸에 삼베적삼 웬말이나
질꾸질삼 잘한여자 울릉발이 실어주고
질꾸질삼 못한여자 매나공공 때려주게
상복개를 맑은물에 배차씻는 저처녀야
겉에겉잎 제쳐놓고 속에속잎 나올주오
오늘해는 걷갔는지 골골마다 그늘졌네

② 동강소리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넘어 연줄가네
그기어디 연줄이나 우리부모 명줄이세
그늘졌네 그늘졌네 골골마다 그늘졌네
해가져서 그늘졌네 산이높아 그늘졌지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반공중에 떴는해는 서산마루 넘어가네
이슬아침 만난동무 해질걸음 이별일세
낙산사 의상대 끝에 고기낚는 저 선비야
거기고지 낚지말고 이내몸을 낚아주오



2012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자 현황

심사자	심 사 내 용	부문
<p>김영준 (양양여고 교사)</p>	<p>세태가 급격히 변하는 시대이다.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가치있게 여겨졌던 것들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세대에 의해 창출되고 있다. 그들의 의식도 이와 함께 흘러가고 있어 안타까움과 기대가 상충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타까움은 실망으로 화하고, 기대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p> <p>‘경로효친’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해도 인륜의 기본 가치는 영원한 것인데, 그 또한 세태의 변화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백일장의 글들을 일별하며 오늘날의 우리 교육에 있어 ‘경로효친’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표현력의 부족은 생각의 부족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울러 경로효친의 태도가 진지함보다는 다소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 더욱 그러했다. 초등학생의 글은 전체적으로 표현력의 부족이 큰 흠이 되었다. 그들이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나이 이기에 아직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효’는 어릴적부터 몸에 배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런 가운데 진세림 학생의 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별에 비유한 창의적인 표현이 돋보임은 물론 나름대로 진지함도 갖추고 있었으나, 최리에 학생의 산문은 경험적인 내용이 돋보여 좋았다. 경험이 결국 인간을 성숙하게 한다는 깨달음을 글로 표현해 낸 솜씨가 평범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p> <p>중학생들의 글 또한 표현력의 면에서 미숙하다는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어떤 글은 초등학생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시의 경우는 출품작이 적어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없었으나 김성희 학생의 작품이 그나마 돋보였다. 산문에서는 최영식 학생의 글이 가장 우수하였다. 특히 ‘경로효친’의 정신을 ‘봉사정신’과 연결지어 새로운 해석을 가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오늘날 세대에 맞는 ‘경로효친’ 태도의 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 바람직하게 느끼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경로효친’의 진정한 가치부터 인식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태도 교육부터 행해질 때 좋은 글 또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글쓰기 교육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봄 직도 하다는 생각을 해본다.</p>	<p>시,산문</p>
<p>최은희 (양양중 교사)</p>	<p>경로효친 포스터는 일관된 주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예년에 비해 관심과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효란 막연히 웃어른 섬기기, 어른을 공경한다가 아니고 그 근본은 지극히 행실과 정성으로 사회의 도리를 다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폭넓은 효도사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번 작품들은 효를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을 표현한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효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여야 하는 것처럼 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무한한 꿈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p>	<p>포스터</p>

2012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자 현황

학교별	산문			시			포스터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초등학교		양양초 4 심정혁	한남초 6 김은선		송포초 5 한수지	상평초 4 이재우		양양초 4-3 도재훈	강현초 3 김수연
		남애초 6 최리아	인구초 3 이정아		한남초 6 진세림	양양초 5 방승후		상평초 5-1 박다희	한남초 6 김서정
		강현초 4 이재혁	양양초 5 김다솜		한남초 6 신석원	인구초 1 이현석		조산초 5-1 정준혁	강현초 3 이유빈
중학교	양양중 2 최영식	현북중 3 이관준	현남중 2 전해인	현북중 3 김성희	현북중 2 최은지	현북중 2 김수연			
						현북중 1 최용환			

경로효친문에작품 중등부 시부문 최우수상

열여섯 소녀

김성희 (현북중학교 3학년)

육십 여년 전, 파리한 봄 하늘 아래
따스한 열여섯 소녀의 아리따운 미소를
여린 분홍 꽃잎으로 가득한 두 볼을

육십 여년 흐른 지금 그대 모습
열여섯 내가 상상해 보아요

육십 여년 전 열여섯 그대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요

비바람 휘몰아쳐도
그대의 노련함으로
소나기처럼 지나갈 것을 알아요

고마움에 그대를 늘 그리며
잊지 않을 것을 알아요
후에도 내 곁에
늘 있으실 것을 알아요



별 하나

진세림 (한남초등학교 6학년 1반)

깜깜한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과 땀방울이 맺혀 있겠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때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납니다.
우리 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오셨지만
한 번도 우리에게 힘들다고 괴롭다고 말 한마디 안하셨지요.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데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늘 힘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답해야 할 마음의 크기는
지구만큼 내놓아도 부족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경로효친문에작품 중등부 산문부문 최우수상

경로효친과 봉사

최영식 (양양중학교 2학년 1반)

나는 집안에서 막내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철이 들었어야 할 때에도 철이 들지 못하고 컸다. 그러던 나에게 한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할아버지께서 임종하신 것이다. 그때 내가 공식적으로 들었던 것으로는 자연사인지 질병사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중 하나로 병원에서 밝혔다. 하지만 그 당시 병원에서 목의 혈관에 직접 링거를 놓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것이 빠져 엄청난 양의 혈액이 나왔다고 한다. 이제 와서 병원측과 잘못을 운운할 수는 없지만 그때 슬퍼하던 나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그 후로 철이 들었다. 가벼웠던 입은 차차 무거워졌고, 밤을 새워 3일 연속으로 장례식을 지낼 때 잠깐도 자지 않고 향을 피운 것은 물론, 놓인 모든 것을 남들 알게 모르게 정리하고 단정하게 해 놓았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내가 모르는 사이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다. 항상 날 챙겨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내가 할아버지의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리 큰 상실감을 받진 못했으나 모르는 사이 큰 상처를 주었다.

그 후로 나는 할머니를 포함한 집안의 어른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되었다. 할머니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하모니카마저 사서 두었다.

그렇게 지내던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 '정다운마을'을 찾게 되었다. 그 곳에서 나는 봉사점수만 얻고 갈 계획이었다. 학교에서 받아야 할 봉사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빴기 때문인데 그들을 보는 순간 그럴 생각을 접게 되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정다운마을은 원래 장애인들 중 1급만 오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장애의 정도가 심각했다. 생각이 모자란 장애인들은 말을 잘 하지 못했고, 운신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거동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거동이 불편했고 힘이 없어 말을 하지 못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결국 나는 거기에서 굶은 일을 도맡아서 했다. 책상, 식탁, 심지어는 창문과 방충막까지 닦아 놓았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산책도 갔다 왔으며 운신이 힘든 장애인들에게 먹을 것도 먹여 주었다. 어느 것 하나 보통 봉사자들은 하지 않는 것이었다. 세시간 반 동안 하기에는



정말 많은 양이었지만 나는 그들을 보고 하게 되었다. 아니, 어쩌면 할아버지에 대한 나의 보답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밝고 순수했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도 그들이고, 일을 할 때 자리를 피해 준 것도 그들이고, 좀 쉬면서 하라는 말을 한 것도 그들이었다. 계속 그 모습에서 할아버지를 떠올랐다. 언제나 나를 위해 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그렇게 닮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 국어 선생님이 방학숙제를 내주셨다. 경로효친에 관한 산문을 쓰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까운 곳에서 소재를 구하기 힘들었던 나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전에 갔었던 봉사활동, 어떻게 보면 경로효친이랑은 관계가 없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봉사에서 많은 일을 한 것도 그들의 모습에서 보여진 할아버지의 모습때문이었으니까, 지금도 생각이 난다. 언제나 형과 나를 보면서 기쁘게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우리를 보면서 해맑게 웃던 그들의 모습을.



경로효친문에작품 초등부 산문부문 최우수상

인사로 얻는 큰 행복

최리에 (남애초등학교 6학년)

우리 마을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등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어디를 가도 어른들과 마주하기 일쑤이다. 나는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지나치는 일이 대부분이다. 우리학교 근처에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곳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교통을 정리해 주시고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지켜보아 주신다. 나는 이렇게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이 후회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등하교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마주하게 된다면 용기내어 꼭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등굣길, 할머니께서는 차조심해서 다니라는 짚지만 따뜻한 할머니의 말에 나는 더욱 힘이 날때가 많다. 나도 할머니께 인사를 하는 것이 할머니께는 큰힘이 된다면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학교의 꽃이 지기 시작하는 어느날, 나는 친구와 하교길에 할머니와 마주하게 되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구나, 집에 빨리 들어가거라.”

나는 할머니의 말씀에 웬지 우쭐해졌다. 길옆 마루위에 앉아계시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다녀오는 길이구나.”

“네.”

할머니들께서는 오늘따라 더 환히 웃고 계셨다. 처음에 내가 그냥 지나쳤을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다. 나는 말 한번 걸기 힘들 것 같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나는 토요일 오후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청소를 하고 공부를 하라며 다그치셨다. 나는 투덜대면서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기를 돌렸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다. 나는 이불을 깔고 일찍 자리에 누웠다. 나는 자리에 누워서 다른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자리에 누워서 생각했다. 앞으로는 학교를 다녀와서 씻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나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할머니 생신때 선물은커녕 편지 한편을 써드린 적이 없었다. 다음 생신때는 꼭 선물은 못 드리더라도 편지라도 써서 드려야겠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께 예의 없이 굴었던 행동에 반성해야겠다.



경로효친문에작품 초등부 포스터부문 최우수상

작은 효도 부모님 웃음꽃핀다

박다희 (상평초등학교 5학년 1반)



2012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강원일보, 2012년 2월 25일 이경웅기자〉

[양양]개인 보관 중이던 유물 양양문화원 기증 금동 용두상·단군동상 2점



양양군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최고길씨가 보관 중이던 단군동상(사진왼쪽)과 금동 용두상 2점을 양양문화원에 기증했다.

양양군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최고길씨가 보관 중이던 금동 용두상과 단군동상 2점을 양양문화원에 기증했다. 1974년 10월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지 국보 125호(122호) 삼층석탑과 보물 439호인 3층부도 동남우곽 30cm 지하에서 직경 11cm, 높이 12cm, 무게 3kg의 금동 용두상과 법당지난간 면석 2기(길이 162cm)를 발견했다. 이 용두는 법당안 불단의 보개(寶蓋) 모서리를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아직 유래가 없는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공예술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하고 있다. 단군동상은 만주군관학교에 태극기와 단군동상을 함께 게시해 예를 표하던 것으로 군관학교 폐쇄 시 김재선씨가 소장하다 최씨에게 기증한 것이다. 최씨는 “금동 용두상 등 유물을 장기간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양양문화원이 기증하게 됐다”며 “금동 용두상은 사찰 내부용으로 제작된 축소한 용두보당의 상부로 추정돼 정확한 명칭 및 용도, 가치평가 등은 관계 전문가 심의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은 문화재청 및 도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함으로써 심의를 의뢰,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12년 2월 25일 최훈기자〉

개인소장 유물양양 문화원 기증



금동 용두상

단군동상

개인이 소장한 유물이 양양문화원에 기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양군청에서 문화재담당으로 근무했던 최고길 씨는 본인이 보관 중인 '금동 용두상'과 '단군동상' 등 유물 2점을 양양문화원에 기증했다. 기증 유물 가운데 금동 용두상은 지난 1974년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부도부분에서 발견된 것으로 당시 문화재 발굴반장이던 단국대 정영호 교수가 양양군 문화재 담당이었던 최 씨에게 별도 보관토록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단군동상은 1960년 후반 낙산해수욕장을 담당이었던 최 씨가 당시 해수욕장을 최초 운영한 김재선 씨로부터 기증 받은 유물로 만주군관학교에 태극기와 함께 게시해 예를 표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그동안 보관해 오던 유물들이 개인이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선량한 관리 조건으로 이번에 양양문화원에 기증했으며 문화원은 관계 전문가 심의를 거쳐 기증된 유물의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다. 양양/최 훈

〈강원일보 2012년 3월 21일〉

[포토뉴스]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2012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식이 20일 일출예식장에서 고완주부군수, 김일수양양군의회부위원장, 양동창 문화원장을 비롯한 수강생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일보, 2012년 4월 11일, 이경웅 기자〉

[양양]“93년 전 물치장날의 함성 잊지 말자” 양양문화원 만세운동 기념행사



제4회 물치만세운동 기념식이 10일 물치주차장에서 정상철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참가자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양양에서 3·1만세운동 93주년을 기억하며 물치만세운동'을 기리는 또 하나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양양문화원은 많은 애국열사를 배출해 활동했던 강현면에서 물치만세운동 기념식을 열어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후손에게는 선열의 호국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애국심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양양군문화원 주관으로 10일 오전11시 물치주차장에서 정상철 양양군수 오세만양양군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신간회기념사업회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극단굴렁쇠가 함흥기 열사와 일본 가네사와의 대화 및 진흥무를 공연해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93년 전 이곳 강현면 물치리에서 물치장날을 기해 분연히 일어났던 많은 애국지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추모한다”며 “강현면은 물론 양양지역에서 꺾기한 3·1만세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군민 모두가 화합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물치만세운동의 정신”이라고 했다.

〈break news 2012.5.10 이정배기자〉

양양문화원 제6기 어르신 문화학교 개강



양양문화원은 제6기 어르신 문화학교를 5월 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7개월간 총 3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9일 개강식은 이상준 시나리오 작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였

으며 이번 문화학교는 지역탐방을 통해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문화적 소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 외부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지역내 새로운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강원일보, 2012.6.7 이경웅기자〉

전통민속체험 즐기며 군민 화합 다져요

양양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오늘부터 9일까지 열려 다채로운 체험 행사·오색케이블카 설치 결의문 채택도【양양】양양군의 고유 향토 축제인 제34회 현산문화제 및 제44회 군민체육대회가 7일 남대천 둔치에서 막이 오른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고용달)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현산문화제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까지 사흘간 양양을 일대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첫 날 전야행사는 고치물제, 장군성황제, 시가행진에 이어 오후 8시부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양양을 이만호씨 등 10명이 각자의 실력을 겨루는 군민노래자랑이 남대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며 인기가수 및 퍼포먼스 공연, 불꽃놀이 등의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8일 개막식은 양양기미만세운동재현을 시작으로 양양군 민문화상 시상, 축포, 헬기 축하비행 등이 펼쳐진다. 특히 양양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양양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오색케이블카 설치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한다. 또 농악 경연, 읍면대항민속경기대회와 군인, 학생, 청장년, 주부,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유도, 댄스, 분재, 공예품 등 각 분야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매년 개최되는 양주방어사행차, 대포수군만호 행차, 양양기미만세운동 재현 등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행사도 준비돼 있다. 행사기간 전통민속놀이 체험, 농특산물전시회, 민속품제작시연, 건강증진체험, 서예·사군자 증 작품전시회, 꽃누르미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린다. 고용달 위원장은 “3·1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인 현산문화제가 군민 대화합의 축제로 승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12년 6월 8일, 최훈기자〉

양양군민 한마당축제 막을랐다

양양군민의 한마당 축제인 제34회 현산문화제 및 제44회 군민체육대회가 8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7일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 시가행진에 이어 전야제 행사가 개최된 올 양양 현산문화제는 8일 개막식에서 양양기미만세운동



제34회 현산문화제가 7일 오후 고치물센터에서 고치물제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양양/최 훈

재현을 시작으로 군민문화상 시상식과 함께 8군단의 헬기 축하비행, 통일염원 풍선날리기,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장에서는 양양군민 최대 숙원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 결의문이 채택되며 축제기간 중에는 각 읍면별 군민 체육대회와 함께 장군굿, 추성판소리, 청소년 국악사물놀이 경연, 한시백일장, 시낭송회, 서예·꽃누르미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 문화예술 축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된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특히 올해는 전통민속 체험장 등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행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현산문화제가 풍농과 풍어의 기원을 담은 진정한 군민들의 한마당 문화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12년6월30일, 최훈기자〉

연암박지원과 양양군 역사문화 콘텐츠 창출 심포지엄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 역사문화 콘텐츠 창출’ 심포지엄이 29일 양양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과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관련기관 단체장, 교수, 연구원, 학생,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김정호

2012

양양문화원 어르흥보헌화



오영교 연세대 교수 김동석 성균관대 강사 박수밀 한양대 연구교수 정호완 대구대 명예교수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 박원순 동국대 강사



이홍석 신원대 연구교수 박병우 강원대 교수 이재동 함평대 연구소 위원 조성진 동우대 강사 박미현 분사 기획국장

[주제발표]

■ 연암 박지원 생애와 사상오영교(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연암 박지원(1737~1805년)은 깊이 있는 사유로 시대를 통찰하며 탁월한 문장으로 고루한 관념에 매몰된 양반지배층을 날카롭게 비판한 조선 후기 문인이자 실학자이다. 연암은 문학작품을 통해 18 세기에 당면한 사회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사회신분제의 모순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 풍자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농서와 정론을 통해 상공업 및 농업 기술의 발전과 토지제도의 개혁을 강조한 사상가였다. 연암의 문학작품은 양반사대부들에 대한 증오, 당대 봉건 사회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 뛰어난 사실주의의 일반화의 힘으로 우리 문학사에 귀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 연암은 동시에 탁월한 실학자였으며 대단히 따뜻함을 지닌 목민관이었다. 연암은 평생토록 백성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용후생의 학적수립과 정책적 실현을 갈망하였다. 연암의 사상과 문학에는 그가 살고 활동한 시대의 역사적 제한성과 그 자신의 세계관으로 인한 제한성이 반영돼 있다. 그의 철학적 사회 정치적 견해들은 많은 경우 유교 규범에 기초하고 있으며 양반들의 무위도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국왕을 비롯한 양반 사대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고 봉건신분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였으나 모진 풍파 속에서 그가 서술하고 뿌리를 내린 이용후생의 실학과 사회신분제의 개혁안은 마침내 후학들에 의해 사회적 실천으로 승화됐다.

■ 연암 박지원 양양부사 활동과 작품세계

김동석(성균관대 한문학과 강사)

연암 박지원은 우리민족의 자존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한 사상가요 문학가로 볼 수 있다. 박지원은 정조의 서거 때 양양부사로 부임하라는 것을 며칠 뒤로 미루고 대궐로 달려가 통곡하다가 부임지에 늦게 출발한 것이 원인이 돼 의금부에서 문초를 받았다. 이 당시 정국에 찬바람이 불던 시절 왕실의 힘을 빙자한 승리의 횡포와 감영의 독단은 양양부사 연암은 스스로의 한계를 체감한다. 연암은 관리가 돼 염치를 알고, 녹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 문호의 칭호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문장가의 양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그의 일관된 삶이 가장 짧은 양양

부사 시절 가장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박지원이 양양에서 남긴 메시지는 젊은 시절 그가 과거시험장에서 보여주었고, 과거를 포기한 그의 행적이 바로 양양에서 인생 마지막 벼슬을 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다. 박지원이 생기 발발했던 사상과 생각은 열하일기에 자주 표현이 되었지만 관료가 된 이후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 달라진다. 문학사로 보면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지원이 양양 부사시절 보여주었던 면모는 바로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의 본 모습을 회복하던 것이다.

■ 박지원의 목민관으로서의 면모와 생태정신

박수밀(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조선이 낳은 최고의 실학자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이 목민관 활동의 갈무리를 장식한 곳이 양양이다. 연암은 양양에서 고작 1년 남짓 활동했지만 양양의 수려한 경치를 마음껏 누리며 그의 공직 생활을 아름답게 갈무리했다.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양양을 노래할 때면 양양의 수려한 산과 바다를 어김없이 언급하곤 했다. 연암 역시 양양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알았으며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연암이 1801년 봄 양양부사직을 사임하고 이웃의 지인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스리던 고장의 녹봉(봉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그 중 한 사람이 연암에게 양양은 어떠했는지를 묻자 연암은 “1만 2000냥 받았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자 연암은 “바다와 산의 빼어난 경치가 1만냥 가치가 되고 녹봉이 2000냥이니, 넉넉히 금강산 1만 2000봉과 겨울만하다”고 했다. 위의 일화는 연암이 자연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으며, 양양이 얼마나 빼어난 경관을 가진 고장인지가 잘 나타나 있다. 실제로 연암은 자연 사물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때 무조건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자연을 깊이 존중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암의 이용후생론에 담긴 생태 정신을 잘 계승해 양양이 생태문화를 조성할 때 자연 사물을 존중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양양의 역사문화, 연암의 문화콘텐츠

정호완(대구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양양은 선사시대부터 우리의 선인들이 자리를 내려 살고 있었다. 지정학상 바다로부터 혹은 북방에서부터 태백산의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공략의 요해지가 바로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이다. 양양은 또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풍자문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양반전의 창작 동기를 부여한 곳이다. 양반전과 강원도 아리랑을 접목함으로써 콘텐츠의 작품성을 제고할 뿐더러 강릉의 단오제 문화와 정선의 아리랑, 봉평의 효석문화와 평창아리랑, 영월의 김삿갓의 언어 예술은 연암문화 산업과 함께 지역의 홍보는 물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산업의 기지화를 꾀할 수 있다. 이로

하여 매우 효율성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양양-강릉-정선-평창-영월로 이어지는 연암과 김삿갓, 이효석과 울곡의 길로 학문과 예술이 조화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소통의 시대를 맞아 금강산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통일문화의 전초 작업으로서의 의의 또한 크기에 더욱 그렇다. 이와 함께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풍유적으로 표현하였던 이른바 연암의 '경관 녹봉론(景觀綠奉論)'은 아름다운 자연을 자산으로 처야 한다는 풀호근 교수 등의 자연자본주의론과 연계해 자주 인용되고 있다. 연암의 경관자산론은 비록 과거 산업자본시대에는 뒤쳐졌지만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가치는 연암문화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일으켜야 한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토론포지]"양양문화 개발·상품화 필요"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 양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고장이다. 하지만 양양은 우수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에 비해 지금까지 이의 계승 발전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발전 위해 다리나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 문화를 계승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연암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연암 삶 공간으로서 양양 주목" △박성순 동국대 강사= 박지원 삶의 한자락을 기억하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양양을 살펴보는 논의는 우리 문학과 문화연구의 공간성과 장소성을 확장하는 것이며 박지원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 줄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박지원과 양양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 이해를 통해 공간과 장소, 주변과 지방에 대한 이해를 확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양양부사 시절 작품 연구해야" △이홍식 선문대 연구교수=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박지원의 양양부사 활동과 작품세계라는 논문은 양양과 박지원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특히 박지원의 말년 모습을 선연하게 그려내 이 시기의 연암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다만 해학이 박지원 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양양부사시절 창작한 작복과의 연결은 조금 느껴져 보인다. "양양, 연암 생태관 영향 컸을 것" △박봉우 강원대 교수= 경관가치 1만냥은 그 가치가 아주 크다는 뜻으로 연암은 양양의 경관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고 무형의 경관을 금전가치로 인식하는 선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한 1년은 연암의 생태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쓰지 않는 황장목으로 다리를 놓아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이용후생의 사고는 이러한 생태관의 연장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양양부사 선정 심도있게 고찰" △이재풍 양양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위원= 오늘 심포지엄이 일반적으로 연암에 대한 문학적 애기에 치중하는 것 같다. 연암 박지원은 황장목에 대한 일화에서 보듯 선정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양양부사 재임기간이 짧고 지역에 일가가 없었던 이유로 인해 공덕비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

된다. 앞으로 문학적이고 문화적 측면 보다는 양양재임 기간 동안 부사로서 선정을 펼친 내용에 대한 고찰이 보다 심도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연암·문화콘텐츠 연계 필요" △조성진 동우대 강사= 과거 연암을 현재 양양지역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다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양양의 역사문화성과 연암이라는 문화콘텐츠 사업 시나리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또 이들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조급한 사업추진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양반전 정체성 확실히 해야"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기획국장= 이번 심포지엄에서 연암의 해학정신이 빛나는 양반전을 콘텐츠화 하는 것에 공감을 하며 다만 양반전 배경이 된 정선군과는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야 그 특색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 연암 일화에 등장하는 '1만냥 양양경관', '황장목다리'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도 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원도민일보, 2012년6월30일, 최훈기자〉

연암이 감탄한 자연경관 문화사업 콘텐츠로 활용



29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 역사문화콘텐츠 창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양양/김정호

우리나라 실학사에서 큰 봉우리였던 연암 박지원이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풍유적으로 표현하였던 이른바 '경관자산론'을 지역의 자연가치는 물론 연암문화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산업의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민일보는 29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과 공동으로 조선후기 대표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의 양양부사 활동시절을 재조명하기 위해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 역사문화콘텐츠 창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10면이날 심포지엄에서 한양대 박수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암의 경관녹봉론과 관련된 일화는 연암이 자연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와 양양이 얼마나 빼어난 경관을 가진 고장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연암의 생태정신은 양양의 생태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영교 연세대 교수가 ‘연암 박지원 생애와 사상’, 김동석 성균관대 강사가 ‘연암 박지원 양양부사 활동과 작품세계’, 정호완 대구대 명예교수가 ‘양양의 역사문화, 연암의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연암의 양양부사 재직 당시의 저서 등을 통해 양양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자연경관을 자산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양연석 강원도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박봉우 강원대 교수 △박성순 동국대 강사 △이홍식 선문대 연구교수 △이재풍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위원 △조성진 동우대 강사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기획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연암의 생태사상과 경관자산론을 조명하고 역사문화콘텐츠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경남 함양과 충남 당진을 거쳐 양양부사로 승진해 강원도에 머무른 연암 박지원은 가는 곳마다 따뜻한 인간미로 지역민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연암의 양양부사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및 양양지역 문화콘텐츠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양/최 훈

〈강원일보, 2012.11.5 이경웅 기자〉

문화발전·교류 업무협약

강원도 설악권문화원연합회와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가 지역문화 발전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지난 2일 양양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는 설악권문화원연합회장인 양동창 양양문화원장과 길공섭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문화 발달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속초시,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등 설악권 5개 문화원과 대전광역시 5개 문화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악신문 2012.12.24 김주현 기자〉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열려 한문·한글·한시·한국화작품 전시회도 가져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작품 전시회가 지난 21일 전사실에서 열렸다.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 문화학교 수료식이 지난 21일 오전 10시 일출예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양동창 문화원장과 정상철 양양군수, 김일수 양양군의회 의장 등 250여명이 참석해 축하



했다. 양양문화원은 수료식에 앞서 축하공연을 가졌으며, 수료생들의 한문·한글·한시·한국화 작품 전시회도 열었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매년 문화학교를 통해 많은 수강생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설악신문 2012.12.31 김주현 기자〉

연극으로 청춘을 다시 얻었어요



양양문화원 어르신 연극단 ‘양양쾌지나’ 공연 이상준 작가 시나리오·연출...단원 30명 열연

양양문화원 어르신 연극단이 지난 26일 공연에 앞서 리허설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연극무대에 설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청춘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양양문화원이 올 한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어르신 연극단’이 지난 29일 첫 공연을 열어 노년의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신바람 나는 양양의 어르신 연극단’은 이날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 8개월간 연습해온 ‘양양쾌지나’를 무대에 올려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양양 현북면에 정착한 드라마 작가, 이상준 씨의 시나리오와 연출로 무대에 올린 이번 작품은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던 가족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헌신적인 가족사랑에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으로

피폐해진 최근 세태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허영에 들뜬 일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에 눈이 멀어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 검진결과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망연자실 한다. 가족들 모두 자신의 죽음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아버지는 이런 와중에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 흔쾌히 간이식을 해주면서 사라졌던 가족애가 다시 회복된다.

지난 5월9일 양양문화원이 문화학교의 일환으로 구성한 '어르신 연극단'이 운영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어엿한 연극무대를 마련한 것이다. 60세 이상 노인단원 30명으로 구성된 연극단은 매주 1회 2시간 이상 맹연습을 하며 연극을 통해 청춘의 불씨를 되살려 갔다.

특히 단원들 모두 이상준 작가의 노련한 지도 속에 무대에까지 오르자 '우리 노인들도 할 수 있다'는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는 자긍심이 대단하다.

이상준 작가는 "이번 연극을 통해 천혜의 자원경관이 뛰어난 양양 이아말로 문화예술 콘텐츠가 확충된다면 경쟁력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번 연극을 완성해낸 단원들 모두가 주인공이며 헌신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과 이상준 작가는 이번 어르신 연극공연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자, 이참에 어르신 연극단 창단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배우들도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일보, 2013.1.10 이경웅 기자〉

〈양양〉양양패지나' 공연 인기몰이

양양문화원 제6기 어르신문화학교 연극반 졸업 작품인 양양패지나' 공연이 뜨거운 호응을 얻어 순회공연에 나선다.

이번 양양패지나' 공연은 이상준 작가의 연출 및 지도 감독으로 지난해 12월29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그동안 익힌 실력으로 공연을 펼쳐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속초시와 인제군 초청공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속초시 공연은 10일 오후2시 속초시 종합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어르신대상으로 공연하며 인제군은 인제빙어축제 기간인 오는 24일 축제장 특설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동아일보, 2013.01.10 이인모 기자〉

〈강원〉양양 어르신들 '연극 바람' 소문났네

강원 양양군 어르신 연극단이 펼치는 연극 '양양패지나'의 한 장면. 지난해 말 양양 공연을 한 데 이어 10일 속초, 24일 인제에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양양군 제공



평균 65세 13명 열정의 무대... 속초-인제에서도 초청 공연

10일 오후 2시 강원 속초시 종합복지회관 공연장에서 특별한 연극이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는 평균 연령 65세의 '양양 어르신 연극단'이 '양양패지나'란 제목의 연극을 올린다. 어르신 연극단은 양양문화원이 지난해 5~11월 개설한 제6기 어르신문화학교 연극반 수료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첫 공연을 펼쳤다. 어르신문화학교 7개월 동안 갈고닦은 연극 실력을 뽐내는 자리였다.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다. 어설픈 연기를 예상했던 관객들은 배우들의 열연에 힘찬 박수를 보냈다. 인근 지역으로 입소문이 퍼졌다. 이번 속초 공연도 입소문 덕에 초청된 자리다. 24일에는 인제 빙어축제 특설공연장 무대에도 초청 받았다. 이들이 펼치는 연극 양양패지나는 양양 최고의 부자 조문수 일가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민 것으로 공연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다. 극작가 이상준 씨가 연출 및 지도, 감독을 맡았다.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이 대사를 잊는 등 실수가 잦을 줄 알았는데 실전에서 연기와 대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속초와 인제 공연도 멋진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13.01.11 최 훈 기자〉

양양 어르신 연극단 '양양패지나' 호응 속초 이어 24일 인제 공연

'신바람 나는 양양의 어르신 연극단' 공연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양문화원이 운영하는 제6기 어르신문화학교 연극반인 '신바람 나는 양양의 어르신 연극단'은 이상준 작가의 연출과 지도·감독으로 지난달 29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졸업 작품으로 '양양패지나'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첫 공연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시군의 공연 문의가 이어져 공연단은 10일 속초시 종합복지회관 공연장에 이어 24일에는 인제빙어축제 행사장 특설공연장에서 인제군민과 빙어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게 된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연극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자기 계발의 계기는 물론 양양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편집후기

어느덧 임진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문화가족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문화원은 많은 성과를 올린 한해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의 눈부신 활동으로 그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지난해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전국향토자료공모전 논문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는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로 전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강원도지회 주관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는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향토 문화공모전의 최고상을 모두 차지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의 정점인 연극으로 또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2년 제6기 어르신문화학교 연극반 학생들의 졸업 작품인 “양양돼지나” 공연이 호응을 얻어 속초와 인제 빙어축제에 초청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신문과 언론방송 매체를 통하여 문화원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은 지역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계사년 한해에도 문화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襄陽文化院 事務局長 金光泳





Memo



Memo



Memo



Memo

양양문화 제24호

2012年 12月 28日 印刷

2012年 12月 28日 發行

발행인 : 양 동 창

편집인 : 김 광 영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앙앙8경



1경 연어들의 고향, 남대천



남대천은 총 길이가 54km되는 하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역이다. 물에는 황어, 7~8월에는 은어, 10~11월엔 북태평양에서 3~5년 동안 자란 연어떼가 돌아오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두거리, 민물참깨 등 희귀 민물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과 구룡령에서 발원한 물이 만나 큰 하천을 이루어 동해로 흘러가는 앙앙 남대천은 연어들의 모친인 '어머니의 강'으로 불리며, 매년 연어축제가 열리고 있어 연어들의 힘찬 몸부림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5경 해풍과 조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하조대



백사장 규모가 크고, 모래가 부드러우며, 경사가 완만하여 가족단위의 피서지로 적합하다. 1976년 처음 개장한 이래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2,722㎡의 야영장과 더불어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며, 워낙시설이 많지 않아 주변의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조용하다. 담수가 흐르며 남쪽에 기암괴석과 바위섬이 있어 낚시하기에 좋은 곳이다.



2경 태고의 응비를 간직한, 대청봉



대청봉은 해발1,708m로 일출과 낙조로 유명하며, 기상변화가 심하고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 때문에 눈짓나누 군락이 웅단처럼 낮게 자라 국립공원 전체와 동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 늦가을부터 늦봄까지 눈으로 덮여 있고, 6월~7월이면 진달래, 철쭉, 벚꽃으로 뒤덮이며, '오산오수'라는 글귀가 새겨진 바위와 대청봉 표지석이 있다. 정상까지 오르면 백담사방면, 설악등 방면, 한계령 방면의 코스가 있는데, 오색에서 설악 폭포를 거쳐 정상에 오르는 6km약 4시간 소요가 최단거리 코스이다.



6경 파도소리와 죽향이 가득한, 죽도정



죽도정은 죽도 정상에 있는 정자로 1965년 5월에 세워졌다. 죽도는 인구리 해변에 있는 둘레 1km, 높이 53m의 섬으로 송죽이 사철 울창하다. 죽도정에 오르면 파도가 깎아 만든 여러 모양의 바위와 해안풍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죽도 북쪽 기슭에는 죽도암이란 작은 암자가 소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3경 자연도 함께 쉬어가는 신비로운, 오색령



해발고도 920m인 오색령은 내설악과 남설악을 잇는 44번 국도이며 선조의 숨결이 담긴 고개이다. 인생을 닮은 듯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달리면 남설악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설악의 운무가 펼쳐는 장관은 오색령에서만 볼 수 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다보면 강원도 지역에서 여섯개의 령을 손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오색령이라 했다.



7경 강원도의 베네치아, 남애항



아름다운 미항 남애항은 386세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고래사냥의 촬영지이다. 그시절 그들이 정말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는데...고래사냥 노래의 "술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는 가사가 기억에 남는다. 남애항 양쪽에는 서로 마주보는 있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는 남애항의 운치를 더해주며 낚시배를 예약하면 바다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다.



4경 시원한 폭포와 기암단풍이 아름다운, 오색주전골



남설악에 있는 오색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동북쪽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다. 남설악의 큰 골 가운데 가장 수려한 계곡으로 계곡미와 가을 단풍으로 유명하다. 골이 깊어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끼며 고래바위·상투바위·새는바위·여심바위·부부바위·오색석사·선녀탕·심이폭포·웅소폭포 등 곳곳에 기암괴석과 폭포가 이어져 풍광이 빼어나다.



8경 일출이 아름다운, 낙산사의상대



낙산사의상대는 낙산사 창건자인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자로, 낙산사의 동쪽 100m 거리의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져 있다. 앞으로는 끝없이 맑고 푸른 동해바다를 마주하고, 오른쪽 절벽 아래로는 낙산해수욕장과 인접하여 있으며, 뒤로는 유서 깊은 낙산사와 울창한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주위 경관이 빼어나다.

무산재단은 양양지역 아동과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함께 가꾸어 갑니다.



무산지역아동센터 전경



아동센터 내부(프로그램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



어린이작은도서관 의상도서관 내부

무산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초·중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로 120여명의 학습실, 프로그램실, 도서관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학습지도,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전문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 운영시간 : 09:00 ~18:00(방학중), 10:00 ~19:00(학기중)
- 대 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 중등학생(저소득층 아동 무료이용)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66번지
- 연 락 처 : 033)671-0889

의상도서관(무산지역아동센터 부설 어린이 작은도서관)

70여평의 아름다운 문화교육 공간으로 지역의 아동청소년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도서관인 의상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게 하는 곳입니다.

- 운영시간 : 10:00~19:00
- 대 상 : 관내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누구나(회원증 발급해드립니다)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66번지
- 연 락 처 : 033)671-0889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무산재단

매년 6월, 남대천 둔치 및 행사장

峴山文化祭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양양의 문화축제!

주요행사내용

- 전야제
- 민속놀이
- 식전행사
- 경축문예행사
- 개막식
- 전시및부대행사
- 식후행사
- 양양군민체육대회



 현산문화제위원회